



5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5호

(루게 523)



◆◆◆◆◆◆◆◆ 차 례 ◆◆◆◆◆◆◆◆

류다른 별	4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	4
록 음 문 건	5
국보에 대한 생각	6
우리의 궁지	8
사랑과 행복의 끝은 어디에	10
쇠돌산의 꽃	15
한그루 봇나무	16
여 름	17
봄날의 약속 (외 1 편)	28
바래주고 생각하니	28
아버지의 초상	29
광부의 생각	37
그날의 구령소리 (외 1 편)	38
병사들이 왔다	38
문학작품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39
대한 심오한 예술적반영	39
자강도 내 고향에	42

흙 한줌 움켜쥐고.....	43
저녁노을	44
총련이여! (외 2 편).....	52
일심단결	52
우리 말.....	53
재일조선 시인들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	54
탄전의 새날은	60
숫돌을 바라보며	60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 년대성격	61
창조문제를 두고	61
첫물오이	67
참으로 어머니를 문득 만난다면	68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76
투쟁의 도시 광주에	78
분노한 광주.....	79

류다른 별

바티노 베르나르맹

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이는 존엄있는 나라의 창건자이시여라
조선은 그이의 손길아래 피어난 아름다운 꽃
조선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조선은 우리 세대가 바라는 낙원의 땅
태양이 빛나고 푸른 오아시스 있는 평화로운 땅

오, 위대한 수령님
내 그이의 위대한 품모 칭송하노라
얼마나 깊은 사랑과 빛나는 예지를 지니신분이신가
오, 푸른 들 기름진 땅 아름다운 조선이여

그대는 번영하는 세계의 중심
내 그대의 웅장한 도시들과 규를있는 인민을
감격에 넘쳐 바라보노라

오, 자랑스러운 조선
그대는 자연의 절경보다 더 아름다운 땅
내 그대를 바라보면
그림과 같은 그대의 모습 더욱 그리워져
류다른 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내 끝없이 끝없이 노래하노라
(필자는 부르끼나파쏘 예술가임)

인민의 지도자 김정일

은게마 음바

우러러따르는 그 이름
노래불러 칭송하는 그 이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친근한 그 이름 부르며
사람들 노래하여라 그이의 숭고한 품모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이것은 그이의 인생철학

이 위대한 철학적진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낳았고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게 하였거니
인디아양의 항로에서 사경에 처한 두 선원을 위해
처한 두 선원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 날고

심한 상처 입었던 한 용해공도 초소에 다시 서지
않았던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은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
영원히 그이를 받들어모시리
통일된 조국에 주체의 봄을 꽃피우리

세계 혁명적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주를 덮으리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드리노라
자주시대의 미래를 위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필자는 가봉사람임)

록 음 문 건

1978년 6월 어느날이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문건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방으로 갔다.

그이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그런데 그 일군이 올린 두툼한 문건을 받아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느날과 달리 문건을 손에 드신채 무엇인가 심중한 생각에 잠기시며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는 것이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에게로 돌아서시며 심려깊으신 음성으로 수령님께서서는 매일 쌓이는 문건들을 보시기에 많은 피로를 느끼고계신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수령님께 올려야 할 문건들이 이렇게 쌓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제야 그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이유를 깨닫고 그이의 책상우를 살펴보았다.

책상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수많은 문건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수령님의 문건부담을 덜어드릴 방도를 생각해본적은 없는가고 하시었다.

그 일군은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사실 그는 문건을 간결하면서도 내용있게 만들기 위해 애쓰느라고 하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 문건부담을 덜어드릴 다른 효과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을 바라보시며 나는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쳐 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의 쉬임도 없이 일

하시는것을 볼 때마다 수령님의 로고와 심려를 더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생각이 깊어지군한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지 못하시여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은 그 일군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다가 그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부피가 큰 문건들은 록음하여 올리면 어떻겠는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록음한것을 문건과 함께 올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록음으로 들으시다가 필요한 부분만 문건에서 찾아보실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수령님께서 문건을 보시면서 받으시는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그 일군은 매일같이 문건을 만들어 올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자신을 깊이 뉘우쳤다.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 조금이라도 편리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드리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송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그날밤으로 록음문건을 성의껏 만들어 다시 그이께 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그 뜻깊은 록음문건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이 올린 록음문건을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셨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기쁨에 넘쳐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서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신다는것이 어떻게 하는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심장으로 느꼈다.

국보에 대한 생각

오대정

얼마전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았던 나는 줄곧 흥분 속에 취재의 나날을 보내었다.

향산역에서 내려 국제친선전람관까지 가면서는 묘향산의 봄풍경과 아침해돋이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고 국제친선전람관앞에 이르러서는 금방 나래를 펴덕이며 대공으로 날아오를듯한 대기념비적건축물에 황홀해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여 세계 5대륙 백수십개의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정계와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수만 점을 헤아리는 선물들을 직접 돌아보면서는 선물의 진귀함과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에 한없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연방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참관시간이 어떻게나 빨리 흘러갔는지 아쉽기 그지없었다.

하긴 선물마다에 깃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다 듣자면 며칠 아니 몇달을 두고 들어도 다 들을수가 없으리라.

참관을 끝냈으나 아쉬움은 나의 발목을 그러잡은 채 놓을줄 몰랐다. 나의 이 심중을 헤아려선지 강사동무는 이야기를 더 들으며 취재를 심화시키려거든 저녁에 다시 찾아와도 좋다는것이였다. 온종일 참관자들을 위해 수고를 한 그에게 미안한감도 없지 않았으나 직업적인 타성으로 나는 강사를 찾아갔다.

나와 마주한 강사동무는 조용히 입을 여는것이였다.

《오늘 저녁엔 선물을 마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만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렵니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입을 연 강사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세계 5대륙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선물들이 전시되게 된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해방직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사회활동가들,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받으신 귀중한 선물들을 어느 한점도 자신께서 쓰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기때문에 대를 이어가면서 길이 전할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고 늘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번은 우리 일군들이 어느 한 나라에서 보내온 진귀한 사무용품들을 집무실에서 쓰시게 하려고 하

였을 때에도 그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또 한번은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보내온 희귀한 가구들을 저택에 갖추어놓으려고 하였을 때에도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보내온 희귀한 가구들을 저택에 갖추어놓으려고 하였을 때에도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자신께서 받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로동당시대의 국보로 만대에 길이 전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충성으로 받드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에 있는 일이다.

하루는 그이께서 한 일군을 찾아오시여 탁상패종시계를 하나 구해줄수 없겠는가고 하시였다. 그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께서 늘 하시던것처럼 이른아침마다 기다란 장대를 드시고 저택앞의 나무숲에서 소란스레 우짚어대는 참새무리들을 쫓아버리곤하시였다. 매일 나라일이 바쁘시여 밤늦게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수령님께서서 얼마간이라도 편히 주무시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일어나시느라고 해도 일어나시면 나무숲에는 벌써 새들이 날아와 조잘대는것이였다. 그래서 아예 한마리의 새도 나무숲에 날아와 앉지 못하게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셔야 하겠는데 탁상패종시계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실로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사연이였다.

일군은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받으신 선물가운데 그런 시계가 있었던것을 생각하였다. 하여 일군은 더 생각할새 없이 그 시계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져다 올리였다. 그런데 일군은 그날로 그 시계를 되돌려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시계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패종까지 올려보시더니 인제는 더 일찌기 일어나 아버지장군님을 더 편히 주무시게 해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어디서 이런 시계를 구했느냐고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물으심에 일군은 하는수 없이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심중하게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한 웃음 어리시였던 얼굴에 짙은 심려의 빛을 띠우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받으신 선물들은 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시었다면서 그러니 자신
께서도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어길수 없노라고 하시
였다.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였다.

어리신 그 시절에 벌써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길
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다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그 충성심의 높이를 무엇으로 재일수 있
으랴.

크나큰 충동을 안고 설레는 가슴을 진정치 못하
는데 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되는것이였다.

1956년 여름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는 수수한 학생복차림으로 한 일군을 찾아오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에 선물로 받으신 피아노를
한번 구경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그이께 피아노를 제때에 보여드리지 못한
죄송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선물들을 보관해는 방
으로 안내해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많은 선물들 가운데 있는 피아노앞으로 다가가시여
한동안 그 겉모양을 이모저모 살펴보시였다. 이윽
하여 그이께서는 친히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조용히
건반을 하나둘 짚어보시더니 이어 의자에 앉으시
여 능숙한 솜씨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시였다.

조용하던 방안에는 어느새 불멸의 혁명 송
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퍼
지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
여 자신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곡들인
《조국의 품》과 **《축복의 노래》**도 타시였다.

태양의 노래, 조국의 노래, 만수무강의 노래!

피아노로 노래 한곡을 타시여도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
의 노래만을 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순간 일군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님만을 따
르는 전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다시금 체
험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피아노앞에서 일어
서시여 피아노가 좋아 마음에 든다시며 잘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돌아가신
후 일군은 오랜 토의끝에 그 피아노를 몸가까이 두
고 쓰시도록 하기 위해 저택으로 실어갔다.

며칠후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저택으로 갔던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문앞에까지 나와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는 바쁘실텐데 찾아서 안됐다고 하시면서 그
를 피아노가 있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피아노결으로 다가
가시여 수령님께 올린 피아노가 확실히 좋다고 하
시며 그동안 피아노를 잘 타보았으니 이제는 도로
갖다가 잘 보관해두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이 피아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가
까이 두고 쓰시라고 가져온것이니 걱정 마시고 어
서 쓰시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피아노는
수령님께서 받으신것인데 내가 쓰면 되겠는가고 하
시면서 이 피아노는 수령님께서 이미 교시하신것처
럼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만대에 길이 전할 나라의
국보이다, 자신에게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 의무만
이 있지 어길 권리는 없다, 그러니 잘 보관해두라고,
이 피아노는 자신께서 치지 않아도 수령님의 위대
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노래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일군의 가슴은 한없는 걱정으로 설레였다. 그러자
며칠전 하많은 노래중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를 열정적으
로 치시던 불멸의 영상이 다시금 눈앞에 어려오는
것이였다....

《나라의 국보!》 조용히 외워보니 생각이 깊어진
다.

문득 어느 외국영화의 제목이 떠오르면서 영화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살아생전에 술한 금은보화를 자기의 환락과 치부
에 리용했고 죽어서는 땅속으로까지 그 보물을 끌
어들인 왕, 그의 후대들은 그 보물에 탐이나 왕의
묘지를 파헤치며 피의 쟁탈전까지 벌리지 않았던가.

돌이켜볼수록 위대한분들을 모신 벽찬 궁지감과
환희의 감정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정녕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처럼 자신께 보내오는 선물마저 사양하시며 그것을 후손만
대에 길이 전하도록 아끼시고이도록 깊은 관심을돌리시는분
이 어디 계시랴.

이리 생각해도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분들이고 저
리 생각해도 인민을 위하시는 전무후무한 위대한분
들이시다.

한평생을 오직 인민만을 위하시며 거기서 가장
크나큰 행복과 기쁨만을 찾으시는분들이라고 다시
금 생각하니 눈앞에 솟은 국제친선전람관이 더더욱
빛나게만 안겨왔다.

우리의 금지

리수덕

흔히 사람들은 백과주령진 풍요한 과원을 대할때 따뜻한 햇빛과 비옥한 땅 그리고 그것을 심어가꾼 다심한 손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생활속에서 꽃피고 열매맺는 그 모든 영광과 행복, 민족적금지들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놓고 부푸는 가슴을 금치 못하곤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천만을 헤아리는 무성한 나무잎과 나무가지도 하나의 줄기에서 뻗고 번성하듯이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이 있어 조선의 존엄이 빛나고 이 강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음을 뜨겁게 느낄적마다 나는 지난해 현실체험차로 서해갑문에 나가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곤한다.

…주체조선의 위력의 상징으로 서해의 20 리 날바다위에 솟아난 서해갑문에 일년 네계절치고 어느 하루도 한적한 날이 없지만 지난해 8월처럼 참관자들로 그토록 붐빈적은 일찌기 없었다.

한것은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전국의 참관자들이 례년에 없이 많이 찾아는데다가 8.15 범민족대회 참가자로 조국에 온 세계 여러 대륙의 동포들이 련해 련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해갑문을 찾아왔기때문이었다.

서해갑문에서 퍼그나 오랜 기간 현실체험을 하는 과정에 이곳 갑문사업소의 일꾼들이며 안내원들과도 친숙해졌고 갑문건설의 래력과 그 규모에 대해서도 어지간히 통달하고있었던 나는 가끔 《보조안내원》 격이 되어 해외동포들을 대상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내가 서유럽에서 온 한 해외동포참관단을 대상하여 서해갑문에 깃든 어버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적과 령도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났을 때였다.

청중의 얼굴마다 찬탄과 흠모의 정이 넘치는데 백발의 한 로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다가오더니 손을 무작정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속담에 하나를 보고 백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서해갑문 하나를 보고도 조국의 위력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민족된 금지와 자랑이 넘칩니다. 아마 해외에 널리사는 조선동포들이 이 갑문하나만 와서 봐도 고개를 빼것이 쳐들고 살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높이 모셨기에 이룩할수 있는 20 세기의 대기적입니다.》

알고보니 그는 해외에 나가 모진 민족적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수리공학부문에서 반생을 일해온 로인이였다.

비록 갑문참관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조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싶어하는 그의 성실한 태도는 나와 친분을 펴 두렵게 했다.

해방전 수난의 그 나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것이란 달구지와 삼, 호미밖에 없어 온 마을이 떨쳐나섰지만 자그마한 저수지의 방축 하나 막지 못해 가물과 홍수에 시달리다가 끝내 고향땅과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의 과거사는 사뭇 눈물겨운것이였다.

휴식시간에도 나와 그 로인은 전망대의 응접실에서 자리를 같이했다.

응접실에는 갑문건설당시부터 완공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왔던 외국의 손님들과 국내외의 참관자들이 서해갑문에 남긴 소감을 적어놓은 감상록들이 진렬되어있었다.

로인은 커다란 흥분과 호기심을 안고 부피 큰 감상록을 한장한장 번져나갔다.

년대와 년대를 넘어간 감상록을 번져가던 그는 한 대목에 이르러 《여길 좀 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한 외국대표의 감상문을 손으로 짚어보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끝없는 금지와 자랑에 넘쳐 소리높아 읽어나갔다.

《서해갑문 건설은 대단하고 통이 큰 작전이다. 이 공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정력적인 지도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가르치심을 받는 조선인민의 결의와 거대한 능력, 헌신성과 애국주의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곁에 앉았던 해외동포들도 로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 감상문을 다시 읽어보며 경탄과 호모, 긍지와 자랑의 마음을 금치 못해했다.

북반쳐오르는 걱정을 참을길 없는듯 로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한 외국인의 감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이 땅우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탁월한 령도에 대한 세계의 찬사이고 우리 조국, 우리 조선민족에 대한 경탄과 부러움 바로 이것이지요.》

파연 옳은 말이였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이 있어 우리 조국의 힘이 막강하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끝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하여 해외동포들로 가득찬 전망대의 응접실은 한동안 뜨거운 열풍에 휩싸인듯싶었다.

이윽고 갑문전망대에서 내려온 우리는 서해갑문 유래비앞에 섰다. 유래비에 새겨진 시의 구절구절을 읽어가던 그 로인은 어떤 대목에 이르러서는 곱씹어 외우기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더니 비문을 또박또박 적어나갔다.

...

아! 세기에 빛나라
우리 설계, 우리 기술, 우리 힘
우리 식의 거창한 창조물
팔십년대의 대기념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구상할수 있고
위대한 인민만이 건설할수 있는
세계일등급의 서해갑문이어

주체조선의 위력으로 높이 솟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전하라!

이날 해외동포들의 서해갑문 참관시간은 예상으로 늦어졌다. 사람마다 받아안은 충격과 흥분이 컸으며 알고싶고 듣고싶은 사연이 많았기때문이었다. 해저문 갑문언제우에서 떠나는 그들을 바래주고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위대한 지도사상이 없었던탓에 해방전에 나라잃고 고향 떠나 풍겨난 밤새처럼 세계만방에 흩어졌던 저들, 미제와 괴뢰도당의 모진 학정아래 《이민》의 설움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막돌처럼 버려졌던 저들.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자 것처럼 조선 민족된 영예와 자랑으로 가슴들먹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은 조국의 참모습에서 자신들의 참된 삶의 요람을 찾았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기때문인것이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제한된 범위안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일면을 보면서도 해외동포들이 받아안은 감동이 그렇듯 뜨겁거늘 만약 그들이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락원으로 꽃핀 조국강산에 우람히 일떠선 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거기에 깃든 불멸의 사연들을 일일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들 그 충동과 감격과 긍지는 어떠했으랴.

나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된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이 만복을 누리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온 누리에 웨쳐 자랑하고싶은 충동이 끓어올랐다...

그때로부터 날과 달이 흘러 해가 바뀌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가끔 서해갑문에서 현실체험을 하던 나날에 가슴을 달구었던 그 충동과 흥분을 되살려보며 마음을 다잡군한다.

숲속에서 숲을 모르듯이, 복속에서 복을 모르듯이 차려진 영광과 자랑에 익숙되면 은연중 자신이 받아안은 행복과 긍지의 가치를 망각할수 있기때문이다. 정작 공기 없이는 순간도 살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자기 주위에 공기가 짝 차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것처럼.

나는 확신한다.

너도 나도, 아니 천만심장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늘쌍 피부로 느끼고 자각하면서 살며 일할 때 조국은 나날이 젊어지고 부강해지면 그 존엄은 누리에 더욱 빛나리라는 것을!

사랑과 행복의 끝은 어디에

김시권

(전호에서 계속)

(4) 영광의 자리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처럼 행복한것은 없다고 한다.

하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것은 스스로 되는것도 아니며 바래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이는 오직 위대한 믿음과 사랑속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다.

1965년 9월 1일.

이날 나의 안해는 처음으로 직접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나서게 되었다.

큰대회에 대표로 불러주신것만도 고마운데 위대한 수령님을 접견하는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다니, 안해는 너무나 뜨거움에 젖어와 응접실의 화려한 문앞에 문득 멈추었다.

지난날 어려서부터 험한 돌산에서 화전땅에 목숨을 걸고 천대받던 녀자였다. 학교에 가고싶어 강아지 5마리를 판 돈을 가지고 가도 학비가 모자란다고 일본놈 교장이 쌍욕을 퍼부으며 내쫓았다.

그 교장실의 밤빛을 띤 문이 무섭고 저주럽던 생각, 그러나 오늘은 자기와 같이 천대받고 짓눌려온 녀자를 일찍 19살에 조선로동당원으로 받아주시고 정무원으로까지 키워주시여 영광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시니, 그 은정을 작은 가슴에 안기엔 너무나 벅차서 뛸뛸 심장을 도저히 진정시킬수 없었다.

안해는 경건한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문 고리를 쥐고 조심히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다리신듯 몹시 반가와하시며 마중나오시여 안해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안해의 얼굴을 정겨운 눈길로 굽어보시며 이름을 물으시었다.

《권순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름을 들으시며 4년전에 영예군인 김시권과 결혼한 잔치상을 보내주신 바로 그 당사자임을 기쁘게 회고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해의 다소곳이 숙인 모습을 대견히 굽어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수령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던 몇명의 녀성대표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길듯 달려왔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신후 우리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자 하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그리고 대회의 주석단에 안해를 앉혀주시었다.

안해는 친히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것만도 고마운데 자기를 영예군인을 시중들기에 수고가 많다고 몸소 만나주시고 주석단에까지 앉혀주시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후 1968년 3월에 있는 전국 렬사가족 및 영예군인가족대회를 비롯해서 련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국가적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다섯번이나 기념촬영을 하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높은 국가수훈을 여러차례 받았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받아안은 사랑을 촬영한 력사적화폭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기록영화 《위대한 어버이품》(1985년)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영화들에 나오는것을 볼 때마다 나의 안해는 건잡을수 없는 행복감에 온몸이 달아오르군한다.

안해는 귀밑머리가 희여져갈수록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여러번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오래동안 놓지 못하시는 그 손길은 자기가 영예군인인 남편의 시중을 들며 열가지 백가지 곳은 일에 물기가 마를새없던 그 수고를 헤아리시는 어버이의 은정깊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은 병상에 누워있는 내 몸에, 심장에도 뜨겁게 굽이쳐 흘러들어왔다.

1962년 7월 23일.

새벽 안개가 고요히 피여오르는 이른 새벽 4시에 저의 집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을 깬 나와 안해는 이 새벽에 누가 웬일로 찾아왔을가싶어 의아한 마음안고 새벽 손님을 맞이했다.

방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였다. 그는 흥분된 기쁨의 얼굴빛을 감추지 못했다.

《김시권동무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동무는 조선작가동맹의 정맹원이 되였습니다.》 하면서 이어 체가 후보맹원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맹원이 되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였다.

그 순간에 나는 인차 그 일군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는 나를 보고 그 일군이 다시 차근차근 사연을 알려줄 때에야 이것이 현실이며 정말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때까지만해도 30 여권의 시작품밖에 발표하지 못한 햇내기 시인을 정맹원으로 받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랑은 오직 영예군인들의 장래문제를 심려하시며 잠을 못이루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만이 베풀수 있는 력사에 처음되는 위대한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사랑의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의 창작의 붓이 더 힘차게 달리도록 이끌어주시었으며 그 날에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주시었다.

1973년 2월 18일,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의 한일 군과 마주앉아 계시었다.

나를 후보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제의가 적혀있는 문건을 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그 문건을 놓으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영예군인 김시권동무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오늘도 병사시절의 그 의지로 창작하는 훌륭한 동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말씀인가.

총을 쥐고 전선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도 일찌기 공훈도 없이 쓰러진 애젊은 전사였고 그 후 병상에 누워서 붓을 쥐고 모대기고있을뿐 시 한편 제대로 못쓰고있는 너무나 공로없는 평범한 시인이었다.

당대렬에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한 일이 없었다. 병상에서 당원의 활동도, 회의에도 갈수 없는 처지에서 내가 아무리 당원이 되고싶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입당의 불같은 념원을 안고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입밖에 내 소원을 비쳐본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 한생동안 가슴속에 감춘 마음속의 그늘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나와 같이 중한 불구의 몸에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것이였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찬 나의 방에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몸을 둘러싸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비좁도록 무릎을 맞대고 경사로운 행사로 입당심사가 진행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영예군인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록 몸은 병상에 의지하고있지만 조국땅에서 거창하게 벌어지는 사회주의대전설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까지 헤아리시어 나와 안해를 인민경제의 주요전선인 안주탄광연합기업소 《차광수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으로

로 세워주시었다.

그이의 그 믿음속에 오늘 나와 안해는 《차광수청년돌격대》의 대원들과 한자리에 있으며 그 명단에는 김시권, 권순희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얼마전 실화이야기 《내 삶의 소원》을 무대에 올렸을 때 청년돌격대 대장동무는 자기의 대원이 출연했다고 기뻐서 꽃다발을 가지고 무대에까지 찾아와 나와 안해의 손을 잡고 농지를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세워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하여 나는 대전설이 벌어지는 조국땅우에 나서게 되였다.

하지만 내 소원중에서도 가장 큰소원은 지난날 너무나 일찍 부상으로 하여 병사대오에서 떠난 그 그리운 나의 중대, 나의 련대, 조선인민군대오에 서고싶은것이다.

내가 붓을 쥐게 된것도 시인이 되려는것이기에 앞서 그 붓을 총창처럼 쥐고 병사대오에 다시 서고싶어서였다.

이 가슴속의 깊은 열망을 헤아려주신분도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내가 《미제에게 죽음을 주라!》라는 시를 썼을 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보아주시고 《로동신문》과 중앙방송에 내도록 하여주시면서 걸음걸음 병사대오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을 안고 나와 안해가 여러 구분대를 찾아가면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반가와 달려오며 친근하게 병사시인이라고 불러준다.

병사 시인, 나에게 있어 이 말처럼 귀중한 칭호는 없다.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없었던들 이처럼 보람찬 병사의 영예를 지닐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실화이야기 《내 삶의 소원》에 담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그 실화이야기 첫 장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의 옛 전우인 장령이 나의 60돐 생일날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소대장동지!

어제날의 분대장이였던 제가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롱조로

《아 이러지 말게, 장령이 나한테 경례하다니.》

장령은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을...》 한다.

나는 자랑넘친 어조로 말한다.

《나야 무기까지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명예대원이 아닌가. 그러니 대원인 내가 장령한테 경례해야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매우 만족해하시었다고 한다.

그이의 기쁨은 제가 영원히 어엿한 병사의 모습을 갖추고있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도 나와 안해는 푸른숲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은 우리 구분대 병영을 찾아갈 때마다 《전사 김시권과 전사 권순희 방금 도착했습니다.》 라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그럴 때면 포화무개치던 고지를 찾아 내가 구분대지휘관에게 거수경례하며 보고하던 그 젊은 병사로 되돌아간 환희를 가슴뿌듯이 느낀다.

우리의 구분대병사들은 말한다. 《안해는 교대없는 간호원》이라고!

《병사시인 김시권

교대없는 간호원 권순희》

이렇게 정답게 부르면서 우리 부부를 자기의 명예대원으로 등록한 구분대에서는 아침마다 호명을 한다.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나의 구분대들과 여러 군단과 사단들을 찾아 자주 같이 생활한다.

군복입은 병사와 같이 나와 안해는 때로는 병실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새벽에 기상나팔소리에 깨어나 구분대와 함께 건설전투장에 나간다.

서해감문건설때에는 철배에 앉아 파도를 넘으며 갑실공사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지난 소대장시절처럼 시랑송을 돌격명령처럼 내리기도 하고 평양-개성 고속도로도로 건설장, 광복거리 건설장, 서해간석지건설전투장,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도로 건설장, 천리물길 공사장, 통일거리건설 전투장, 조국방선의 초소에도 찾아가 전투원으로서 삽을 쥐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총을 쥐고 병사들을 고무하는 선동도 하면서, 때로는 야외에서 야전밥통을 들고 함께 밥을 먹으며 때로는 우등불을 피우고 오락회를 하는 병사들과 어깨 나란히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내가 걸어다닌다 한들 이보다 더 보람찬 전사의 영예를 빚낼수 있랴.

때문에 나는 안해와 함께 인민군병사들속에 있을 때면 참상에 있는 이 몸을 일떠세워 영광의 인민군대오에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에 가슴이 뜨겁게 젖어온다. 끝없이, 끝없이...

(5) 사랑의 높이

1988년 8월 26일.

이날은 내가 꿈에도 상상할수 없던 국가의 최고상인 영예의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날이다. 이날 병상에 누워있는 나의 집에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왔다.

조선문학창작사의 일군들과 작가들, 신문사의 기자들,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중앙텔레비죤연출가와 촬영가들까지 오고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여 나를 둘러싸고 기쁨과 흥분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혼자 조용히 병상에 누워있던 나의 긴 생애에서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붐비며 설레이는 분위기로 방안을 가득채운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윽고 자리가 정돈되고 조용해지자 조선문학창작사의 한 일군이 정중히 일어서서 감격넘친 목소리로 개회사를 하였다.

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더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직접 배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로 김시권동무에게 국가의 최고상인 영예의 《**김일성상**》을 수여하는 경사스러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정치적인임이 담겨져있는 영예의 《**김일성상**》을 김시권동무에게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랑독하겠습니다.》

이 시각 나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 참고참아오던 걱정과 파도를 이기지 못해 뜨거운 눈물로 랑불을 적시며 그만 오열을 터뜨리었다.

내가 무엇이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토록 큰 영광을 안겨주신단 말인가.

영예군인으로 병상에 누워 운신 못하는 내가 창작을 하였다면 얼마나 하였으며 사회주의대전투장의 전투원이 되여, 조선인민군의 명예병사가 되여 일을 하였다면 얼마나 하였겠는가?

이 영예의 《**김일성상**》은 나라에 크게 이바지한 명성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의 최고상으로 수여하는것인데 나와 같이 평범한 이름없는 영예군인시인이 받아안기엔 너무나 과분한 영예이기에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각별한 총애를 받는 육친적은정에 어린애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어버이를 부르며 안기듯 자애로운 존함을 목이 메여 불렀다.

수여식이 끝난후 당중앙위원회의 일군이 축하한다고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고 모든 수여식참가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며 활영기들의 렌즈가 나의 모습에 집중되고 기자들의 붓이 달릴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영예를 다 안겨주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사는 영광과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었다.

그이의 위대한 사랑은 나의 안해에게도 뜨겁게 안겨왔다.

1988년 7월 14일.

이날 아침 조선문학창작사의 한 일군이 급히 나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의 몸을 시중들던 안해의 이름을 부르며 당중앙위원회에서 권순희동무를

부르니 어서 갈차비를 서둘라고 하였다.

안해는 너무 뜻밖의 일이고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의아한 눈길로 그 일군의 얼굴을 쳐다만 보니, 그 일군은 기쁨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안해가 떠난 후 나는 혼자서 한초한초를 한시간 맞잡이로 기다렸다.

정오가 퍼그나 지났는데 문밖에서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리더니 계단을 밟으며 안해가 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방안에까지 울려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안해의 얼굴빛은 환희의 빛을 감추지 못했고 바빠 내 침대걸로 달려오듯 하면서 《여보!...》 하고 감격에 벅차올라 미쳐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윽고 안해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문에서 안내하여주는 사람을 따라서 당중앙위원회의 어느 큰 방에 들어서니 한 일군이 반갑게 맞아들이었다고 한다.

그 방에는 여러 일군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 일군이 정중히 웃기를 여미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고 한다.

《저는 이제부터 위임에 의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직접 권순희동무에게 주시는 신임과 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권순희동무가 우리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여 27년 동안이나 영예군인 김시권동무의 중상당한 몸을 시중들면서 그의 창작사업을 돌봐주고 시권동무와 함께 사회주의 대건설장의 전투원으로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명예탄부), 조선인민군의 명예병사 그리고 서해갑문, 광복거리, 서해간석지,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 등 건설해 크게 공헌한 권순희동무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권순희동무의 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산주의적소행을 전국에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안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전달하는 말이 끝나고 축하해주는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앞에서 어떻게 충성의 맹세를 다졌는지, 어떻게 당중앙청사를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보, 글썄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있길래...》

제가 녀성의 몸으로 당신을 돌보아드리는 일은 웅당하고 그 일조차 변변히 못하여 미안한데 글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런 과분한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시었으니, ...정말 저처럼 세상에 행복한 녀성이 어디에 있을가요?》

감동 어린 말을 들으며 나는 끝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슴을 들먹이였으며 안해와 함께 일찍부터 받아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배려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별

써 1950년대말부터 나와 안해를 중앙급의 신문들과 잡지들, 방송과 텔레비존, 화보와 기록영화들에 내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로동신문》에 널 기사를 처음부터 마지막 글썄까지 다 읽어주시고 친히 붉은 연필로 둥근 동그라미를 두점으로 표시하여 제목까지 선정하시고 크게 사진까지 내도록 배려하여주시었다. 그리하여 《로동신문》 1984년 10월 15일부에는 웅근 한면 가득히 《영광의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자!》라는 제목으로 나와 안해를 소개한 기사가 크게 실리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력사에까지 저를 영원히 기록하고싶으시여 1982년초에는 기록영화 《향도의 빛발따라》에도 내세워주시고 1988년 봄에는 텔레비존영화 《참된 삶을 두고》, 1990년 3월 20일에는 《영원한 병사의 길》을 비롯하여 저와 안해의 생활을 담아 내보내도록 하여주시고 1984년 조선화보 《해빛안고 또다시 대오에서》도, 1990년 조선화보에도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내도록 해주신것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들에 소개선전하도록 해주신 사랑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만 더 말할것은 1989년 2월 16일에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올린 기사 《시인은 오늘도 말한다》를 보시고 친히 잡지 《대학생》과 《청년생활》에 발표하도록 하여주시고 실효투쟁을 청년들속에서 지상토론으로 벌릴데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었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와 안해에게 안겨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는 력사에 일찌기 없는 위대한 사랑인것이다.

지금 문화예술부사적관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당원증을 받아안고있는 나의 모습이 확대사진으로 벽면에 붙어있다. 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우리 당 력사에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빛내는 아들로 값 높게 살게 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는것이다.

(6) 꽃피주신 행복

산과 들의 꽃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피어나듯 사람들의 삶의 행복도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을 받고 꽃피는것이다.

1988년 6월 22일이였다.

이날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조선문학창작사의 책임일군과 함께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였다.

그 일군은 침대걸으로 오자마자 나의 두손을 모두 어쥐며 말했다.

《기뻐하십시오. 시권동무!

동무가 안해와 함께 쓴 편지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시었습니다.》라고 하며 흥분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와 안해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것을 두고 여러번이나 감사를 보내주시고 분에 넘친 치하를 해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고마움에 감격되어 올린 감사의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를 당원으로, 시인으로, 조선인민군의 명예병사로, 사회주의대전설장의 돌격대원으로 내세워주신 그 고마움을 함께 아뢰이면서 충성의 불같은 맹세를 삼가 담았던것이다.

그러니 그 편지는 일곱장이나 되게 많아졌다. 더욱 죄송한것은 누워서 제가 수수한 백지우에 잉크로 쓴 서투른 글씨체의 편지가 그대로 그이의 손에 직접 닿은것이다.

저의 자필을 그대로 보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예군인 시인과 그 안해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있다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김시권동무가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굴의 의지로 일하고있는것을 높이 평가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와 안해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삶의 기쁨과 행복은 없다.

그러함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몸에 장수힘을 주시기 위해 산삼과 룡용을 비롯한 보약들을 여러차례 보내주시였다.

이 몸이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것이 심려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 해당부문의 일군들을 만나시면 친히 저의 건강을 따듯이 문의하여 주신다.

그리고 1987년 2월 13일에는 이 영예군인 한자의 허약해진 몸을 심려하시여 평양의학대학병원의 강력한 의료집단을 무어 보내주셨을뿐아니라 식생활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런 은정깊고 세심한 배려에 떠받들려 나는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도, 불편도 없이 건강하여 창작에 전념하고있다. 지난날 어머니와 친척들은 내가 죽는줄로만 알고 고향땅에 묻으려고 인민군야전병원에서 데려다 집으로 옮겼었다.

마을젊은이들은 내가 젊은나이에 죽는것이 가슴이 아파 문병을 왔다가 갈 때는 문밖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어 살았는가?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이 생의 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기적인가? 천명인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나의 숨결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넋과 심장이 되였다. 하여 나는 은혜로운 품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안고 새로이 태어난 전사가 되었던것이다.

참말로 그러하다.

오늘 나는 건강에 넘쳐 예순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나를 젊어보인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창창한 희망에 넘쳐 가슴 부풀게 포부를 안고 웃으며 행복하게 산다.

그 어데를 갈 때면 사랑의 승용차가 마당에 와있어 우리 부부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느듯한 모습으로 문밖에서 나서는것이다.

나는 1991년 1월 1일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하련다.

이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신년축하국가연회에 참석했다. 우리 부부는 가지런히 연회탁앞에 앉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불러주신 신년축하연회장에서 당과 정부의 일군들이 나와 안해에게 축배를 들라고 권할 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늘보다 높은 사랑에 목이 메어 들수가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리는 《만수축원의 축배》라는 시를 목이 메여 낭송했다.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세상에 있을것인가?

나는 연회장에 피어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영예군인들과 안해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만났던 한 외국기자의 말을 상기했다.

그때 그 외국기자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작가라는 사회적직분을 지니고 행복하게 시인으로 살고있으며 조선로동당원으로 혁명하며 살고있습니다. 사회주의대전설장의 명예돌격대원이 된 궁지가 있고 조선인민군의 명예병사가 된 영예로 가슴이 부풀뿐아니라 나에게는 가정도 있고 웃음도 있고 랑만도 있고 꿈도 있고 인간이 갖출수 있는 모든것을 다 갖추고있으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감격에 넘쳐 《정말 그렇군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피우고 향기를 한껏 풍기고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부럽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 살고있기때문이라고 감탄을 표시하였다.

나의 안해가 남조선작가 황석영을 만났을 때였다. 황석영작가가 나의 안해에게

《어떻게 그렇게 젊습니까?》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때 안해는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에서 날마다 명절처럼 기쁨에 넘쳐 사니 젊음이 영원히 꽃

피지요.》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황석영작가는 안해의 얼굴만 보아도, 그 맑은 빛과 눈에 피어나는 미소가 다 행복을 말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오래동안 감탄어린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나와 안해가 만일 자본주의사회나 남조선에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이 몸은 시인은 고사하고 약 한첩 써보지 못한채 죽었을것이며 안해는 불구자의 처로써 멸시를 받으며 문전걸식하는 처참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결코 병상에나 누워있는 환자도 불구자도 아니다.

나는 지난날 대학의 창가에서, 달빛 밝은 전호가에서 꿈꾸던 희망보다 더 큰 희망을 더 활짝 꽃피우고있을뿐아니라 상상할수 없는 행복의 세계를 안고 창조와 투쟁의 값높은 세계에서 살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행복만이 우리 부부의 가슴에 안겨오니 과연 그 행복의 끝은 어디까지일것인가?!...

쇠돌산의 꽃

전찬기

철산봉의 운광길

가꾸고 단장하며

하루에 그 몇번

자갈을 펴고 모래를 펴는 처녀들

그렇게도 고운 웃음

버들숲 유보도에 아니 피우고

나서자란 교향도시 멀리 떠나

이 길을 말아나선 처녀들아

무더운 그 한여름

우리의 친애하는 그이

먼지이는 이길로 철산봉 오르셨던

못잊을 그날이 가슴에 얹혀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덧쌓이는 그리움을

이 길에 깔며

더운 땀 흘리는것이나

깨끗한 그 마음 안아보며

대형차 모는 역센 사나이들도

쇠돌을 가득실은 자랑 없이는

들어설줄 모르는 이 길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무거운 쇠돌차를 받들고 선

길이여 길이여

그것은 그대로 너희들 마음인가

꽃이 없는 철산의 길옆에

돌을 끌라 꽃처럼 수놓으며

가슴속 그리움을

말없이 일속에 묻는 처녀들

우리 당에 기쁨드릴

쇠돌이어서

넓게 열린 이 운광길 지켜

청춘을 고여가는 무산처녀들

아, 철산봉의 그 모든 쇠돌무지는

이들의 마음을 거쳐 쌓여지나니

운광길 굽이굽이 빨간 머리수건

아름다워라 그것은 철산봉의 꽃이로구나

한그루 봇나무

김영길

항일의 옛 전적지
대흥단 한끝 증기관총좌지결에
줄기 하얀 한그루 봇나무 서있다
작은 새떼마냥
억만 잎새 고요히 사랑거리며

스쳐지나는 세월의 바람과 눈비에 젖어
천고림은 거무스레해지고
이끼 덮인 바위는 재빛을 잃어도
그 색깔 변치 않고 하얀빛 뿌리는
봇나무

때묻지 않은 그 빛갈속에 어려오는구나
내 나이 두릅을 거슬러 올라도
달지 못할 그 세월
철쭉꽃 붉은 사득판에 남긴
투사의 그 마음

질은 안개속에 유인해온 적들을
매복의 포위속에 몰아넣으신 장군님
멸적의 총성 증오의 불줄기 뿜으실 때
그이의 신변을 위협하며
숲속에 쳐들린 검은 총구앞에
방패되어 막아나선 투사

순결한 그 넋이 뿌리로 내려지고
깨끗한 그 마음이 즙으로 스며올라
투사가 잠든 분묘가에
고이 자라올랐는가
봇나무 봇나무여

이름없는 전사의 그 모습
가슴속 깊은곳에 새기시고
혈전의 길 떠난세월 몇몇해던가
추억이 덧쌓인 락엽을 밟으시며
새 생활 꽃피는 옛 전구에
찾아오신 수령님

마음속에 못잇던 그 모습
불멸의 군상속에 되살려주시고
위훈의 기념비로 빛내여주실 때
좌- 좌-

아지를 휘여 땅에 대이며
걱정에 설레이던 봇나무

너의 그 설레임소리에서 나는 듣노라
주저도 사심도 없이
삶을 바쳐
한순간에 한생을 빛내인
살아 숨쉬는 그 심장의 숨결소리를

하얀 그 빛갈속에서 나는 보노라
세월은 흐르고
생은 끝나도
티없이 깨끗함을 잃지 않고 내비치는
그 충성스런 마음의 빛을

오오, 봇나무 봇나무여
참된 투사의 고결한 모습이어
락엽은 쌓이고 눈비는 내리여도
승고한 그 정신은 덮지 못하리라
마음의 그 빛은 흐리우지 못하리라

여름

장동일

1

《갱생》 88 호는 성봉읍을 떠났다.

승용차에는 이 차의 주인인 종합농장기사장 홍영배와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남근식이 타고있었다.

중심도로의 좌우편에는 현대식다층살림집들이 줄지어 늘어서있었다. 아침해빛에 활짝 열어놓은 창문들이 번쩍이었다. 유치원 원장인듯한 몸집이 뚱뚱한 중년부인이 울타리에 부각된 흰토끼의 빨간 눈알에 정성껏 도색을 하는 모양이 천천히 지나가고 도로가 끝나는 체육관입구로는 푸른 색깔의 체육복들을 그르히 펼쳐입은 군체육선수들이 2 렬중대로 달려들어가고있었다.

(군소재지치고 이만큼 꾸러놓은곳도 아마 드물걸...)

남근식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따라 다각적경리 형태의 종합농장으로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고있는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하기에 그는 오래동안 고향을 떠나있었지만 태가 묻히고 청소년시절이 흘러간 성봉군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고등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굴포리사로청위원장을 하던 혈기왕성한 나날들, 30 대에 너무나도 때이르게 분장장이라는 직책을 걸머지고 힘겨웁게 일하던 나날도 잊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인상깊은 나날들은 시작될 때처럼 갑자기 끝났다. 그는 분장장을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상급당의 소환을 받아 도공산대학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그는 공산대학을 졸업한 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인민경제대학을 거쳐 정무원사무국에서 사업하다가 두달전에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되어왔던것이다.

사업을 인계받고 전개해나가면서 남근식은 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급절이나 늘어난 경지면적과 가축수 그리고 높아진 물고기생산량이며 새로 조업한 지방산업분공장들... 이 모든것들이 남근식에게는 아직 거의 생소한 사업대상이었다. 이번 기회에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결린 문제들이 있으면 풀어주어야 했다.

승용차가 웅상고개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할 때 홍영배기사장이 받은 목을 힘들게 이쪽으로 돌리었다. 《참, 부위원장동지, 어제 장공장에 전할 걸었습니까?》

《걸었됐소.》 하고 그는 누이동생의 얼굴을 눈앞

에 그려보며 심드렁한 어조로 계속했다.

《부비서가 그러는데 그 애는 씨앗을 물을 때부터 가을을 할 때까지 출창 원로기지에 나가 산다는구만. 그 애는 아마 나하구 다른 피줄을 타구난것 같소.》

《원 부위원장동지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허허... 내 생각에는 명순동무가 처녀시절부터 종합농장경영위원회 지도원을 하면서 김국진위원장의 일습씨를 배워서 지금두 그렇게 일을 드세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가... 하긴 기사장동무는 그때 농산과 지도원을 했으니까 우리 동생을 잘 알겠구만.》

《예, 압니다.》

《...》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입을 다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있다가 홍영배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 우리 군에 얼마나 머물러있겠습니까?》

《글쎄...》

남근식은 생각해보았다. 이제 종합농장경영위원회에서 일군들을 만나 군내실정을 료해해볼 때에는 일군들이 분장의 작업반과 분조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는 분담은 되어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 분담이 실천에 옮겨지고있다고 확신할수는 없었다. 그러니 들끓는 현실에 몸을 잠그고 일군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내려온이상 하루나 이틀을 가지고서는 안될것이다.

《이왕 이렇게 내려왔으니 동무들과 함께 한달쯤 일해볼 생각이요.》 남근식이 대답했다.

《오래간만에 오는 고향땅인데 어떻게 쉽게 발길을 떼겠습니까. 더우기 년로한 어머님이 부위원장동지를 아마 쉽게 놓아주지 않을겁니다.》

《좌우간 기사장동무랑 잘 도와주우.》 하고 남근식은 겸허하게 말했다.

2

승용차는 벌써 웅상고개의 두번째굽이를 돌아오고있었다. 다섯굽이를 돌아야 다 오른다는 웅상고개길의 좌측으로는 한여름을 맞아 무성해진 혼성림이 천천히 지나가고있었다. 산등성이에는 소나무, 참나무, 이깔나무들이 우중충하게 서있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골짜기와 기슭에는 가둑나무와 개암나무와 같은 키낮은 잡관목들이 검푸르게 자라고있었다.

우측은 바다였다. 가파로운 벼랑아래로 철길이

지나갔고 그아래로는 푸른 바다의 잔물결이 눈부리
가 시도록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승용차는 성봉항에 정박해있는 대형선박들을 더
멀리 뒤에 남겨두며 고개길을 힘차게 치달아 올라
다.

승용차가 세번째 굽이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웬 로파가 지팽이를 짊어가며 길좌측으로 걸어가
고있었다. 흰 치마저고리에 반백의 머리를 정히 쪽
져올린 그 로파는 배가 훌쭉한 배낭을 지었는데도
몹시 힘들게 걸어가고있었다.

《저 할머니는 제가 농산지도원을 할 때 지방산업
생필공장에서 이름을 떨친 천리마기수였습니다. 가
정부인작업반장이었지요. 그런데 이전 저렇게 늙었
습니다.》

남근식은 홍영배기사장의 어조에서 애석해하는
마음을 헤아린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까운 사람들이 늙고있소… 기사장동무, 저 늙
은이를 어서 차에 태우오.》

《예.》

홍영배의 대답이 떨어지기 바쁘게 운전사는 차를
세웠다.

《아이구 이게 홍기사가 아니요?! 이런 고마울데
라구요!》

로파가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다가 열
려진 뒤문으로 점잖게 앉아있는 풍채 좋은 간부어
른을 얼핏 띄어보자 쳐들었던 한쪽발을 내리우고
주춤거리였다.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동집니다.
어서 타십시오.》

홍영배가 소개를 했다.

그러자 로파는 다시한번 이쪽을 찬찬히 마주보다
가 두눈을 크게 떴다.

《가만- 이게 전에 굴포분장장을 하던 용녀네 만
아들이 아니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를 어떻게 알아보십
니까?》

《알아보지예이쿠, 거기서는 몰라도 내사 알지비.
내사 굴포벌개간때 그 집 어머니 용녀하구 한쌍패
루 일했다우. 그후에두 우린 서루 오가면서 동기간
처럼 가까이 지낸당이. 그때마다 아들자랑입데다.
기차라, 몰라보게 변했구만!… 평양에 올라가서 큰
간부가 뻘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스꾸마?》

남근식은 어머니와 인연이 있는 로파를 알아보지
못한 자책감으로 머리를 수긋하고 앉아있다가 나
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얼마전부터 도에서 일하고있는데 이번에 여
기 일을 도와도줄겸 겸사해서 내려왔습니다.》

《원 고답기두 해라!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겠
나. 체고향이니 어련하겠지만 많이 도와줍소.》

《예… 그런데 어머니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걸어
서 떠났습니까?》

《내사 읍에 사는 둘째딸 해산방조 와서 한주일있

다가 가는 길입데. 원래 아침빠스를 탈려구했습지.
그래서 사위랑 뭇 꾸러가지구들 나왔습대. 하지만
내사 읍에 왔다가 채금실이 묘두 찾아보지않구 어
찌 그냥 돌아서겠나?!… 그래서 백사불구하구 백학
산중턱에 올라갔네펬.》

로파가 여기서 말을 끊자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
이 없었다.

승용차의 차안에는 한동안 고르로운 엔진소리만
이 들리였다.

《난 채금실이 생각하면 그 남편되는 김국진위원
장을 생각하게 된다우.》 하고 로파는 갑자기 치마
자락을 눈굽에 가져갔다. 그는 물기에 젖은 눈을 습
벅이면서 말을 이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으꾸마. 한개 군을 책
임진 큰 간부인데 자기 처를 생필공장 로동자로 일
하게 하다니… 홍기사두 아니, 홍영배기사장두 잘
알지만 제 남편 때식 한끼 따끈하게 끓여 대접하지
못하고 늘 탈탈거리며 뛰어다니던 그 몸매 자그마
한 녀자한테서 간부녀편이라는 티를 어디 조금이나
찾아볼수 있었음메? 그래두 김국진위원장은 일단
종합농장이 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집에서 놀거나
험한 직업을 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 처를 다른 사람과 꼭 같이 로력일에 참가하도록
했다우. 그리고 자기는 새벽마다 읍안의 지방산업
공장들과 포전들을 돌아보고 들어와서 아침밥을 요
만금씩(로파는 자기의 조꼬만 주먹을 쳐들어 보였
다.) 잡숫구 그길로 굴포벌개간공사장에 나가 출창
살았수다. 그러니 집안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
래두 채금실이 그 녀자는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
서 우리와 함께 저 백학산으루 바구니 걸을 싸리를
베러 올라갔수다. 그러던 어느날 더 좋은 싸리를
베겠다고 가파로운 산비탈에 붙었다가 굴러서 허리
를 상했수다… 지금두 집집들에는 그때 채금실이랑
베여온 싸리로 걸은 바구니가 걸려있습디다… 채
금실이는 결국 그때 다친 허리병으루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수다. 죽지 말아야 할 녀자가 죽었지…
그러니 내가 읍에 왔다가 그 녀자가 누워있는 산엘
어찌 안가볼수가 있겠소.》

로파는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였다.

(김국진위원장의 아주머니가, 그 녀인이 벌써 세
상을 떠나다니…)

남근식은 지원로력자들속에서 자주 보이군하던
소박하고 몸매 자그마한 녀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
게 기억해낼수가 있었다.

남근식은 평양에서 인민경제대학을 다닐 때 어느
교원으로부터 김국진이 이제는 고향인 삼석구역
어디선가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 소문을 얻어들은
기억이 났다.

이때 갑자기 차가 들추는바람에 왼쪽 차창결에
세워놓았던 지팽이가 자빠졌다.

남근식의 사색은 중단되였다.

로파는 얼른 자빠진 지팽이를 집어들어 세우며

감상적인 어조로 말했다.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니깐 그 로친네가 누워있는 묘지아근에 도라지꽃이 많이도 뿌리를 내렸습네. 꽃두 어찌나 고운지...》

모두들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차안에는 침묵이 계속되었다.

승용차는 벌써 웅상고개의 마지막굽이를 틀아오르고있었다. 마치도 숨차하는 인간의 숨결소리처럼 승용차의 엔진소리도 높아졌다.

왼쪽 산기슭 멀리에 아담한 마을이 나타났다.

뒤산은 사과밭이고 마을을 지나간 행길 좌우로 작황이 좋은 강냉이밭이 펼쳐져있었으며 바다쪽을 바라보니 개항의 력사가 오래지 않은 웅상항이 보였다. 항에는 5천톤급쯤 돼보이는 화물선 3척이 정박하고있었는데 부두의 문형기중기들이 화물선에 원목을 싣고있었다.

《벌써 웅상리에 다 왔구만! 집들을 산기슭에 옮기니 보기두 좋구만!》

남근식이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했다.

《예, 부위원장동지가 도공산대학으로 올라간 이듬해에 온 군이 달라붙어 길옆의 집들을 옮기고 많은 경지면적을 얻어냈습니다.》

홍영배가 불깃불깃한 얼굴을 이쪽에 돌리고 궁지에 넘쳐 대답했다.

《수고들했소! 가만 차를 좀 천천히 모우. 음- 정말 큰일을 해놓았구만!》

남근식은 차창에 얼굴을 더 바투 가져다 대고 줄지어 층계처럼 보이는 문화주택들을 바라보았다. 하얀 회칠을 한 집집들에는 하나같이 널판자로 울타리를 하였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 연록색일사귀의 줄당콩넝쿨이 뻗어오르고있었다. 마을뒤경사가 급한 산등성이에 조성해놓은 사과밭에는 꽃이 어찌나 많이 폈는지 온 산등성이 하얗게 보였다.

(역시 여름은 좋은 계절이다. 인간에게 희망을 주거든, 희망을!...)》

남근식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부풀어오르는것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중-구만! 꽃이 잘 폈소.》

《예, 정말 울여름의 작황은 류달리 좋습니다. 비바람피해만 없으면 사과는 먹어놓은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바람피해를 막고 알찬 열매가 맺도록 노력해야지! 좋은 씨앗을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가꾸어 알차게 열매맺게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오.》

남근식은 지금 만발한 사과꽃이 붉은 열매로 주렁지게 할 과업이 마치도 자기에게 있기라도 한듯 확신성있게 말했다.

3

로파를 내려놓고나서 승용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7월의 해빛아래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검푸른 강냉이일사귀들이 미풍에 설레이고있었다. 강냉이밭 한복판에서 빨간 색깔의 《천리마》호 트랙포르 3대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서 흰연기를 몽글몽글 피워올리며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고있었다. 강냉이가 어찌나 잘되었는지 트랙포르 뒤바퀴가 보일가 말 못했다.

《저 트랙포르가 지금 무얼하고있소?》

남근식이 물었다.

《후치질을 하고있습니다.》

《음- 저만하면 기계화수준이 괜찮소.》

남근식은 한쪽의 수채화같은 강냉이밭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때 갑자기 승용차가 급정거를 했다. 때를 같이 하여 운전사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상반신을 밖으로 쏙 내밀었다.

《정기모아바이!》

《어-! 허명길이 어디 가나?》

《굴포에 가요. 아바인 어디 가는 길이요?》

《홍의토지건설대 보수반에 가는 길이야.》

《그럼 빨리 와서 탑소.》

허명길이 내밀었던 상반신을 차안으로 들여오자 홍영배가 나직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운전사동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소. 동문 언제 보아야...》

그러나 이때 남근식이 그의 말을 일축했다.

《기사장동무, 뭘 그러우? 자리가 비었는데 어서 태우오.》

정기모가 타자 승용차는 떠났다. 그에게서는 땀냄새와 디젤유냄새가 풍기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얼른 닦고나서 가지고 오른 도면두루말이를 갓난애기처럼 안고 너자손님처럼 부자연스럽게 앉아있었다.

《동무, 뭘 웅색해서 그러우? 편안히 앉소. 나두 성봉사람이요.》

《예- 그렇습니까!》

정기모는 그제야 엉치를 약간 들었다놓으며 의사 등받이에 구부정한 잔등을 기대었다.

《정동무, 인사드리우.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동지요... 이 동문 우리 종합농장 농기계 작업소 설계실장인데 많은 기술혁신을 하였구 작년에는 국가발명권까지 받았습시다.》 하고 홍영배가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주인답게 소개를 했다.

《아- 그렇소!》

남근식이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정기모가 안고있는 도면에 눈길을 주며 물었다.

《그건 무슨 도면이요?》

그러자 정기모는 도면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건 〈천리마〉호 트랙포르에 살초제분무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설계도안입니다.》

《그것때문에 여기에 왔었소?》

이번에는 흥영배기사장이 끼여들었다.

《예, 저의 설계에 이미 파악이 있는 트랙트르운전수와 토론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동무 참 좋은 일을 하는구만! 이 더운 여름철에 수고가 많소!》

남근식은 진심으로 감동되어 찬사를 거듭했다.

《그래 동무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소?》

《예?!...》

정기모는 계면쩍어하면서 붉어진 얼굴을 쳐들고 이쪽을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순간 남근식은 섬광처럼 얼핏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었다.

(뽀족한 턱에 작은 눈...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보았던가?... 정기모, 정기모... 아- 그렇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그것은 남근식이 분장장으로 임명받는지 얼마안된 때였다. 굴포분장에 배속된 《풍년》호 트랙트르조수로 한 중년사나이가 배치되어왔다. 이름은 정기모, 소상인의 아들도 해방전 일본에 건너가 무슨 대학엔가 다니다가 중도에 돌아온 사람인데 전후 부포오리목장에서 회계일을 보다가 파오를 범하고 트랙트르조수로 오게 되었다. 정기모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철직되어온 사람》이 일하러 간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는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하건말건 고개를 수그리고 발치앞만 내려다보며 일터로 나갔고 일터에서 돌아왔다.

그때 남근식은 그저 자기네 분장에 그런 사람이 트랙트르조수로 배속되어 왔거니 알고만 있었고 그마저 작업조직은 운전수하고만 했기때문에 차차 잊어버리고말았다.

《동무, 기술혁신을 언제부터 시작했소?》

남근식은 어째서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정기모는 주먹을 입가에 가져다대고 공연히 헛기침을 두세번 한다음 입을 열었다.

《사실 그걸 말하자면 우리 종합농장의 기계화가 어떻게 첫발자국을 떼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음- 그럼 그걸 어디 이야기해보우.》

남근식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내가 굴포분장에 한때 배속되어있는 《풍년》호 트랙트르운전수를 배운지 1년이 되나마나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날 김국진위원장이 내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내옆에 앉아서 이소리 저소리하다가 나를 보고 군농기계사업소에 가서 기술혁신을 해보지 않겠는가고 권고하는것이었습니다. 나는 단마디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외국어도 알고있으며 참고서적을 보고 부포오리목장 회계원을 할 때 상사우리에 의한 오리사양법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고 반문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소도 한번 빠졌

던 웅덩이엔 다시 안빠진다는데 기술혁신을 하다가 다시 파오를 범할가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트랙트르를 타구 10 년이고 20 년이고 열심히 일해서 《철직자》의 딱지를 벗어던지겠소. 그러느라 나도 로동계급이 되고 당원이 된다면 자식들 앞에서 애비구실을 할수 있겠지요. 라고 했지요. 그러자 김국진위원장의 갱끗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되면서 삼각형 비슷하게 변한 두눈동자에서 분노의 빛발이 쏟아져나오는것이였습니다. 두터운 입술을 꼭 다문채 한참 나를 바라보던 그는 쇠소리나는 목소리로 <뭐 트랙트르를 타고 혁신해서 로동계급이 되고 당원이 되겠다구? 자식앞에 부모의 체면을 세우겠다고?... 동무한테서는 아직두 낡은 인테리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소. 동무는 종합농장원의 자격이 없소. 공산주의로 가는 대오에 설 자격이 없소. 겁쟁이같으니...> 하고 말한다음 트랙트르에서 훌쩍 뛰어내려 어디론가 가버리는것이였습니다...

정만 김국진위원장은 <고추> 처럼 매운 사업방법이 몸에 밴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일단 결심하고 옳다고 인정한 문제앞에서는 칼날우에라도 올라서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앞에 접어들었으니... 참 지금도 생각하면...> 하고 갑자기 말을 끊은 정기모는 호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자, 이 담배를 피우오.》

남근식이 《피꿀새》갑을 꺼내어 정기모앞에 내밀었다.

《아니, 전 이게 좋습니다. 독초지요.》

정기모는 어줍게 미소를 지으며 사양했다. 그는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가 들추어서 첫대는 실패하였다.

《여보게, 허명길이, 차를 좀 살살 몰라구. 쟁장 들추기두 한다.》 하고 정기모가 저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저것 보지, 아바인 바루 제 차처럼 말하는군 흥.》

허명길은 후사경에 비친 정기모에게 한쪽 눈을 꿈벅해보이면서 정말 제동기를 살근살근 눌러 차의 진동을 어지간히 막았다.

《이사람 명길이, 랑해하게. 그전에 김국진위원장 차를 늘 타구다니던 버릇이 붙어와서... 내가 그만 실수를 했네.》

《원 아바이두, 나두 룡담으로 말했수다... 정말 말이 났으니 말이지 김국진위원장은 아무리 급한 길을 가다가도 부속을 돌려메고 걸어가는 트랙트르 운전수를 보면 자기는 내리고 그 운전수를 태운다음 토지건설대수리소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대로 하지요. 그리고 차를 돌려세워 따라가보면 뒤에 자기 차가 가는줄도 모르고 굴포벌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채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지요. 경적을 울리고 차를 세웁니다. 김국진위원장이 다시 탄다음에 난 두덜대지요. <젠장, 이젠 빠스지 승용찬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

가 이미 여러번 들은적이 있는 귀에 익은 대답을 하지요. 〈간부라는건 땀흘리며 일하는 인민들과 한식구가 되어야 해, 아니 종이 되어야 해!〉 하고 말입니다.〉

허명길은 시작할 때처럼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다음은 누구도 말이 없었다.

엄지손가락만하게 담배를 말아문 정기모가 불이 훌쩍하게 첫모금을 빨아 후련히 내쉬었다. 매캐하고도 향긋한 냄새가 승용차안에 짙었다.

《여보, 저 고급담배가 왔다 울고 가겠소. 냄새가기가 막힌데... 나두 한대 피워보지요.》

남근식은 우선우선한 표정을 지으며 정기모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사실 함복도 독초가 기본입지. 말은 바른대루.》 하고 허명길이 끼어들었다.

《아바이, 나두 한대 주우.》

《하, 이거 오늘...》

정기모는 어색해하면서도 남근식과 허명길에게 독초를 숨씨있게 말아서 넘겨주었다.

《그래 그다음엔 어떻게 됐소?》

남근식은 다음말이 기다려졌다.

그러자 정기모는 또 한번 독초연기를 내뿜고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녁밥을 먹구 앉아있으려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머리가 번거로워져서 밖으로 나왔지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상현달이 떴습니다. 에라, 이렇게 된바하구 래일 쓸 예비모습이나 갈아맞춰놓자 하구 기계화작업반으로 갔지요. 아 그런데 글썄 거기에 김국진위원장이 기계화작업반장과 이마를 마주대구앉아서 무슨 논쟁을 하구있질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서서 들어보니 명년에 굴포벌개간에 쓸 수로굴착기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중학교두 졸업하지 못한 반대머리 기계화작업반장령감이 제법 도면같은것을 뿌연 전등불아래다 펼쳐놓구서 중심중력이 어떻구 각도가 어떻구하면서 설명을 하구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계화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 반대머리령감한테 기대를 걸고 김국진위원장이 밤을 새울가?... 하고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김국진위원장을 찾아가서 어제밤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빌었지요. 그랬더니 그는 〈용서는 오히려 내가 동무한테 빌어야겠소.〉 하질 않겠습니까. 그는 의아해하는 내 손목을 잡으며 〈자, 나와 함께 저 우암산고개루 가자구.〉 하고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단숨에 5리길을 걸어 우암산고개우에 올라섰습니다. 김국진위원장은 자못 승엄한 표정으로 한식경이나 경건히 서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동무,여기가 바로 1959년 3월 16일 위대한수령님께서 서계시던곳이요. 수령님께서 진펄에 빠진 차를 몸소 미시며 인민들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포오리목장이며 굴포벌을 지나 저 서포항다리우에

서는 이고장의 좌상인 안세민로인을 만나서 친히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 바로 여기까지 오르시었소. 이 언덕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풀판에는 젖소를 방목하고 호수들에는 오리를 기르며 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소. 그러시고는 두만강기슭에 방풍림을 조성하고 백리제방을 쌓는 한편 굴포벌에 배수로로 파고 댕습지를 개간할데 대한 대자연개조구성을 펼쳐주시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군이 제일 먼저 공산주의사회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을 단위로 하는 다각적경리형태의 종합농장을 창설해 주시었소!... 이것은 화로 빛어진 불모의 땅에 복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대대로 험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고장 인민들의 수난의 력사우에 종지부를 찍은 전변이었소!... 정기모동무, 우리가 수령님의 이 위대한 구상을 옳게 받들어나가자면 무엇보다먼저 기계화수단을 써먹을 생각부터 해야 하오. 그러자면 동무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에 서야 하오. 왜놈때 배운 지식이든 해방후에 배운 지식이든 그것이 오늘의 우리 혁명에 이바지되면 좋은거지 거기에 무슨 〈성분〉을 론할게 있소. 정동무가 그 지식으로 기술혁신을 잘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그때에는 당원두 될수 있구 영웅두 될수 있는거요. 자, 정기모동무, 우리 함께 손잡구 일해봅시다!〉

하고 김국진위원장은 내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읍농기계작업소동무들과 함께 수로굴착기, 파종기, 우유압전조기... 별의별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노라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거듭되는 실패와 반복시공으로 국가자금을 낭비하여 법적추궁까지도 받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맥을 놓고 주저앉기도 했으며 이른바 자신의 〈운명〉을 두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국진위원장은 나를 보충하고 손잡아 이끌면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나를 십여년간 이끌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사업에서는 한치의 에누리도 없었지만 인간을 책임지고 사랑하는데서는 불덩어리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미친 정기모는 불이 죽은 담배꽂초를 창밖에 던지고 그대로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에 남근식이 던지시 물었다.

《그래 지금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있소?》

그러자 정기모는 가슴에 안은 설계도면을 내려다보며 자신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저- 〈천리마〉 호 프락토르에 복식분무장치를 도입해볼가 하는데 두고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두고보아야 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하고 남근식은 갑자기 목청을 높였다. 《무조건 해낸다는 신심을 가져야 하오. 그러구 계속 더 합리적인것을 설계하구 창안해야 하오! 지금이 어느때요?! 90년대란 말이요, 90년대!... 무슨 애로가 있으면

나한테 제기하오. 내 힘자라는것 돕겠소.》

《제기할것이 없습시다. 부위원장동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홍영배가 조심스럽게 깨뜨렸다.

《저- 농기계작업소에 〈4. 15 기술혁신돌격대〉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을 더 인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생각같소.》

남근식은 차창에 가져갔던 눈길을 떼면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정기모에게 물었다.

《동무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소?》

《예순을 넘긴지 몇해됩니다.》

《아하, 벌써 그렇게 됐는가? 하기가 그럴테지. 세월이 흘렀으니까…》

남근식은 머리를 천천히 주억거리고나서 웅근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은… (〈그는 김국진위원장은〉 하려다가 그 말은 삼켜버렸다.) 동무들은 참 많은 일을 했소. 귀중한 씨앗을 뿌리었고 좋은 작황을 마련해놓았소. 이 좋은 작황을 허실없이 열매맺게 해야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소. 안그렇소? 기사장동무.》

《부위원장동지 말씀이 옳습시다.》

홍영배가 공감했다.

《그렇소!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계주봉을 이어받은 젊은 사람들로 기술혁신조를 크게 확장합시다. 그리고 새 기술혁신대상들을 다시 확대해봅시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달려있소!…》

승용차의 엔진소리가 높아지고있었다.

웅상벌을 다 지나온 승용차는 벌써 마양고개를 넘고있었다. 고개 아래에는 바다처럼 넓은 동만포호수가 펼쳐져있었다. 드넓은 호수의 왼쪽기슭으로는 구룡평과 홍의역쪽으로 가는 행길이 뻗어있었고 우측기슭으로는 굴포리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해안선을 따라 활등처럼 휘우듬히 뻗어있었다.

승용차가 갈림길어구에 이르렀을 때 남근식이 불쑥 입을 열었다.

《기사장동무, 우리는 여기서 내리고 차를 이 동무를 태워서 홍의토지건설대수리소까지 보냅시다.》

《아니, 아니 전 일없습시다. 기껏해야 한 20 리쯤 걸으면 되겠는데…》

정기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남근식이 정기모의 팔소매를 붙잡아 앉히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일없소. 자 운전사동무, 차를 세우시오.》

승용차가 멈춰섰다.

4

두사람은 말없이 걸어갔다.

굴포리까지는 아직 멀었고 날씨는 더웠다.

그러나 남근식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기운차게 걸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굴포벌이 지척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동만포호수에는 두척의 매생이가 담수어로작업을 하고있었고 기슭의 파란 풀밭에서는 하얀 양떼가 풀을 뜯고있었다. 양무리속에는 빨간 테를 두른 농립모를 쓴 처녀가 서있었다. 그 처녀는 자기네 굴포분장에 승용차를 타고 드문히 내려오는 기사장이 어째서 이 더운 날에 걸으며 그옆에 키가 크고 풍채좋은이는 누구이기에 저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올까? 하는 의문을 까만 눈동자에 가득히 담고 노상 이쪽만 지켜보고있었다.

한참 걸어가던 남근식은 첫 강냉이포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무성한 강냉이포기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서있던 그는 갑자기 밭이랑에 들어섰다. 벌써 개표리가 나오기 시작한 싱싱한 강냉이잎사귀의 뽕뽕한 끝이 어깨우에서 한들거렸다.

《여기다가는 무슨 비료를 주었소? 작황이 대단히 좋구만!》

남근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굴포벌로 말하면 눈에는 욕심이 나고 가꾸자면 손뎁이 풀리는 습지대였다. 그래서 하도야마란놈도 1937 년부터 8 년동안이나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물론 정탐을 목적으로 했지만) 망하고말았다. 하지만 조선의 북부지방과 같이 평지대가 귀한 고장에서는 2,000 정보나 되는 굴포벌이 쉽게 버릴수 없는 땅이었다.

김국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고 굴포벌을 개간할 작전을 준비하는 한편 굴포벌에 혼한 니탄과 부식토를 밭에 집중적으로 시비하여 토양의 성분을 개조해보려고 굴포벌에서 살다싶이하면서 무진 애를 썼다.

지금 남근식은 호리호리한 몸매의 김국진이 칼칼한 표정을 하고 자기앞에 서있는것만 같았다.1

《분장장동무, 왜 니탄과 부식토를 계획대로 확보해놓지 못했소?》

김국진은 첫마디부터 따지고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성미를 잘 아는 남근식이였기에 이러한 경우를 예견하여 자기로서는 있는 힘을 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국진은 만족해하지 않았다.

《위원장동지, 가을걸이가 마감고비인데 니탄에다가만 력량을 집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넘어가지 않고 공중에 서있으면 몰라도.》

남근식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짜증섞인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해가 모자란단 말이지? 그럼 가을걸이는 낮에하고 니탄은 밤에 캡시다!》

이것은 김국진이 아래사람에게 하는 지시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였다. 저녁에 그자신이

해불을 켜들고 곡괭이를 둘러메고 니탄밭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저녁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들은 남근식은 투덜거리며 삽을 찾아들고 김국진의 뒤를 따라 니탄밭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면 백여개의 해불이 따라나오는 것이었다...

《기사장동무, 그래 여기서 무슨 비료를 주었소? 니탄과 부식토요?》 하고 남근식이 밭이랑까지 따라들어온 홍영배를 돌아다보며 곱씹어 물었다.

《니탄과 부식토는 물론이고 오리똥을 섞어서 주었습니다.》

《뭐, 오리똥을? 아니 부포오리목장이 여기서 20리나 되는데 오리똥을 여기까지 날라오면 수지가 맞소?》

《예, 그때 분장장동지가 소환되어 올라간후 김국진위원장이 부포오리목장에서 두개작업반을 떼내여 굴포분장에 배속시켰습니다.》

《아!- 그런 대책을 세웠단 말이지?!...》

남근식은 주그리고 앉아서 두손으로 밭이랑의 흙을 한웅큼 움켜쥐고 일어섰다. 검실검실하고 부드러운 그 한줌의 흙에는 이 굴포벌을 갈기 위해 애쓴 김국진의 고심참담한 노력의 흔적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듯했다.

(이것은 전환이다. 우리 일꾼들이 김국진위원장처럼 머리를 쓰고 앞장에 서서 어깨를 들이민다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

남근식은 행길에 나섰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얼굴의 땀을 닦았다.

지난날의 환영은 사라지고 앞에는 정든 고향길이 끝없이 뻗어있었다. 남근식이 짜개바지를 입고 코물을 훌쩍거리며 뛰어다닐 때 이곳에는 오솔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분장장을 하다가 도공산대학으로 올라갈 때 이 길로는 소달구지가 겨우 다닐 수 있었다.

남근식은 일등도로 못지 않는(비록 석비레를 깔았지만) 고향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강냉이포전이 끝나자 감자밭이 펼쳐졌다. 눈부시게 하얀 감자꽃우로는 범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있었다.

《와아-》

바다바람이 해안가언덕우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흔들며 불어온다. 그 소나무들은 남근식이 떠날때 김국진의 사업수첩에 설계되어있던 방풍림이었다. 그것이 오늘은 모래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무성하여 팽성한 해풍을 막고 굴포벌의 풍만한 작황을 보호하며 설레이고있다.

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렸다.

홍영배가 자기 차의 경적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부위원장동지, 차가 옵니다.》

그러나 남근식은 말이 없이 그냥 발걸음을 옮겨 걸고있었다.

그사이 승용차가 옆에 와서 급정거를 하였다. 차문이 활짝 열렸다.

《부위원장동지,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얼굴에 온통 땀투성이가 된 허명길이가 사죄하듯 말했다.

《수고했소. 운전사동무, 빨리 갔다왔구만!》

운전사한테 이렇게 대답한 남근식은 홍영배쪽으로 돌아섰다.

《기사장동무, 먼저 타고 내려가오. 나는 걸어서 가겠소. 이젠 마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근식은 김국진이 애써 걸구어놓았으며 씨를 뿌려 좋은 작황이 마련된 고향땅을 오래도록 걷고싶었다.

5

남근식은 이깎나무로 만든 고향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가에 들어섰다.

그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고향집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 집은 종합농장이 창설된 이듬해에 이 굴포마을의 그중 높은 언덕에다 지은 첫 농촌문화주택이었다. 그때 새로 엮은 서까래에서는 송진내가 풍기였고 읍전재공장에서 실어다 이은 기와는 잘 익은 감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색깔이 다 닳아서 침침해보이고 집에는 인적이 없었다. 다만 두눈우에 흰점이 박힌 검정암개 한마리가 새끼가 뺨 커다란 배를 마당에 깔고 누워서 긴혀를 빼물고 헐떡이고있었다. 그러다가 머뭇머뭇한 눈으로 낯선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며 두세번 경경 짖었다. 그리고는 더위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앞에 서있는 사람이 자기집주인이라는 것이 느껴졌던지 다시 누워버리고말았다.

개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는 남근식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심은 살구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서른세해를 자란 그 살구나무에는 누렇게 익은 살구가 아지가 휘도록 열려있었다.

《아- 어머니가 정성스레 가꾸었구나!》

남근식은 고향땅의 목가적인 향취가 물밀듯이 가슴에 젖어들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살구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때 누군가 뒤에서 급히 대문을 열어젖히었다.

얼결에 돌아보던 남근식이 부르짖었다.

《어머니!》

《아이구 이사람아!...》

머리에 흰수건을 쓰고 스포링바람에 품이 넓은 바지를 입은 어머니는 손에 들었던 호미를 마당가에 집어던지고 매듭진 손으로 아들의 두팔을 부여잡았다.

《이사람아, 오면 온다구 기별이나 할게지, 기사장이 밭에까지 와서 알려주어 이렇게 급히 달려오는 길이네.》

《어머니, 그 나이에 아직두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구. 부지깽이가 펄펄 뛰는 때에 내 라구 앉아서 놀겠나?》

전년에 진갑을 넘긴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투성이인데다가 흰수건밑에서 훑날리고있는 머리칼은 첫눈에는 수건과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백발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목을 이끌고 방문앞에 이르는 그 짧은 사이에 머느리와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철새없이 곱씹어 물었다.

옷방에는 남근식이 학교다닐 때 늘 마주앉아 공부하던 앉은뱅이 책상과 책장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우에는 몇권의 책이 놓여있었고 그옆에는 배낭이 있었다.

《어머니, 누가 왔습니까?》

《명순이가 와있네. 그애는 저 건너 구룡평뒤산에 있는 자기네 원료기지에 나와 내내 살다싶이 한다네.》

어머니는 문턱을 넘나들면서 방안에 널려있는 잡동사니들을 한쪽 구석에 모여놓으며 대답했다.

《그런걸 난 읊에서 직장에다 전화를 걸었구만요. 늘 이렇게 나와 살면 집이 말이 아니겠는데...》

《그래두 당에서 귀하게 여기는 녀성일꾼인데 매사에 모범이 되야지.》

어머니의 어조에는 아들만 못지 않은 딸자식에 대한 자랑이 함복 배여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남근식은 분명 누이동생의것일 책상우의 책가지들을 뒤적거렸다. 그중에는 소설책도 있고 사업수첩도 있었으며 일기장도 있었다.

남근식은 녀동생 명순이가 중학교시절부터 일기를 쓰는데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서 표지가 낡고 두터운 일기장을 천천히 뒤적이기 시작했다. 명순이의 일기는 왜서인지 중학교 6 학년에서 중단되었다가 종합농장경영위원회 지도원을 할 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남근식은 다시 시작된 명순이의 일기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

1965년 9월 27일

저녁 9시경이다. 종합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다 퇴근하고 나는 경비를 서고있었다. 청사에는 수직실에 불을 때고있는 농산과 지도원동무를 내놓고는 누구도 없어 적막이 깃들었다. 전화도 걸려오는 곳이 없었다. 할일 없이 경비일지를 뒤적이는데 승용차 한대가 정문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김국진위원장동지 차였다. 차에서 위원장동지가 내렸다. 또 어느 분장에 나갔다가 오는지 몹시 지친 기색이다. 아직도 저녁식사전인것 같다. 그러나 힘찬 걸음걸이로 접수실에 들어선 그는 성급한 어조로 물었다.

《명순동무, 오늘 소금을 실어왔소?》

《...》

나는 대답을 못했다. 오늘아침에 김국진위원장은 우리 공업과에 군내 소금을 실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 소금은 김장용남새와 시금치절임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부서에서 토론들이 있었다. 그러나 운수기재가 걸려서 오늘중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그래서 래일 출근하여 다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모두 퇴근해갔던것이다.

《왜 대답이 없소?》

김국진위원장이 엄하게 따지고들었다.

나는 더는 갑자르고있을수 없었다. 솔직하고 명백한것만을 좋아하며 거짓과 위선, 아침과 같은것에는 추호도 용서가 없는 김국진위원장의 칼날같은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였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오늘 토론된 내용을 사실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입을 꼭 다물고 그자리에 굳어진듯 서있던 김국진위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나에게 명령했다.

《이제 곧 공업과동무들을 전원 비상소집해야겠소. 그동안 경비는 대신 내가 서겠소!》

김국진위원장은 벌써 직일책상앞에 마주앉았다.

인민생활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김국진위원장의 엄격한 요구성을 사업을 통하여 여러번 체험한 나는 더 이상 지체할수가 없었다.

나는 곧 정문을 떠나 달려나갔다.

...

그다음은 글자들을 알아볼수가 없었다.

남근식은 대여섯장을 보지 않고 넘겼다. 이번에는 잉크가 아니라 까만색 원주필로 쓴 또렷한 글씨가 나타났다.

1966년 5월 21일(화요일)

한주일중에서 나에게는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다.

김국진위원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종합농장에서 생산되는 경공업제품들과 식료품들을 자기방에 진렬해놓게 하고 이날을 품평회 및 합평회의 날로 정해놓았다. 이 일은 녀성이며 공업과 담당지도원인 내가 응당 말아해야 할 일이였다.

남자가죽구두, 애기신발, 찌리바구니, 물부리, 뜨개옷등속이며 도자기류, 지어 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 그 주간내에 새로 생산된 일용잡화종류들과 식료품들인 새우젓, 오리통줄임, 빠다, 오이와 도마도절임, 이면수와 송어절임 그리고 고추장과 된장, 간장은 매주 오르는 고정식료품이였다. 그리하여 김국진위원장의 그 넓은 랑수책상과 응접탁은 삼시간에 잡화 및 식료품진렬매대로 되고 방안에는 시큼털털한가 하면 향긋한 냄새로 꽉 들어찬다.

김국진위원장은 그 모든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

고 맛을 보아가면서 전번주간의 합평회때 수치보다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고 혹은 어느 품종의 질이 나빠졌는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적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합평회일지에 기록하다. 이제 일지에 기록된 그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는 개선대책을 놓고 심각한 합평회가 있게 된다.

김국진위원장이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을 때 농기계작업소 정기모아저씨가 방에 들어왔다. 이 아저씨는 전직장에서 과오를 범하고 철직되어온것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김국진위원장이 그를 보증하고 농기계작업소의 기술혁신조장으로 임명하였다. 그후 그는 가치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을 하였는데 언제나 무슨 일이 제기되면 오늘처럼 때없이 불쑥 김국진위원장을 찾아들어오곤한다. 나는 정기모아저씨의 그런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해결의 방도를 자기자신에게서 가 아니라 책임일군들에게 의탁하고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김국진위원장은 언제나와 같이 오늘도 그를 뜨겁게 맞아주었다.

《무슨 일이요? 우유건조탑조립이 어떻게 되었소?》 하고 위원장동지는 애기신발을 랑손에 든채 정기모아저씨앞으로 다가섰다.

《위원장동지, 다른 부분은 다 되었는데 회전부분 바깥이 애를 먹입니다. 실은 너무 약하고 말가죽과 소가죽은 너무 썩니다.》

《양가죽은 써봤소?》

《그것두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렇다...》

김국진위원장은 애기신발을 그냥 전체 잠시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일군들에게 말했다.

《오전 품평회는 이만합시다. 지금은 11시 30분이요. 오후 합평회는 3시부터 내 방에서 계속 합시다.》

그리고나서 이번에는 정기모아저씨와 내쪽으로 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그사이 점심시간을 리용해서 우리는 우암젓소목장우유건조탑조립현장에 가봅시다. 가서 함께 방도를 찾읍시다. 남명순동무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에게 먹일 유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겠소. 자 빨리 떠납시다.》

그리하여 정기모아저씨와 나는 김국진위원장의 차에 타고 45분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때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얼굴에 얼마나 간고한 노력의 흔적이 어려있는가를 여기에 다 적을수 없다. 다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것처럼 어깨가 처져있던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김국진위원장이 들어서자 마치도 기다리던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여달리듯이 왁 모여들던 장면이었다. 나는 그때 가슴가득히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김국진위원장은 그들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다. 그다음 실패한 바깥의 잔해들을 일일이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아직껏 내가 들고있던 자기의 가방을 나꿔채듯 가져다가 정기모아저씨한테 보였다.

《정기모동무, 이 가방가죽이 어떻소.》

《이건 악어가죽가방이 아닙니까?》

정기모아저씨가 김국진위원장의 고급사무용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두눈을 깜빡이었다.

《그렇소. 이 악어가죽가방은 내가 작년에 농업대표단으로 어느 한나라에 갔을 때 기념으로 받은거요. 내 생각에는 이걸루 바깥을 하면 될것 같은데 정동무생각에는 어떻소?》

《아-니?! 그런 귀중한 기념품으루야 어떻게...》

정기모아저씨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글쎄 될수 있소- 없소?》

김국진위원장이 따라서며 따져물었다.

《그야 물론 둘도 없는 바깥감이지요. 하지만 그 가방으루야 차마 어떻게...》

《그럼 뵈-소!》 하고 김국진위원장은 그 악어가죽가방에서 급히 서류를 꺼내어 나에게 주고나서 가방안에 두손을 넣더니 랑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노란색갈의 윤이 나고 부드러운 악어가죽가방이 찢- 하고 두조각으로 찢어졌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당한 정기모아저씨가 얼마나 큰소리를 질렀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는가를 하는것을 일기장에다 어떻게 다 적을수 있겠는가?...

그 순간에 나는 우리 종합농장의 어머니들과 후대들이 먼 후날에도 유분이 유치원과 탁아소에 어떻게 공급되게 되었는가를 꼭 이야기해주리라 결심했다.

...

남근식은 여기까지 읽고 머리를 쳐들었다.

두눈을 꼭 감은채 굳어진듯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50평생에서 아직까지는 체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대 일군의 성실하고 강의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가득히 차올라 그것을 건잡지 못한채 공연히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부엌쪽에서는 아까부터 바빠 일손을 돌리고있는 어머니의 숨결인양 가마뚜껑 여닫는 소리와 그릇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설새없이 들려왔다.

《이애가 오늘두 안들어오려나? 재 오래비가 왔는데두 쫓쫓...》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방으로 올라와 옷방문턱을 잡으며 주저앉았다.

《에이구, 이젠 생각과는 다르구만...》

《어머니, 방금 밭에서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남근식은 어머니쪽으로 마주앉으며 다감한 어조로 말했다.

《이사람아, 자네가 큰 간부가 되어 고향에 왔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나? 그래 내 자네앞으로 뭘 좀 준비하는데 여기 마을로인들이랑 분장장이랑 불러오라구. 그리구 기사장이랑 운전사랑 어서 오라구 이르제.》

《원 어머니두 참, 공연한 수고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남근식이 허거프게 웃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정색한 표정으로 상반신을 꼰다.

《이사람아, 간부일수록 밑에사람들한테 마음쓸 줄 알아야 하네.》

《...》

《김국진위원장어른은 굴포벌개간때 우리 집에다 거처를 정하구 일을 했는데 군내일군들을 드문히 이 방에 불러놓구 회의를 했다네. 그런 날이면 꼭 나한테 그 사람들의 점심식사를 맛있게 해달라구 부탁을 했다네.》

《그럼 굴포벌개간전투지휘부가 우리 집이었던말입니까?》

《이렇게면 그렇지. 모두들 참모부라구두 하구 지휘부라구두 했다네. 술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 들었지.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락착을 보면 어김없이 해냈거든. 배수로를 췌는 일, 양수기를 놓는 일... 정말 그분들이 팜인들 얼마나 흘렸구 고생인들 얼마나 했겠나!... 그래서 나는 김국진위원장이랑 지도원들이랑 다 내 집식구들만 갈아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그러면 모두들 얼마나 맛있게 잡숫는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자네가 먹는것만큼 기쁘더라니 허허... 때식을 거의 치를 때가 되면 지금 기사장을 하는 홍영배농산지도원이 날 보고 <어머니, 오늘 식사비를 청산하러 관리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동지가 자기생활비에서 청산하거루 했습니다.> 하고 귀뜸해준다네. 그러면 나는 <아-니, 매번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비를 위원장어른이 부담하면 위원장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나? 농산지도원두 처자를 거느린 사람이겠는데 그런걸 하나 바루잡지 못해 매번 위원장어른한테 부담을 시키나?> 하고 들이댄다네. 하지만 지도원인들 어찌겠나? 김국진위원장은 양을 길러서도 프락트르운전수들한테 잡아먹이구 아무 일을 해두 아래사람들부터 먼저 생각했지. 정말 나는 그렇게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보지 못했네!...》

잠시 침묵이 흐른뒤에 어머니가 어딘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에이구, 나이가 원쑤지. 김국진위원장이 이제 예순나이만 됐어도 그만한 일군이 없는데... 그래두 그나이에 우암젓소목장에서 풀판관리를 하고있으

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머니는 얼른 매듭진 손가락으로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냈다.

《아니 뭐라구요?!...》

남근식은 저도모르게 목청을 높이며 어머니앞으로 다가앉았다.

《김국진위원장이 풀판관리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그 아바이가 지금 평양에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구? 소문?》

이번에는 어머니가 놀랐다. 주름살 많은 얼굴에 노여움이 질게 비졌다.

《이사람아, 그래 자네 그 소문을 믿었나? 그건 자네가 벌써 김국진위원장을 잊었다는것인데 그래서 안되지.》

《...》

고개를 깊이 숙인채 어머니앞에 한동안 앉아있던 남근식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이제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맥을 잃고 서쪽 구룡평위산너머로 차차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락조의 빛발은 드넓은 굴포벌을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멀리서 프락트르의 동음이 들려온다.

《통, 통, 통...》

남근식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도 《당신도 김국진처럼 살수 있는가? 살수 있는가?...》 하고 묻는것만 같이 들리었다.

6

오후에 남근식은 홍영배를 읍으로 돌려보내자마자 우암고개를 단숨에 넘어서 젓소목장에 도착했다. 그가 풀판작업반마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반휴게실 앞마당에서 한 로인이 손녀벌이나 돼보이는 처녀와 무슨 기계를 놓고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처녀-《아바이, 난 이번에는 이 회전식날이 미타해요.》

김국진-《그래 신심이 없나?》

처녀-《그럼 벌써 몇번째예요? 열번째나 실험을 해두 성공하지 못했는데.》

김국진-《열번이 아니라 백번이라도 시험을 해서 풀베기를 기계화해야지.》

처녀-(말없이 한숨만 쉰다.)

김국진-(처녀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이제 목장장동무가 읍농기계작업소에서 새로운 합금강으로 만든 날은 가져올거야. 신심을 가지라구.》

처녀-(김국진을 뻔히 올려다보며) 《아니 그건 언제 물린겁니까?》

김국진-《물린게 아니라 혁명소조원처녀가 기술혁신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있어서야 되겠나. 그래서 초급당비서동무랑 목장장동무랑 토론하고 내가

읍수리기계작업반에 몇번 다녀왔네.》

처녀-(감격어린 어조로) 《아바이두 참!...》

김국진- 《자, 그럼 좀 쉬자구.》 (무릎을 짚고 힘들게 일어난다.)

남근식은 달려가 김국진을 부축여주고싶은 충동을 참고 인내성있게 그를 주시해보았다.

마침 김국진이 이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누군지 짐작이 잘 가지 않는 모양인지 이쪽으로 대어섯발자국 걸어나오며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손님인데... 누구를 찾으시우?》

아직도 변하지 않은 쇠소리나는 김국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근식은 저도 모르게 그를 마주향해 달려나갔다.

《위원장동지! 접니다. 근식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남근식이! 분장장!》

두사람은 서로 팔들을 부여잡고 한동안 놓을줄 몰랐다.

눈썰미있는 혁명소조원처녀가 얼른 휴게실에 달려들어가 의자 두개를 가져다가 은행나무그늘아래에 놓았다.

《내 자네가 군에까지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주니 정말 반갑네!》

김국진이 먼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남근식 이도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25 년만에 만난 김국진의 얼굴을 새삼스러운듯 천천히 여겨 보았다. 머리칼은 거의다 새하얗고 얼굴은 살이 빠져 턱이 더 길어보였다.

《이제는 위원장동지두 많이 늙으셨습니다.》

남근식이 김국진의 얼굴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말했다.

《내가 많이 늙었다?》

《네... 왼쪽다리에 바람이 왔다던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건 또 누구한테서 들었나?》

《예,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원 로친네두... 그 그건 이젠 이 일없-네.》

김국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으나 그 어조는 로쇠에서 오는 동맥경화의 영향으로 떠듬거렸다.

남근식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안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비닐봉지를 꺼내어 김국진의 앞에 내밀었다.

《저- 이걸 받으십시오.》

《이제 뭐가?》

《사향입니다. 어머니가 보내는것입니다.》

《!...》

김국진은 사향봉지를 두손으로 받아들고 그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쳐들며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식이, 보라구! 내가 어떻게 늙을수 있겠나. 나는 자네의 어머니와 같은 여기 사람들과 한식구가 되어서 살고있기때문에 늙지 않네. 아니, 늙을수가 없지!... 내 사실 평양아들네집에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워서 다시 내려왔네. 내가 여기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이제 죽은들 무슨 원이 있겠나!》

순간 남근식은 어머니가 김국진을 두고 《남을 위해 산 사람》, 《한식구처럼 산 사람》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 이 사람은 일군의 자리에서 떠났으나 오늘도 여전히 성봉군사람들과 한식구로 살고있다.)

남근식은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의 경제조직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자면 바로 김국진처럼 인민들과 한식구가 되어 살아가는 여기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 언제 떠나려나?》

김국진이 물었다.

《예, 래일 급행차로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는데 친지들도 만나보고 잘못된 일이랑 바로잡아주고 배워주면서 보름쯤 있지그래.》

남근식은 김국진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남아서 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나를 비롯한 우리 일군들이 선행자들이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이룩해놓은 귀중한 업적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시기, 그 정신으로 인민들속에 살며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것입니다.》

김국진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는 쇠소리 나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씨를 뿌리고 좋은 작황을 마련한 사람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 작황을 허실없이 꽃피우고 수확을 거두어들이 사람들의 땀은 더욱 크고 무거운일이지.》

《뜻이 깊은 말입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후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동지가 힘들여 이룩한 <작황>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알찬 열매를 거두어들이겠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미더운 모습을 보니 이제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네.》

봄날의 약속 외 1편

한정규

거울같은 논배미에
포기포기 풍년모 심는
나는야 꿈많은 처녀
봄날과 약속하네

바람아 착한 봄바람아
살랑살랑 불어와
갓 심은 애기모와 노닐렴
이제 약비로 맞춤히 뿌려
모살이도 푸르싱싱하게 할테야

논물아 흘러드는 논물아
날씨 차도 걱정 말아
뜨거운 내 사랑 너를 덥혀
포기포기 베풀기 실한 아지 치게 할테야
얼른 잠깐 이랑꺾을 메게 할테야

보폭에 편 민들레야
까불대는 제비까치야
너희들파도 약속하마

믿어다오 처녀의 약속

세벌김 네벌김
아지비료 이삭비료
백가지 농사일 진정을 다해
이 벌에 벼꽃향기 넘치게 할래
이 세상 풍년새 다 모여와 춤추게 할래

나는 열일곱 꽃나이
로동의 첫자욱 고향벌에 새기는 처녀
아껴둘 내 사랑 내 진정 따로 있을가
키워준 그 은혜 생각하면
내 손으로 언 농장벌을 다 가꾸고싶다

뜻깊은 올해농사
나의 첫해농사
보란듯이 잘 지어놓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드릴래
봄날아 약속해, 풍년가을 약속해

바래주고 생각하니

통일거리 건설장으로 가는
동창생 나의 동무
바래주고 생각하니
선뜻 못돌아서겠구나

당의 뜻따라
어려운곳으로
그는 저렇게 떠나가는데
내라고 어찌 바래주는 사람만 되랴

한고향에서
사랑의 품에 함께 안겨
쌍둥이처럼 배우며 자랐는데
낯설은곳으로 그는 가고
불밝은 거리에 나는 남고

멀어져가는 차바퀴소리
내 가슴에 쿵쿵 묻는듯
청춘이란 무엇인가
의리란 무엇인가

아, 한창시절 좋은 시절에
큰 몫을 맡아 더운 땀 흘리지 못한다면
내 생애 짧은 시절은 있었다 해도
참된 청춘시절은 없으리!

키워준 어머니 바라는 일에
선뜻 나설줄 모르는 자식
천이면 만이면 뭘하랴
그는 불효자식

량심이 소리치며 일어선다
나도 가겠노라고
위훈의 일터 막장으로
《청춘대학》대건설장으로

가겠노라 나도
인생의 먼 후날
바래워만 준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바래움 받으며 산 사람 되기 위해

아버지의 초상

김동호

바다가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고산지대에 개발된 지 40 여년 가까이되는 동암탄광이 있다. 탄광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못바리뚜껑처럼 봉긋한 야산이 있는데 해종일 해가 든다고 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양산마루에는 아름다리 잣나무가 한그루 서있었고 그 주변에 애어린 잣나무들이 무성하게 숲을 이루었다.

동암탄광이 이채를 띠는것은 바로 갱입구로 들어가는 양산마루에 잣나무가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것이었고 명절때나 쉬는날이면 탄광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것이였다.

양산마루에다 맨처음 잣나무를 심은것은 나의 아버지였다.

전쟁이 일자 전선으로 탄원해나갔던 나의 아버지 김철혁은 전쟁이 끝난 3 년후인 1958 년 봄에 제대되어 당시 새로 개발된 동암탄광에 배치받았는데 한분대에 있던 강명석이도 따라나섰다. 그때 제대 군인집결소에서 만난 키가 작달만한 로수진이라는 제대군인이 함께 왔었다.

나의 아버지는 전선에서 앞머리에 화상은 입어 반대머리가 되는데다 광대뼈까지 불거져나와 성미가 강마르고 성깔져보였다.

아버지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보기만해도 무섭다고 좀처럼 가까이 사귀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대되어 함께 온 세 전우는 친동기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낫선고장에다 배낭을 벗어놓은지 몇해가 지난 어느 봄날 철혁은 나무모밭에 가서 잣나무를 몇그루 가져다 나무 한그루 변변히 서있지 않는 양산마루에 심었다. 그가 굳이 잣나무를 심자고 마음먹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철혁이가 속해있는 독립중대는 《잣나무고지》를 차지하고있었는데 고지정점에 하늘을 치를듯이 키높이 자란 잣나무 한그루 서있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였다.

중대전사들은 이 잣나무밑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기도 했다.

눈이 강산같이 내린 1952 년 겨울이였다. 그 여대를 봐도 하얗게 눈이 덮여있었지만 잣나무만은 네활개를 쭉 펼치고 고지우에 거연히 서있었다.

적아간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던 겨울 어느날 중대의 《포마시인》은 이런 시를 남기였었다.

사철 푸른 잣나무

너는 중대의 기상, 조국의 기상이어라!

이 《잣나무고지》에서 중대는 사랑스러운 전사를 잃었고 그의 복수를 맹세다지기도 했었다.

이 《잣나무고지》에서 전쟁승리를 맞은 중대전사들은 그해 가을에 골고루 잣을 한줌씩 나누었었다. 어느 한 전사도 잣 한알 입에 가져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잣을 보석처럼 귀중히 다루며 겹겹이 싸서 배낭속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제대되어 새로운 고장에 배치받아온 철혁은 그것을 린근에 있는 나무모밭에 가져다주었다...

심어놓은 잣나무에 반침대를 한창 들이고있는 철혁이앞으로 수진이가 숨가빠 뛰어왔다.

《여보게, 여긴 땅이 척박하구 바람이 세차와서 잣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철혁은 일손을 다그쳐 한마디했다.

《뿌리내릴 때까지 열번이구 백번이구 심어보자는거네.》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말구 한잔 하러 가세. 명식이 기다릴거네. 지난밤에 용주래기를 한바께즈 잡아왔는데 매운탕을 끓이겠다고 했네.》

《먼저 가보게, 인차 뒤따라 갈테니...》

《괜한 수고를 하지 말라는데두 그러누만, 내가 린산태생이라는걸 알지 않나, 아무리 역사해두 살려내지 못한다니까...》

로수진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철혁은 잣나무에 반침대를 마저 세워주고 물까지 준다음에 수진을 따라섰다.

그날밤 세 전우는 한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이고장에다 제대배낭을 풀어냈을 때는 천막 한개 변변한것이 없었다. 전기가 미처 따라서지 못해 착암기를 들이댈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손을 놓을수가 없어 베개통만한 함마를 휘둘러대며 정대로 발과구멍을 뚫어나갔다.

밤에 자리에 들면 온통 부르튼 손바닥이 저려나서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참을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견디기 힘들고 성화스러운것은 모기한테 뜯기우는것이였다. 모기단련에 내쳐 두세시간을 이어 자는 밤이 거의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줄비하게 늘어선 탄광마을이 생겨났고 탄이 쏟아져나왔다.

세사람은 모두 장가 들었는데 김철혁은 전쟁때
량부모를 잃은 압축기운전공처녀와 결혼했었다.

채탄중대 굴진소대장으로 있던 강명석은 기술과
처녀와 결혼한지 1년만에 성에 소환되어 올라갔다.
그는 몇해전부터 총국장사업을 맡아보고있었다.

아버지는 하루도 탄광을 뜰새라 수직수직 일해나
갔는데 종종 어린 내 손목을 잡고 갱에 들어가서
자기가 잡고있는 착암기도 보여주었고 간데라불을
들리기도 했었다.

아들이 하나뿐이어서인지 아버지는 끔찍이도 나
를 사랑했다. 그런데도 나는 종종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곤했다.

인민학교시절인것 같다.

동무들과 함께 강에서 물놀이하다가 싸움이 벌어
졌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빗대어 《똥대, 똥
대...》 하며 나를 놀려주었다.

그것은 내가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아버지의 별
명이었다.

《야, 이새끼 너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나는 대뜸 그애의 뺨살을 틀어쥐었다.

그때 전선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수진의 아들 광
준이가 막아나서지 않았더라면 성난 나의 드센 주
먹이 그애의 코피를 터쳐놓고야말았을것이다.

나는 그길로 집에 뛰어들어갔다.

마침 쉬는날이어서 아버지는 집에 있었다. 아버
지는 큼직한 못끝을 착암기몸체에다 박고 자그마한
망치로 못대가리를 푹푹 두드려나갔는데 19506
이라는 수자를 새기고있었다.

나는 커서야 알았지만 그 수자는 아버지가 군대
에 입대해서 수여받은 총번호였다.

처음으로 착암기를 수여받은 날 아버지는 빨간뽕
끼로 총번호를 써놓았더랬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수자가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와락 부둥켜잡으며 울음을
터치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머리칼이 없어? 잉잉...》

아버지는 마구다지로 쏘아붓는 나의 항의에 아무
러한 반응도 없었다. 낫색도 달라지지 않았고 눈자
위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저 덤덤히 앉은채로 담배
연기만 깊숙이 빨아들이며 마지막 총번호를 새겨가
고있었다.

나는 안타까웠다. 당장 내 손목을 끌고 강가에 달
려나가 나를 놀려준 애들을 혼썰내줄줄 알았는데
성내기는 고사하고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욕하는것이였다.

《사내녀석이 눈물이 그렇게 험퍼가지구는 아무
구실도 못해, 그딴 소리가 어쨌다구 질질 짜면
서...》

아버지는 그이상 더 말하지 않았다.

어릴 때 내가 본 아버지는 이랬었다.

내가 중학교 졸업반학년에 올라왔을 때였다.

탄광에 내려온 총국장이 우리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술좌석에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인젠 석진이도 대학에 보낼 때가 됐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구 국에 올라와서 함께 일해보자
구. 작년에 왔을 때도 이야기한바 있지만 자네처럼
탄광을 잘 알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요구돼서 그
러네.》

《허허, 그 마음만은 고마우이, 하지만 그건 사람
이 어디 나 하나뿐이라구... 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재목이 못되네.》

《원 사람두... 자기를 과신하는것도 나쁘지만 스
스로 어깨를 낮추며 자기를 결박하는것도 결코 겸
손은 아니라고 보네.》

《자네앞에서 무슨 겸손을 부리겠나. 제발 나를
여게 놀려있게 뒤두라구. 난 한뼘 탄부라는 말을 들
으면서 살고싶네.》

아니 하면 그만인 아버지를 종시 돌려세우지 못
한채 총국장은 올라갔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립박이였다.

나는 처음으로 언성높은 아버지의 꾸중을 들었다.

《너 정 공부에 채심하지 않겠니!》

《아무렴 제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겠어요.》

《공부를 잘해야지 용빼는수가 있니!》

《나를 입학시키지 않으면 누굴 입학시키겠어
요.》

까다로운 인수분해와 복잡한 물리 화학공식들이
나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설마해서 《공훈광부》의 아들을 상
급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랴 하는 한가닥 미련을
품고있었던것이다.

《그런 허튼 생각을 할새면 글 한자라도 더 들어
다봤어야지.》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 밑굽까지 거울속처럼 들어
다본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저녁 나는 아버지에게 청천벽력같
은 소리를 했다.

《아버지, 난 대학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탄광에서 몇해 일하다 가겠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어이없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
니

《어째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
고 따지듯 묻는것이였다.

나는 대답이 궁해졌다.

사실 내가 이런 용단을 내리게 된것은 과연 입학
시험에 합격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아버지가 나서주면 능히 입학할수 있으리라고 생
각했었는데 그런 《작전》은 죽인대도 못하는 아버

지라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던것이다. 그렇다고 곧 이곧대로 말할수는 없고 하여 로동동력을 가지고 대학에 가야 졸업후에도 발전이 빠르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담배 한대가 다 타도록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가서두 제 배꼽떨어진 탄광을 잊지 않구 아버지들이 어떻게 탄광에다 몸을 바쳐왔는가를 늘 가슴에다 새기고있으면 되는거지.》

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느새 내 마음을 짚어본것이였다.

하는수없이 나는 막무가내로 들이댔다.

《어쨌든 전 탄광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정 그렇다니 말리지는 않겠지만 진짜 탄부가 되려면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구 처음부터 걸음을 크게 떼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채탄중대에서 굴진공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나를 청년갱에 배치해준 사람은 아버지의 옛 친우인 로동과장 로수진이였다.

몇해가 흘렀다.

어느날 내가 로동과장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곱살하니 생긴 한 처녀가 와있었는데 수진의 딸 로미란이였다.

그는 대외봉사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해변가에 있는 호텔관리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나는 그를 잘 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세해나 아래반인 그는 나를 친 오빠처럼 따랐었다. 그러던 그가 대외봉사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후에는 몇해째 만나지 못했었다.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어쩐지 지난날에 사귀던 그런 감정이 아니였다. 몰라보게 잘 번지였다는 생각이 들며 그전처럼 《야, 자》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미란동무!》 하고 나는 어쭙게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역시 나를 《오빠》하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다.

그날저녁에 나는 그와 함께 탄광에서 멀리 벗어난 호수가에 나갔다. 대기는 눅눅하였다. 눅눅한 대기가 오히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가치를 꺼내 입에다 물고 성냥을 득 그었다. 불이 달리지 않았다. 다시 그었다. 이렇게 세네번 그어서야 겨우 불이 달리었다.

《라이타가 없나요?》

그때까지 묵묵히 서서 나를 지켜보던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스라이타가 있었는데 가스가 다 나가서...》

나는 그의 물음에 범상히 대답해버리었다.

《탄광에는 가스를 넣어주는데가 없을테지요?》

《그야 물론... 그래서 이렇게 성냥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소.》

미란은 어쩐지 그 말을 심중히 듣고있었다.

담배를 가스로 붙여문 나는 미란이와 함께 호수가를 천천히 거닐며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희망과 포부에 대해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후 달포가 지난 어느날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미란은 다른 나라 상표가 붙은 새까만 라이타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척 누르면 불이 켜지는 라이타예요. 막 써두 이삼년은 끄떡없을거예요.》

《고맙소.》

나는 몇번 불을 켜보고 호주머니에 깊숙이 찢려넣었다. 골동품 휘발유라이타를 애용하고있는 아버지한테 주면 무척 좋아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후부터 나는 한달이 멀다하게 미란을 만나곤했었다.

하루는 그가 나를 찾아왔었다.

《갱에 드나들래기 정말 수고가 많겠어요. 벌써 가져다드려야 했을건데...》

미란은 이전처럼 다른 나라 상표가 붙은 《만년충전전지》를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나는 전지를 받아쥐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한생을 그와 함께 걷는다면 그밤밤에도 미란은 이 전지불처럼 내가 가는 길을 밝게 비쳐줄것이다.)

그 이듬해 봄 어느날 나는 그와 함께 록음이 우거진 바다가 수림속을 즐겁게 거닐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움터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하루도 미란에 대해 잊은적 없었고 그와 함께라면 별세계에라도 날아가고싶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금년에도 대학추천을 받지 못했나요?》

어딘가 시답지 않아하는 미란의 물음이었다.

너무도 뜻밖의 물음이었어서 나는 좀 당황했으나 조금도 그런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소.》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물음에는 대답할 말이 막히였다. 아버지가 나서주면 추천도 쉽게 받을수 있을거고 대학에 입학하는것도 문제없으리라 생각되었지만 그 말만은 차마 꺼낼수가 없었다.

《뜻대로 안되지만...》

《그럼 탄광에서 나와야지요 뭐. 거기서만 동의하면 시내에다 대학에 인차 갈수 있는 자리를 탐문해 보겠어요. 탄광에서 떼내오는 문제는 제가 아버지한테 들이대겠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나의 기분을 어지간히 건드리

였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귀맛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은 지금 뭘하고있는지 알고싶어 주소를 알고있는 동무들한테 편지를 보냈다. 며칠이 지나자부터 답장이 매일 같이 날아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나온 동무들가운데는 연구소에 나온지 1년만에 새로운 원격조종장치를 발명해낸 동무도 있었고 출판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체육단에 뽑혀가서 공화국선수권을 보유한 권투선수도 있었고 외국에서 류학을 하고있는 동무도 있었다.

날이 감에 따라 나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었다.

(학창시절에 별로 그들보다 뒤진 일은 없었지만 지금 나는 어느 계선에 서있는가. 인생의 출발점은 같았는데 오늘에 와닿은 중간지점을 주시해보면 그들에 비해 나는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있지 않는가.)

인제 그들을 따라잡자면 두주먹을 부르쥐고 밤낮을 뛰어도 가닿지 못할것이다. 그렇다고 이자리에 영영 눌러앉아있을수는 없었다. 뒤흔어진 구간을 보충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다.

지금처럼 몇해를 더 지나면 나는 그들보다 아득히 먼 거리에 뒤흔어져있게 되리라는 무서운 생각이 뇌리를 쳤다.

앞서간 동무들을 그러보면 하루하루 손맥이 풀리었고 일은 점점 힘들어만 갔다.

어느날 저녁녘이었다.

여느때없이 아버지가 일찍 집에 들어왔다.

방안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나를 불려들이었다.

《네가 잡고있는 착암기번호를 알고있느냐?... 왜 대답이 없어! 착암기를 잡은지 몇해가 지났는데두제가 잡고있는 착암기번호 하나 외우지 못하고있단말이나! 명심해 들어라, <19506> 이야.》

아버지의 어성은 처음부터 높았다.

그 착암기는 아버지가 잡고있었던것이였다.

《네가 로동과장을 찾아간 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나는 단호한 립장을 취했다. 내가 그렇게 나올수있었던것은 거기에다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은 때문이였다.

《탄광을 뜨겠다고 한것도 사실이겠나?!》

아버지는 얼마간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따지듯 물었다.

《모든게 사실입니다.》

나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네가 아버지곁에 있으면서 한몫 하겠다고 한건는가림이었구나 눈가림이...》

아버지의 관자노리가 푸들푸들 떨리었다.

《저는 그 어데 가든 아버지를 모셔갈 결심입니

다.》

《그럼 아버지마저 탄광에서 빼낼 생각을 했던 말이나?》

《아버진 이젠 예순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한생을 탄광에 바쳐오신 아버지를 여생이나마 풍치 좋고 공기가 맑은 해변가에서 즐겁게 보내도록 하자는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

《이 아들은 다문 하루라도 아버지를 잘 모시자는것이 평생소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가 땀을 철철 흘리는걸 보면서두 이 못난 아들은 구실을 못하다보니 외국에 제집 드나들듯하는 친구들처럼 시원한 레몬수나 오렌지수같은것을 가져다드리지 못하는게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전에 비하면 우리 생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높아가는 생활적요구에 따라서자니 사과보다두 꿀에 더 구미가 동해지구 순수한 단물보다두 빠이나꿀이나 야자수같은데 더 관심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으음-》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그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미란이가 준 그 라이타가 아니라 이전부터 가지고있던 네모배기 골동품라이타를 꺼낸것이였다.

《발전기라이타가 고장났습니까.》

《고장은 무슨 고장... 난 손때묻은 이 라이타가 좋아. 전쟁뎨 성냥도 없어서 부시로 불을 켜서 담배 불도 붙였구 불도 지피었어.》

《어제날 휘발유라이타를 썼다면 오늘은 가스라이타나 발전기라이타를 써야 하구 래일엔 그보다 더 좋은 라이타를 써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기한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덜 고생시키구, 가정생활두 더 윤택이 나게 하려면 대학에 빨리 갈수 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외국에 쏠중이나도록 다녀야 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 박혀야지 한뼘 탄광에 몸을 잠겼대야 탄부라는 말밖에 더 들겠습니까.》

《에익-배은망덕한놈.》

아버지의 웅알이 박힌 큼직한 손바닥이 나의 왼쪽 볼편에 창살처럼 날아들었다.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내앞에서 썩 사라져!》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북두갈구리같은 손을 두손으로 부들켜잡으며 목메여 불렀다.

《그 쿠린내나는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비척거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나는 문을 마주하고 서있는 아버지의 등에다 대고 항변조로 부르짖었다.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한평생 탄광

에 모르고 살아오시지만 생활은 막장처럼 좁지 않아요.》

《이녀석, 닥치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강철판같은 어깨박을 종긋거리며 추상같이 소리지르고는 돌아서서 좀 누그러진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어데 가나 탄, 탄 하는 때에 탄을 한삽이라도 더 캐낼 생각은 안하구 뭐가 어떻다구!》

《전 아버지가 하루하루 늙어가는게 막 가슴이 아쁩니다. 이 좋은 제도하에서 맘껏 락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앉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잘돼야 아버지를 잘 모실수 있을게 아닙니까.》

《...네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잘 모실 생각이면 매끼 이밥에 고기반찬에 술상을 받쳐서 들어오지 않아도 돼, 그런건 바라지도 않구, 그저 네가 일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떠받들리우는걸 보는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넌 뭐가 어떻다구... 그래 그게 자식된 도의를 지켜가는거냐!》

이 말을 남긴 아버지는 종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온밤 몸을 뒤채이며 잠을 설치였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동창이 희뵈해졌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아버지를 찾아 밖에 나섰다.

아버지는 기쁠 때나 무슨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면 잣나무가 서있는곳에 간다는것을 알고 줄곧 그리로 발길을 옮기었다.

예감은 들어맞았다.

아버지는 잣나무가 서있는 그 어방에서 담배만 풀썩풀썩 빨고있었는데 내가 서있는데까지 취기가 풍겨왔다.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아버지의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보이지 않았지만 피로한 그늘이 짙게 어리여있으리라것을 짚어보았다.

아버지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그자리에서 돌아서 내려왔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나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고 마음을 얼마간 혼들어놓았지만 그후 나의 생활에서는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탄광을 떠나 해안가 도시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루하루 더해갔고 미란에 대한 미련은 내 가슴에서 한시도 떠나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 동발공이라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 맡겨졌다.

후에야 알았지만 나를 동발공으로 옮겨놓은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탄광당위원회도 찾아갔고 지도사업자로 탄광에 내려와있는 잊지 못할 친우인 강명석이기도 찾아가 만났었다.

《내가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네. 나는 그녀석한

테 대를 이어 탄부의 녀을 심어주자구 내가 잡고있던 착암기를 맡겨주었지만 몇해가 지났는데두 아직 탄부가 뭔지 모르고있네. 허파에 바람만 잔뜩 차가지구... 내가 잘못했지, 처음에 힘든 동발공부터 시켰어야 했을건데...》...

그날부터 명예경장으로 있는 아버지가 늘 내곁에 서있었다.

언제보나 아버지는 손에 도끼를 쥐고있었는데 지질탐사대원들이 쓰고있는 지질망치처럼 그걸 귀중히 다루었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그래도 드문히 찾아오던 미란이가 영 발길을 끊고말았다.

《석진동문 아버지가 계시는 한 절대로 탄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거야. 그렇다면 더는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지.》

아마도 이랬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때문에 사랑마저 잃게 되다니...)

날이 갈수록 손맥이 풀리었고 일은 점점 더 힘들어가기만 했다. 했어도 아버지는 언제 한번 내가슴을 쓸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설움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러려니 몇달전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뜬 어머니의 생각이 간절해졌다. 만일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 아들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었을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 아들을 두고 어디로 가셨나요.)

그때처럼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진 때가 일찌기 없었다.

이때였다. 나를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척에서 들렸지만 설움에 북받쳐 그 소리를 귀밖으로 흘러보내었다.

잠시후 땡- 땡 - 하는 메아리가 울려와 소리나는 쪽에 다가갔다.

방금전에 내가 들인 동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금시 암반이 무너져내릴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도끼를 휘두르며 기울어진 동발뺨에다 모가 난 나무 췌기를 박고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설속의 장수를 방불케 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뒤등으로 췌기를 후려칠 때마다 기울어진 그 육중한 동발목이 움썽움썽 일어섰다. 몇번 치지 않았는데 췌기는 자리를 잡았고 동발목은 제대로 일어서서 끄떡없었다.

그제야 내쪽으로 돌아선 아버지는 섬광이 이는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추상같이 소리질렀다.

《동발을 이꼴로 들어놓구 거게서 무슨 행불이를 하는거냐. 1 분도 쪼개썩여 할 불같은 세월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짐짓 깔리였었다.

《네가 들인 이 동발을 살펴봐라.》

내가 세운 동발 한대가 다른 동발과의 간격이 맞

지 않았었다.

아버지는 내가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대번에 짚어보았다. 막장모서리의 두드러진 바위벽을 깨내기 시끄러워 그것을 피하다보니 간격이 떠진게 분명했던것이다.

《오늘 하나 눈속임하면 래일에 가선 열백을 눈속임하게 돼. 그러면 나중에는 제자신도 속이게 되고 당도 속이게 되는거야.》

아버지는 끝내 내 손으로 동발을 다시 세우게 했다.

×

미란은 내 가슴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옛전우인 총국장이 탄광에 내려와있다는것을 안 나는 그의 방조를 받자는 생각도 해보았고 로동과장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막역한 친구들이어서 지난날 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돌려왔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더더욱 로동과장은 딸의 장래를 봐서라도 아버지를 설복시킬수 있을것이었다. 그런만큼 로동과장부터 만나야겠다고 생각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갯에서 퍼그나 떨어진 산기슭에 치우쳐있었다. 집에서 그리로 가재도 자그마한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다.

나는 일을 끝내고 어슬녁에 몰래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일손을 다그쳤다.

하루낮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진 때가 언제있었던가싶었다.

땅거미가 드리울무렵 나는 미란이가 준 전지를 들고 갯에서 나왔다.

로동과장이 일을 보는 사무실은 살림집같은 단층집이었는데 다른 부서들로부터 얼마간 사이를 두고 따로 떨어져있었다. 프락에 정원처럼 야외의자도 몇개 얹혀놓고 화단도 꾸려놓았었다.

로동과로 가는 길은 두갈래였다. 한길은 앞으로 트인 큰길이였고 질러가는 길은 집뒤로 통한 오솔길이었다.

나는 질러가는 길을 택했다.

어둠이 깃을 내리드리웠다.

집뒤에 이르렀을 때 프락에서 낮익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었다.

나는 무춤 멈춰서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여보게, 우리가 제대배낭을 메고 여게로 오던일이 생각나나?》

《생각나다마다. 한시도 잊을수 없지.》

둘은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담배연기가 집뒤구석에까지 날아왔다.

그들은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중이었다.

그들 두사람은 아버지와 로동과장이었다.

《전쟁도 힘겨웠지만 전후에 우리가 맨주먹을 가지구 갯을 뚫어나가던 때가 정말 힘에 부쳤더랬지. 한 일은 많구 손에 권것은 없구... 그러나 우린 탄광도 개발하구 공장도 일떠세우구... 애들의 가슴에도 그 정신을 심어줘야 할게 아니겠나.》

《더 이룰데 있나.》

《그런데 난 아들녀석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거든. 탄부가정에서 자랐으니 의례히 그 숨결이 가당으리라고만 믿고 방심했거든. ...허참, 그렇게 탕개가 풀려가지구 등 떠있을줄이야...》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다 말했다.

《그녀석이 근본을 잊어서 그런건 아닐결세. 외아들 자식이다보니 아버지를 잘 모시자구 그런 마음을 먹은건데 뭘 그리 심각해서 그러나. 석진이가 그렇게 된데는 나한테 더 큰 책임이 있네.》

나는 딸이 하나라고 해서 번듯한 도시에 내보낼생각으로 대외봉사학교에 보냈던거네. 탄광에서 자라난 애가 도시에 나가서 몇해 지내더니 제 배꼽떨어진 탄광을 잊고있단 말일세 ...그애들 사이가 남남간이 아니라는것을 얼마전에야 알게 되였네. 석진이를 부추긴건 내 딸년이였네. 그래서 딸년을 여기 끌어오자고 하네. 탄속에 묻혀봐야 제정신이 들게거든...》

《그애를 탄광에 끌어다 세운다구 저절로 탄부의 녀이 심어질줄 아나. 아무데 가서 뭘하든 사람이 근본을 잊지 않으면 그제 곧 녀을 이어받는거구 녀이가슴에 심어지는거지. 멀리 볼게 있나. 이웃나라를 제집 프락처럼 밟고다니는 자네 아들 광준이만 놓고봐도 그렇지. 그 사람이 제 태줄을 묻은 이고장을 잇구 부모들을 잇는걸 보지 못했네. 외려 다른 나라에 가있으면 제 나라가 더 그리워지구 체고향 탄광마을과 부모형제들이 더 보고싶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매번 찾아온다구...》

《...》

《탄광에서 자란 처녀애가 대외봉사학교를 졸업하고 호텔관리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잘못된건 아니라고보네. 아버지가 탄광에 있다고 해서 그 자식들도 꼭 탄광에 눌러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 나는 우리 석진이가 더 큰일을 하려고 탄광을 뜨겠다고 했으면 기꺼이 받아들였을거네.》

그런데 이젠 허파에 바람이 차서... 그래가지구서야 아무데 가선들 무슨 일을 착실히 하겠나. 나라에다 기둥을 한대라도 더 세울 생각을 할 대신에 세워놓은 기둥을 야금야금 썰 생각을 하고있으니 이런 좀벌레를 어떻게 그냥 두어두겠나. 그래서 내 평생 손끝 한번 대여보지 못한 그녀석한테 주먹을 안겼던거네.》

《...》

《전쟁을 겪은 우리가 이 낮선고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누구 한사람 불평을 부린 일

이 없지 않았다. 그저 당에서 배치해주는곳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지. 어느 누가 자기 리속을 앞세운 사람이 있었겠나. 그런데 이녀석은 옛날 호부자집 자식처럼 행세한단 말일세. 우리 후대들이 아글타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구 제아버지의 그늘밑에서 행복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구경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지난날 우리가 서있던 자리에 오늘은 석진이세대가 서있지 않나. 그런만큼 그들이 아버지들이 넘겨준 바통을 짊어잡고 힘차게 내달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나는 아들녀석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거든. 이게 제일 가슴아프네.》

《이보게, 석진일 대학에 보내자구. 그녀석이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키우자면 공부를 시켜야 하네. 그녀석은 자랄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나지 않았더랬나.》

《아직은 보내기 이르네. 우선 대학에 추천받을수 있도록 여러모로 준비돼야 할게 아니겠나.》

《그건 넘려하지 말라구. 공훈광부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누굴 보내겠나. 자네만 동의하면 내가 책임지고 마음들어하는 대학에 보내겠네. 그만한 일두 감당 못해서야 로동과장의 면목이 서나.》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말에 아버지는 그만 억이 막힌 모양이었다.

《이보게, 공훈광부가 된게 내가 잘난때문이었겠나... 그런데두 내 아들은 그런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건가. 그애들의 장래야 아버지가 뭘하든 관계없이 제 능력과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구 처리돼야 한다고보네. 그런만큼 누굴 쳐다보거나 나서주길 바랄것두 없구... 문제는 저한테 달린거지.》

그후에도 그들사이에서는 나와 미란이 관계를 두고 사회와 청년들을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돌아섰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것을 그날밤 나는 처음 보았다.

로동과장의 말은 내 가슴을 찔었다.

그 며칠후 아버지한테 대학에 가겠다고 들이댔다.

《지금은 안돼!》

아버지는 한마디로 잘라버리었다.

나는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로동과장은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렇지 못할가. 전선에서도 함께 싸웠고 같은날 제대되어 탄광에 같이 발을 들여놓은 두 전우가 어찌면 이렇게도 다를수 있을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날을 따라 높아갔고 아버지는 나의 가슴에서 점점 멀어지었다.

아버지는 나의 정상이 가공해보였던지 그다음부터는 점점 말이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하루하루 내곁에 와있는 도수가 떨어졌고 얼굴이 점점 짙어졌다.

탄광지휘성원들은 아버지보고 료양도 가고 휴식도 하라고 수차 권고했고 나더러 아버지가 집에서 폭 쉬도록 잘 보살피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밀막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 내가 쓰러지다니... 쇠붙이엔 좀이 쏘지 않아. 하루라도 탄이 나오는걸 보지 못하면 밥맛이 없어지구 잠도 오지 않아. 내한테는 탄이 약이야. 탄을 봐야 기분이 좋구 사는것같거든...》

평생 병원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면 아버지는 좀처럼 병원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내가 일하고있는 갯에 나타났다.

내가 들인 동발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짚어보며 귀중한 보석이라도 드다루듯 조용히 쓸어보기도 했다.

아마도 내가 들인 동발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입가에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나는 오늘까지 아버지가 미소짓는대거나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날따라 몹시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는 좀처럼 갯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전선에서 입은 부상자리가 종종 도지군하는데다 일에 치워서인지 아버지의 얼굴은 몹시 상했었다.

협상하게 모가 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내 마음은 그지없이 아팠다.

《아버지, 어서 집에 들어가십시오.》

《퇴근후에 같이 들어가자꾸나.》

일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내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막장에서 걸어나왔다. 거기서 갯입구까지는 퍼그나 멀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갯안을 걸으니 걸음이 가벼워졌다.

《아버지, 제가 그새 아버지의 속을 너무 태웠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싶었으나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말로써는 아버지를 위안해드릴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버지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질색이었다. 늘 봐야 말없이 수직수직 일해가는 사람을 좋아한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던것이다.

이날저녁 나를 앞세우고 묵묵히 갯입구쪽으로 걸어나오던 아버지가 갑자기 《석진아! 뛰여라.》 하고 소리지르는것이였다.

나는 얼굴에 중주먹을 쥐고 갯입구를 향해 한참 뛰여가다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아버지를 찾아 다시 막장으로 뛰여갔다.

온몸에 물을 함뱉 뒤집어쓴 아버지가 막장압반벽

에다 어깨를 디밀고 서있었다. 막장암벽짬에서 석수가 터져나왔던것이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걸어오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를 내보내고 자기는 다시 막장으로 비호갈이 달려간것이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서려 하자 아버지는 내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다가서지 못하게 소리질렀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라 잠시 서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먹으로 콕 찍어놓은듯한 술진 눈섭, 불거져 나온 광대뼈, 화상당한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앞머리, 꼭 다문 두툼한 입술... 장사같은 아버지를 나는 처음 보았다.

아버지의 그 기상은 불을 토하는 적화구앞에 가슴을 내민 영웅의 기상과도 같았다.

《빨리 비상대책을 세워야겠다. 어서 지휘부에 알려라!》

나는 급히 자리를 떴다.

잠시후 여기저기에서 탄부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고 눈자위가 벌겍게 피발이 졌었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고 숨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즉시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도병원에 후송되었다.

그 며칠후에 나는 로동과장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잡고있던 착암기를 다시 잡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과장은 꽤히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밤낮을 갱막장에서 보냈고 몸과 마음을 깡그리 탄광에 바쳤으며 착암기는 내 손에서 한시도 떨어져본 일이 없었다.

일에 몰히니 힘이 나고 사는것만 같았다. 단지 허전한것은 아버지가 곁에 없는것이었다. 그때처럼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귀중하게 느껴진 때가 일찌기 없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얼마나 귀중하고 미더운가를 미처 느끼지 못했었다. 실로 아버지 없는 생활은 망망한 바다위에 홀로 떠있는 쪽배와도 같은것이었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오면 절대로 괴롭히지 않고 내내 기쁘게만 해드리리라.

나는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내리며 하루하루 아버지를 눈이 멀게 기다리었다.

한달이 지난 어느날 아버지가 불쑥 갱막장에 나타났다.

그때 나는 정신없이 굴진을 하고있던 참이어서 아버지가 등뒤에 다가온줄도 모르고있었다.

아버지는 한실참 가까이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압축기운전공이 공기를 만부하 보내주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뒤로 얼굴을 돌리는순간 아버지를 봤었다.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다.

지어 내가 꿈을 꾸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내 마음이 아버지를 불러온건 아닐가.

《아이...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무슨 그런 소동을 피우겠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내가 잡고있는 착암기를 풀어보았다.

《그새 수고 많았겠구나... 오늘저녁엔 좀 일찍 들어오너라. 탄광에 총국장도 내려와있다더구나. 들어올 때 로동과장이랑 함께 두분을 모시고 오너라.》

어슬넷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리반에다 술잔을 4개 올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인차 뒤따라 오시겠대요.》

《그럼 좀 기다리자꾸나.》

아버지는 농작을 열더니 자그마한 나무함통에서 내가 준 라이타를 꺼내놓았다.

《네가 아버지 몰래 담배를 피운다는걸 알면서두 그땐 너한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까짓게 뭐이라구... 자 받아라. 이젠 맘놓구 써도 되지. 미란을 잘 도와주거라. 난 너희들이 진실로 행복하길 바랄뿐이다.》

나는 라이타를 받아쥐고 치욕에 가슴을 묻었던 지난날을 뼈아프게 돌이켜보았다. 사실 나는 외국 상표가 붙은 별치 않은 이 라이타에도 유혹되었던것만은 사실이었다. 남의것에 넋을 잃지 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해서 아버지는 이제야 돌려준다는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쓰십시오.》

나는 아버지앞에 라이타를 도로 내밀었다.

《나야 늙은게 아무걸 쓰면 뭐라니.》

그날밤 나는 아버지의 전우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았다. 세 전우는 서로 어깨박을 부어잡기도 하고 무르팍을 치기도 하며 온밤 웃고 떠들고 했다.

《여보게, 솔직히 말해서 자네야 어디 난데가 있길 하나 남들보다 특별히 마음이 후하길 한가, 그런데도 늘 잊혀지지 않고 그리워지거든.》

아버지를 쳐다보며 명석이가 말했다.

《나는 이 량반과 가까이에 있지만 며칠만 보지 못해두 마음이 허전해지군하네.》

로수진이 그 말을 받으며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원, 사람들두 앞에다 앉혀놓구 이게 무슨 본때들인가. 나야 그저 제 생겨먹은대로 살아왔을뿐이지.》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내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우리 석진이가 퍼그나 컸지. 자네들이 보기엔 어떤가?》

나는 아버지가 것처럼 기뻐하는것을 처음 보았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를 보고 《난데없는 사람》

이라느니 《번대깡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가.

물론 아버지는 미남자는 못된다. 그렇게만 나는 그 어데가서도 나의 아버지에 대해 떳떳이 자랑하고 싶다.

나는 가끔 일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탕개가 풀릴 때마다 아버지가 안겨준 주먹을 가슴으로 새겨보곤 한다. 만일 그날 아버지가 내 귀뺨을 치지 않고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제멋대로 내버려두었더라면 나는 어데로 갔을 것인가. 그로 하여 나의 기억속에 아버지는 어떤 인간으로 남았을 것인가. 비단 내 몸을 낳아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의 가슴에 뜻을 심어주지 않고 사회와 집단에만 의탁하고 방심해두었을 때 그 아버지는 그저 한갓 아버지여 머물고말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혈육의 정에서만

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식들과 사람들의 기억속에 깊은 인상을 남길 때 그 아들은 물론 친구들도 더 뜨겁게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기마련이다.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구내앞에 거연히 서있는 잣나무를 바라보곤 한다.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이나 타는듯한 불볕에도 끄떡없이 네활개를 쭉 펴고 푸르싱싱하게 서있는 잣나무!

거기에서 나는 아버지의 넋을 읽곤 한다.

미란이도 잣나무를 바라보기 원하며…!

오늘은 그 주위에 애어린 잣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품어안고있듯이!

잣나무들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커가며 푸르려만 갈것이다.

광부의 생각

정덕철

무수한 쇠돌줄기 거머쥐시고
철산에 찍어가신
친애하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
내 하루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하나 짚어보나니

기계의 대군단을 부르시여
무산의 땅속에 틀고앉은
또 하나의 철산을 잠깨우시던
그이의 위엄높은 음성
내 하루일을 끝낼 때도
마디마디 되새겨보나니

여기서는
지축을 울리는 저 착정기도
광맥을 따라 속속들이 뻗어간
그이의 구상을 안고 돌고돌아라

쇠돌산을 허물어
철산을 쌓아가는 저 우람한 불도젤도
여기서는
그이의 손길따라
조국땅우에
만년대계의 재부를 늘어가라

여기서는

여기서는
눈부신 전조등을 마주비치며 엇갈리며
굽이 돌아 오르내리는 대형차들도
철의 가슴으로 받들어가는
위대한 태양의 돌레를
가까이 가까이에서 도는듯

아 천만가지 생각도
하나같이 인민을 위해 고르시고
억만의 재부도
인민을 위해 모두 기울이시는
한량없는 그 은정에 목매여

다시금 둘러보면
그이 뜻을 받들어
그이의 품에 안겨 뛰고 달리는
들끓는 무산
우리의 광산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벽찬 숨결을
함께 내뿜는 쇠돌밭에서
쇠돌로
삶의 가치와 무게를 가늠하며
쇠돌산의 높이로 행복을 쌓아가는
아 나는 무산의 광부다

그날의 구령소리 외 1편

리 석

삶의 순간에
영웅이 웨치던 짧은 구령소리
《엎드렷!》
여느때나 다름없었다

새로 입대한 병사들의
서툰 제식동작 숙련시키려고
내리던 반복구령소리
전술훈련때 대오의 앞장에서 웨치던
그때와 다름없는 구령소리

허나
한발자국만 물리서면 살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 광철영웅이 내린 구령소리는
한개 소대 병사들만이 아닌
이 나라 청춘들의 가슴과 가슴들에

동지애의 불길 세차게 지퍼주며
산에 들에 누리에 메아리로 울려퍼지니

아, 영웅이여
그대는 병사들의 마음을
훈련구령 하나만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대는 구령보다
먼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병사들을 《일당백》 만능병사로 키웠노라

그대가 웨친 구령소리 짧아도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귀가에 쟁쟁하게 울려온다
고마운 이 땅을 영원히 지키라고
충성의 한길로 불러주는 메아리로

병사들이 왔다

-김광철영웅의 전우들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룡문탄광에 집단적으로 왔다-

병사들이 왔다
그리운 고향을 멀리에 두고
영웅의 뉘를 꽃피우려고
여기 룡문땅에 왔다

병사들이 왔다
스물아홉명의 끝끝한 제대병사들이
나서자란곳 다르고
성미도 다르건만
영웅의 고향으로 향한
그 마음은 모두 하나

꽃보라를 뿌리고
꽃다발 흔드는 탄광마을 처녀들아
잠간 삼가해다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야기해다오
영웅이 뛰어다니며 푸른 꿈 키우던
복숭아동산의 그 웅달샘물을

이야기해다오
노을비긴 저녁 꽃다발안고
년간계획 완수한 탄부들을 축하하며
영웅이 달려가던 그 갱구를

처녀들아
그리고 보여다오 보여다오
영웅이 심고 물주며 가꾸던
마을어귀 무성한 살구나무
장마비에 패운 길을 메우고
영웅이 쌓아놓은 그 돌각담을

영웅은 고향의 물소리 새소리
피어나는 행복의 숨결을 안고
전술훈련의 실참에도
고향이아기로 동창생들의 이야기로
병사들의 가슴 불태워주었거니

영웅의 고귀한 뉘를 안고 꿈을 안고
고향에 찾아온 미더운 전우들
이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속에
영웅의 숨결이 세차게 뿜어주거니

아, 처녀들아
꽃다발을 안겨주라
꽃보라를 뿌려주라
광철영웅의 꿈을 꽃피우려
고향땅에 달려온 이 귀한 사람들에게
 룡문땅의 축복을 가슴마다 안겨주라

문학작품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반영

명일식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현실은 우리 문학앞에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형상하여야 할 시대적과제를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문학작품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불패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이끌어주어야 할 우리 문학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심오히 구현되어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감성적으로 인식시키고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키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할수 있도록 고무할수 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 되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행복도, 리상도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손길과 땀수 없이 잇닿아있다는것을 심오하고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의 위대성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서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것은 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민족을 령도하는 당의 위대성이며 위대한 당을 이끄는 령도자, 수령의 위대성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시고 우리 당이 빛내여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독특한 사회제도이다.

따라서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우월

한 사회주의제도를 이룩하고 빛내여나가는 행정에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의 위대성을 문학작품에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작품창작에서 가장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재현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대성,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력,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이 절정에 이르렀던 일제통치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조선혁명의 과학적인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민족의 재생과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으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오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전설적영웅이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형상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수천년간 인간이하의 무권리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간중심의 새 사회제도를 마련하여주시고 자주와 창조, 인간중심의 보람찬 사회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오늘 우리 인민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기 식대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는 긍지높은 모습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더욱 감명깊고 심오하게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

데 있다.

사회의 모든것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비롯한 사회적재부들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에 이바지한다. 여기에 우리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인민의 사회로서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중심의 사회제도이며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적리념에 맞는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이 전면적으로 담보되고있는 사회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사회주의생활은 우리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모두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뭉쳐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하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인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본질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전체 인민들이 정치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을 다같이 전면적으로 누리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인간생활은 정치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의 3대분야를 이루고있다.

정치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그 사회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사회주의생활에서 우선 정치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근로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나라없고 주권이 없었던 지난날에는 인간이하의 천대속에 살아오던 노동자, 농민들과 그 아들딸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되고 당과 국가의 큰 간부로 자라나 나라의 정사에 땀땀이 참가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는 정

치생활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정치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자주권을 실현해나가며 개인의 생명을 집단의 생명과 결합시킴으로써 집단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영생하게 된다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정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정치생활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생명체와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생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있어서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정치생활이야말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의 가장 값높은 생활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보람찬 생활이다.

우리 문학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정치생활을 통하여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해나가며 개인의 생명을 집단의 생명과 결합시킴으로써 집단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빛내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서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완성되어가는가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모두가 평등할뿐아니라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져있다.

하나로 뭉쳐진 일심단결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체의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참다운 조선의 모습이다.

일심단결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이며 특징이다.

인류력사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처럼 화목하고 하나로 굳게 단합된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여준적은 없으며 인간의 정신력과 도덕윤리가 그렇듯 고상하게 승화된적은 없었다.

우리 사회제도하에서는 사랑, 가정, 벗, 우정, 동지 그리고 행복과 이상 등에 대한 전혀 새롭고 가장 고상한 혁명적윤리가 생겨났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있다.

일심단결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동지애, 그것은 부모친척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보다도 가장 숭고하고 귀중한 혁명동지들간의 사랑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의 그 모습에서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인간미를 찾아내고 성격을 창조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감동깊은 예술적형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에서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정치생활과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값높은 정치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다같이 누릴 때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굳이 높게 말할수 있다.

인간들의 유족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떠나서 값높은 정치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유족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정서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게 되며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게 된다.

사회주의물질문화생활의 본질적특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며 전체 인민을 물질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한다는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폐, 어린이보육교양법 등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공부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고있으며 나서부터 일생동안 건강과 장수를 누리면서 법적으로 담보된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부럽없는 행복을 누리는 인민들의 참모습을 문학작품에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참뜻을 알게 해주는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가치를 똑바로 알고 자기가 살고있는 제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게 한다.

단편소설 《가마사람들》(김정옥 작)은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일정한 성과와 인기가 있는 작품이다.

단편소설은 광산책임기사인 주인공 박정혁과 중학교를 졸업하고 간석지건설장을 지망한 딸의 전망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박정혁은 간석지를 지망한 딸의 장래문제를 놓고 모대기며 착잡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정혁기사가 어떻게 딸의 결심을 지지하게 까지 되는가.

단편소설은 이 과정을 정면에 로출시키지 않고서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해주고 있다. 금사동개척자의 마지막 두 세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중학교분교의 최영준교원과 진료소의 준의, 상점판매원, 텔레비존중계소의 관리원, 산림보호원, 도서보급원 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확증하는 생동한 형상들이다. 금시동의 복무자들의 일거일동은 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품에 대한 형상적표현이며 따뜻한 손길인것이다.

때문에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생활들이지만 주인공인 정혁기사는 물론 독자들의 가슴을 그토록 뜨겁게 감동시키는것이다

4 명의 어린이를 놓고 진행되는 예비등교, 산속의 지름길로 환자를 찾아가 치료하는 처녀준의, 텔레비존을 중계하는 중계소의 관리원의 자그마한 소행 등은 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품을 뜨겁게 대변하고있다.

작품은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과 평범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한 예술적인 화폭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아직 이 주제분야의 작품들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비추어 놓고볼 때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우리 인민의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측면에 대해서 아직 낮은 적게 돌리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의 작품들에서 현실을 미화분식하여 작품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편향이 남아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깊이있는 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진실성을 보상하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와의 예리한 대비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취약성, 그 멸망의 불가피성과 함께 오늘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이 얼마나 값높고 보람차며 그러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 하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도록 고무해줄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자강도 내 고향에

정인길

조국의 하늘에 가장 가깝다
자강도 내 고향은...

깊어지는 골짜기로 숨는 산골길은
할머니 들려주던 옛말의 나라
달려오는 언덕을 덮치는 령마루
령마루엔 우뚝 타고 솟은 메부리
그것은 너의 전설
살 곳을 찾아 헤맨 이고장의 갈망이
점점 산악으로 굳어졌다고

나도 한때 놀라움에 차서 들어왔다
이름도 화전민 산을 뛰지며
산속의 짐승처럼 대를 물렸다는
지금은 어드메나 슬픈 전설의
눈물든 옛책같은 《감자바위》가

눈을 비비며 바라본다
오늘은 꿈같은 기쁨의 나라
산등의 안개는 면양의 무리
시내가 은하수는 총총한 우리 마을
이제 노루와 송아지 의좋게 풀을 뜯는
네벌김 매여내린 발머리 지나
여름해 등에 지고 산을 내리면
뽕따는 처녀들의 노래소리로
열려오는 골짜기 골짜기...

자강도
너는 얼마나 거친 땅이었더라
툭날같은 험한 산세
하늘을 짓몬다는 담찬 우뢰가
장마철 구름을 차서 쏟을 때
바줄인양 굵은 내물 네 산뿌리 묶었어도
끄떡이 없었다 산악은 치솟아
벼락치는 번개도 동강쳐 끊고
하여 놀란 하늘이
가을에 바빠 물러설 무렵
성난 너를 달래려고 바람은 선들선들
도톨밤도 찌르르... 락엽을 다독이고

계절도 너를 길들일 수 없었다
걸치는 눈보라를 활활 털어서
여름내 해별 봄도 잡히어
눈석이물 시리게 무는 골짜기마다
꽃나라 5월을 웃기인

그러면 또다시 분망한 록음은 일어서고
알수없이 깊어지는 숲엔
광맥을 숨긴 벼랑

언제부터냐 너 거친 산악이
풍만한 자원을 들고 장엄한 전망을 바라본것은
보아라 울창한 밀림에 기계톱이 노래하면
썰아... 춤추는 추는 아름다리 나무우로
하늘을 차는 산새의 무리
장자강 굽이치는 맑은 물은
만년언체의 타빈을 돌리고
망망한 호수에 그물을 쳐갈 때면
밝게 웃는 가로등 강안유보도에
새벽토록 속삭이는 청춘의 도시
푸른 산에 비낀 하얀 고층건물

시가의 붓을 든 심장가들이
목청껏 너의 번성을 읊었다하랴
안뜰의 배나무 그늘아래
내 김매기로 흘린 땀 돌리고
차디찬 산골물에 담근 김치를
농마국수 사발에 시원히 말아들면
이 가슴에도 높아지는 고통
나의 고향!

누가 너를 다시 사람못살곳이라 할거나
연백, 나무리처럼 너의 비탈밭은 기름지지
못했어도

너의 봄과 여름은 바투 짧아도
나서자란 고향땅... 이 한 사랑이
사무쳐 이삭맺는 가을이 되고
아담한 문화주택 락원을 이룬
누가 너를 다시 욕되게 할거나
산포수의 총소리가 한숨같이 잦던 세월
노루며 산양피에 살진것들여
이고장 처녀들을 빗값으로 채갔다고

그래서 우리 수령님
해방을 안고 찾아주신 땡
만세소리는 산처럼 울랐건만
수령님앞에
돌배밖에 드릴 수 없었던 죄스러움이
영원한 아픔이 되고 녀원이 되어
한밤에도 잠 못드는 마음의 나라
그래서 원시림 자작나무아래에선

달도 붉은 산속삼이 백년뿌리를 키우는 땅
그래서 천인절벽 째를 연 벌떼가
츠렁츠렁 산골을 채우는 땅

그래서 그래서 싸움의 날에
침략의 검은무리 거점을 못했고
이고장사람들 너도나도
고산진의 불빛을 삼가 지키며
재진격의 높은 명령 받들어난 땅
또 오늘은 향도의 손길이
북부철길 너의 변강을 돌아
영광의 마루에 세워주신 땅
이 땅이다
수령님 찾아주신 세상으로 복을 받고
우리 땅이 돌보아 앞날이 찬란한 땅

내 이 땅에서 나서 자랐거니
나 또한 이 땅에서 아들딸을 기르리라
자강도 내 고향 두메산천이여
이제 네 하늘 담아 맑고 푸른 눈동자들
너의 산악같은 희망을 가슴마다 지닐제
너는 얼마나 황홀한 메부리를
저 하늘가에 울릴거냐

아아 너는
조국의 하늘에 가장 가깝다
새 행복의 테프를 끊는건가
구름을 거는 아아한 산정
내 환희에 차 눈시울 다시 들면
해빛은 눈부시다 눈부시다

흙 한줌 움켜쥐고

정도희

아니다
이 땅 어디서나
누구나 쉬이 밟고 다니는
흔하디흔한 그런 흙이

더욱 아니다
그저 씨앗을 묻고
열매를 거둬들이며
땀으로 걸구는 그런 흙은

기나긴 항일의 20성상
투사들의 넋이 스며들어
사연많은 흙
장장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났으신 자옥자옥이 새겨있어
더없이 소중한 혁명전적지 흙이여

너는
눈보라 비바람 헤쳐가는
투사들의 가슴에
따사로운 봄훈향을 안겨주고

낮설은 이역만리에서도
고향의 노래 불러준 조국이었나니

흙 한줌 부여안은
이 가슴 뜨거웁구나!
네 만일 백두가 아닌 백두가 아닌
세상 다른곳에 있었다면
그 어이 유산처럼 소중하랴

살아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싶고
죽어도
투사들의 넋이 어린
이 한줌 흙으로 뿌려지고싶은것은

아아
백두의 품에 안겨있으면
백두의 품에 내 안겨있으면
너처럼 너처럼
내 삶도 내 삶도
영원히 빛내일수 있기때문이어라

저녁노을

김송이(총련)

1

바늘끝으로 끊어주는듯 눈두덩이 몹시 사근거리
는것을 꿈속에서처럼 느끼며 문현은 눈을 떴다. 형
광등이 매달린 하얀 천정이며 무명문보, 은은히 풍
겨오는 소독약냄새... 그것들은 여기가 병원임을 짐
작할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왜 병원에 와있을가?... 그래 그래, 차고에
서 쓰러졌지...)

그날 아침 문현은 여느때없이 늦잠을 잤다.

그의 방은 아침해살이 선히 비치는 2층 동녘에
있었다. 봄철부터 겨울철에 이르는 1년사철의 움
직임을 창문에 비치는 해살로 알수 있는 방이었다.
봄은 6시, 여름은 5시, 가을은 6시 30분쯤에 아
침해살이 비쳐 방안이 환해지면 문현은 이불속에서
나왔으며 겨울에는 형광등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
고야 일어났다. 창문에 친 레스문보의 단풍무늬가
마루바닥에 그리는 빛그림을 그는 각별히 좋아하였
다. 그 무늬속에 앉아 막내딸이 날라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신문을 읽는 한때를 그는
하루 일과속에서 가장 좋아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1시간이나 늦잠을 잔것이다. 그
가 막 이불을 들치고 일어나려는 참에 중급반 1학
년에 다니는 막내딸이 문기척을 내며 커피와 신문
을 들고 올라왔다.

《아버지, 조반준비가 됐으니 내려오시랍니다.》

《오냐, 거기 놓고 먼저 내려가거라.》

창문밑 원탁우에 커피잔과 신문을 놓은 막내는
코를 찡긋해보이고 방을 나갔다.

문현은 엷저녁에 계획한 오늘 하루의 다망한 일
을 생각하니 늦잠잔것이 후회되었다. 그는 벌충을
하듯 화닥닥 침대에서 나왔다. 허리를 펴고 기지개
를 크게 켜려고 랑팔을 머리에 뒹굴렸다. 그 순간
바늘로 찌르는듯 머리에 아픔이 달렸다.

(아라, 이건 또 웬일인고.)

그는 손바닥을 이마에 붙이며 침대우에 도로 걸
터앉았다. 뒤편 속도 메스메스해지며 기분이 좋
지 않았다.

(이것, 참...)

요 몇달전부터 자꾸 일어나는 편두통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마음이 켩기였다.

그는 느릿느릿 세수만 하고 거울앞에서 나갈 준
비를 하였다.

《당신 밥드시지 않아요?》

기다리다 못해 방으로 들어온 안해의 물음이다.

《속이 좋지 않아서... 그냥 가겠소.》

《아버지, 어제 많이 자셨지요?》

안해를 뒤따라 들어온 딸애의 말이였다.

《무얼?》

《술...》 하며 딸은 또한번 코를 찡긋해보였다.

문현은 여느때라면 딸의 이런 귀여운 핀잔에 맞
장구를 치고 룡담으로 응했겠지만 오늘은 그런 기
분도 못되었다.

《당신 안색이 좀 나쁜것 같아요.》

요새 지주 매식을 건네며 푸르게 질리는 남편의
안색이며 축간 몸을 속으로 걱정하던 안해는 푸념
투로 말하였다.

《또 공연한 걱정을 하는군.》

문현은 딱 잘라 아무렇지도 않다는듯한 표정을
꾸미며 현관을 나갔다. 마당을 지나 열려진 차고에
들어간 그는 승용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현기증이 몹시 오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아...)

그리고는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다.

문현은 병실내를 천천히 휘돌러보았다. 점적도구,
팽창고, 꽃병, 그옆에 수줍은듯 놓인 소형텔레비존,
시계는 없었다. 사람도...

(그러니 세번째 입원이구나....)

두번째로 수술을 했을 때 하던 의사의 말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다음 쓰러질 때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힘에 겨운 일을 하다가 암이 재발합니다.》

(암이 재발한다, 암이...)

더듬어보니 짐작되는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요새 입맛이 텅난거며 두통이 오는 주기가 짧아진
것, 자꾸 허리가 아프고 등뒤가 쑤시듯이 알알한것
도 모두 오늘의 이 지경에 들어맞는 신체의 악변화
였다.

(그래 재발한게지, 이제 내 몸은...)

세울수도 돌릴수도 없는 이 엄연한 현실속에서
그는 난생처음으로 《최후》라는것을 생각하였다.

(죽는다... 애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

다 자라지 못한 세 아이들을 생각하니 안해에 대
한 죄송함이 가슴을 옥죄인다.

(용서하오. 당신의 충고를 무시해서 내가 어리되
였나보오.)

두번에 걸치는 입원에 대해서 그는 병명이 간장
암이라는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의지로

병을 이기고야말겠다는 독한 결심을 한데다 안식구들과 성장은 했으나 아직 세상물정에 대하여 밝지 못한 동생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그는 의사와 의논한 끝에 절대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안해는 요새 자꾸 나빠지는 남편의 안색이며 죽간 몸을 두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바쁜 일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서 쉬이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문현은 안해의 권고가 남달리 겁이 많은 성미에서 오는것이라고 여겨 그때마다 무시하여 《시끄럽게 군다》고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것이 결국 돌이킬수 없는 현실을 빚어냈으니 이제와서 누구를 탓하랴.

그는 스스로 눈을 감았다. 그러면 연약한 안해의 상냥한 얼굴이 떠오르고 도교에 가서 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이며 딸들의 애티남은 얼굴들이 번갈아 나타났다. 또 그런뒤면 머리속에 《암》, 《죽음》, 《설마...》, 《삶》이라는 말들이 서로를 부정하면서 번갈아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나며 마음속을 피뒹뒹했다.

그의 꼭 감은 눈귀에서 눈물이 줄지어 떨어졌다. 고향에 가보지 못한채 별세한 아버지의 장례식때 보인 이래 처음 흘리는 눈물이였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이제부터 젊은 상공인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고 조국에 가서 수령님 앞에 결의까지 다지고 온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러자 문득 눈앞으로 3년전 총련 상공인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뵈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 접견석상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들 상공인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별치 않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여 동무들은 애국자들이라고... 조국을 위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젊은 상공인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런데 그 과업도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녕 아버지수령님 앞에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래, 이제 어쩔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시간에 무슨 일인가 못다한 일을 할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거기 이르자 초조감과 함께 기운비슷한것이 돋는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계획한 일이며 만나야 했던 사람들을 더듬어보았다.

(조은리사장, ㄷ회사의 야마모토사장, 아니 태무, 태무를 먼저 만나야 하는데...)

젊은 상공인들의 조직인 《백두회》의 정기총회를 열흘후에 하게 된다. 그 총회에서 3기회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현역회장으로 문현이 마지막에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량손으로 더듬더듬 머리말의 신호 스위치를 찾았다.

마침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형님, 정신드셨습니까?》

동생 재현은 피발이 선 눈에도 안도의 기색을 나타내면서 환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하였다.

《오늘이 며칠이나?》

《...10월 9일이지요.》

《난 언제 입원했느냐?》

《이레날입니다.》

《이레라... 그새 넌 여기 내쳐 있었느냐?》

《예.》

문현은 일어나 앉으려고 머리를 들다가 도로 베개에다 놓아버렸다.

《그냥 제세요. 이제 의사선생님이 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병이 대수롭지 않아주기를 바라는 절절한 감정이 섞여있었다.

그러나 문현은 동생의 말에는 아랑곳도 않고 힘은 없으나 여느때와 다름이 없는 명령조로 말하였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서 태무를 여기 불러오너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금융업을 같이 하는 동생이지만 문현은 예이제없이 시키는투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한살이라도 손우 사람이면 공평하지만 아래사람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선배로서 학대하였다. 게다가 기업을 같이하는 동생에 대하여서는 10년이나 되는 나이차이때문인지 갑절이나 엄한 형으로 처신하였다. 그것은 사회에서 노는 자기의 존재며 위치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후배들을 교양하는것이 선배의 본분이라고 자각하는 인간에게 두루 있는 특유한 《가치론》에서 오는것이였으나 재현에게는 그것이 맞갖잖아서 은근히 불만이였다. 하지만 재현은 부친이 작고한 이후로 형님을 아버지이상으로 존경하며 의탁한다. 그래서 형이 쓰러졌다는 급보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와서는 정신이 든 이때까지 꼬박 이틀밤을 새우면서 간호했다. 그러나 지금 눈을 뜨듯마듯 가족도 아닌 판판 남을, 그것도 자기가 가시돋은 눈으로 보는 태무를 찾는것이 더구나 기분이 돌지 않았다.

《형님...》

그는 이런 위독한 때에 태무는 무슨 태무냐고 반박하고싶었으나 의연히 엄한데가 남아있는 형의 얼굴에서 벌써 자기의 속마음을 건넌것 같은 눈길을 읽고는 황황히 알겠노라하며 일어섰다.

동생이 나간후 침묵이 서린 고요한 병실에서 문현은 자꾸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될수록이면 사업에 대해 생각하려고 애썼다.

일정한 궤도에 오른 젊은 상공인조직인 《백두회》가 3년간의 1기사업을 총화함에 있어서 가장

결린 문제가 회원수의 확보였다. 해마다 상공인의 수는 불어나는데 조직에 망라되는 회원의 수는 늘어나기는커녕 하마트면 줄어들 위험성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정사업이며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에서는 성과를 거두고있으니 이 현실은 역원들로 하여금 자기네 사업의 부족점이며 약점들을 옹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것이였다. 문현은 문현대로 젊은 동무들이 신이 나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바재이면 그들의 마음을 덧낼 수도 있다싶어서 미타한 마음을 가진채로 좀더 때를 기다리자고 자기의 립장을 양보하였다. 그리하여 2기 총회를 앞두고 미달된 회원수증가의 지표를 200 프로로 초과달성하는것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원반 버스 기증에다 학교운동장의 체육 시설을 갖추어주는 사업을 위주로 내밀었다.

그런데 총회 당일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시기 총련계 사람들과는 말을 건네기조차 싫어하던 소기업상공인 열명이 갑자기 《백두회》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총회에 참가한것이였다.

그들은 대체로 면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초면인 동포들도 여러명 되였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우리 《백두회》에 가입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입이 아프게 권고해도 들은채하지 않던 사람들이... 문현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내내 그 한생각에 골몰하며 그들에게서 눈소리를 뱉수가 없었다. 총회를 마감지은후에야 그는 내막을 알게 되였다. 그들을 《백두회》에 인입해들인것은 박태무였다.

문현은 굵은 방망이로 되게 머리를 얻어맞은것같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일에 자신을 가져 언제나 자기를 둘러싼 생활을 쥐락펴락하며 일종 안하무인격으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맛은 된타격이였다. 여태 그는 부단히 태무에게 접근하였으며 태무란 인간을 분석하는속에서 자기와 태무와의 인간의 차이를 터득해나간것이였다.

3년간에 걸치는 임기를 끝내고 회장을 새로 선출함에 있어서 문현은 박태무를 후임으로 지목하였다. 지부관하의 젊은 상공인들을 조직에 다 묶어세우는 문제도 그래 《백두회》가 가지고있는 당면 약점들을 극복하고 조국이 바라는 수준에서 회를 이끌어가는데는 그만한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대부분 문현의 제안에 긍정하지만 꼴을 가로짓는 사람들도 있었다. 리유인즉 태무에게는 아직 상공회역원으로서의 활동경력과 기업가로서의 생활체험이 부족하다는것이였다. 그러한 반대자들속에는 태무를 소담보듯하는 동생 재현이도 있었다.

그러나 문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였다. 반의를 보이는 집행부 사람들과 동생은 어떻게 설명하여 납득시킬수 있었다. 아직 태무당자의 의사와 확답을 받지 못하고있는것과 그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눈앞에 박두한 총회준비였다. 바

로 그 준비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태무를 부른것이였다.

2

병중에 있는 형의 분부라 판소리를 못하고 떠났지만 재현은 자전거를 몰아가며 속으로는 두덜거렸다.

(젠장, 전화라도 걸어 부를걸 괜히 집에까지 찾아가며 이러는군...)

한 지부관하에 같이 사는 재현이 태무를 멀리하게 된것은 태무가 조교교원을 그만둔 3년전부터였다.

사립대학을 졸업한 재현은 일본에 영주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일본학교에서 시켰다. 민족성만 똑똑히 가르치면 된다는 확신으로 그렇게하였는데 큰딸이 소학교 3학년을 다니던해 어느날 지부관하에 있는 조선중고급학교 교원이 집을 찾아왔다. 그 교원이 바로 태무였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일본학교에 다니는 재현의 큰딸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켜 민족교육을 받게 하자라는것이였다. 처음에 재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태무의 끈질긴 설유에 재현은 마음을 돌리고 4학년부터 큰딸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켜 그후 아들, 딸 하여 세남매를 모두 우리 학교에 넣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열렬히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의 사명감에 대하여 운운하던 태무가 갑자기 학교사업을 그만두고 돈벌이를 시작하였다. 재현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박태무가 남새가공업 《허가》를 내다니, 그 사람이 그런 표리부동한 인간이였는가. 재현은 무엇인가 속히운것 같은 감정으로 그때부터 속을 못주는 인간이라고 치부했으며 한번 그렇게 단정하니 그의 모든 면이 역증이 나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박태무가 상공회조직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하여졌다. 주에 한번 조직되는 모임에 일을 마치자마자 뛰여오느라고 소금이며 고추가루며 양념들이 묻은 작업복바람으로 참가할 때면 구역질이 나고 당장 그자리에서 뛰어나가고싶을 정도 년덜머리가 났다. 그런데 형 문현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것처럼 엄하고 도고한 형이 무엇때문인지 박태무만은 폐외로 삼삼히 대했으며 날이 갈수록 더 관심이 높아지고 신임하였다. 그것 또한 재현으로서의 매우 부아가 돋는 일이였다...

태무의 낡은 목조 2층집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그는 현판에서 좀 머뭇거리다가 시답지 않은 목소리 주인을 찾았다.

《태무씨 있소?》

조금있다가 현판문이 열리며 초급학교 5학년짜리 사내애가 나왔다. 그는 일을 하던 모양 장갑낀것처럼 양념이 게발린 두손을 부끄러운듯 뒤에 감추

며 대답했다.

《아버진 안계십니다.》

《어데 갔느냐?》

《어머니, 아버지 어데 가셨나?》

총각애가 방에 대고 한 질문에 안에서 태무마누라가 대답하였다.

《박창길동포집에 일이 있어 갔니라-》

《우-응?!》 재현은 저도 모르게 눈길이 쫓쫓해졌다.

박창길이라 하면 《민단》에 속하는 상공인으로 서 총련계 사람들과는 마주서기조차 싫어하는 피혁하기로 소문난 인간이다. 그런 사람네 집에 일이 있어 갔다면 이 박태무란 돈벌이를 위해선 총련이고 《민단》이고 가림없이 거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형의 분부라도 역겨운 생각같아서는 당장 침을 뱉고 돌아서고싶었으나 혹시 다른 일로 갔을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재현은 자신을 달래며 박창길동포의 집을 향해 자전거를 몰았다.

1 시간후에 재현은 수심이 잔뜩 어린 태무를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태무는 울컥 치받치는 슬픔을 가파스로 누르고 침대옆에 앉았다.

늘 이글거리는 부리부리한 눈, 두툼하고 오목한 코, 확이 선한 입, 그속에 가지런히 줄진 큰이, 그리하여 완강한 성격을 나타내는 진한 눈썹, 어느모로 보나 상대를 위압하는 풍채... 곁에 있기만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온해지기만 하는 회장이 병실의 침대우에 누워있다니 태무는 하늘을 원망하였다.

문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치는 다 담가 넣었나?》

늘 자기의 신변을 걱정해주고 마음 써주는 회장이 이 지경에 와서도 여느때나 다름이 없이 건네주는 이 말이 오늘은 오히려 괴롭게 가슴에 마쳐와서 태무는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오늘이면 끝낼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찌다가 이리 되겠습니까?》

《나야 워낙 병원신세를 잘 지는 사람이라...》

문현은 눈을 감으며 후-하고 숨을 크게 몰아쉬고 나서 다시 물었다.

《총회를 맞이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대가나?》

《70 프로정도는 났는데...》

문현을 바라보는 태무의 눈에 어둡게 그늘이 졌다.

《아니 왜 아직 그렇게밖에 안되나?》

문현은 어딘가 의기소침해진 태무의 등글넙적하면서도 강단있게 생긴 얼굴을 주시하며 다소 엄하게 물었다.

《제가 아직껏 푹푹히 사업할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뭘데?》

《박창길동포가 우리 회에 들어오겠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이제 방금 제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껏 눈이 멀어 조국이 아닌 〈조국〉을 조국인줄로 알고있었노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백두회〉에 들어와 조국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겠답니다.》

《음, 박창길이가 그러더라 말이지.》

문현은 기뻐했다. 박창길이로 말하면 재력도 있거니와 인품도 있어서 지부관하의 《민단》계 동포들속에 영향력도 큰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조국을 알게 되었다는것은 그의 영향밑에 있는 다른 많은 《민단》계 동포들을 《백두회》에 인입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문현이 지금 더욱 대견한것은 박태무였다.

《아무튼 자네가 용네, 그 고집불통인 박창길이에게 조국을 가르쳤으니... 자네에게 교원생활 경력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일세.》

《저야 뭐크게 한일이 있습니까, 다 회장님이 시키는대루 했을뿐인데.》

이윽고 문현은 숨을 툭아가지고 총회날까지 해야 할 일이며 그밖에도 《백두회》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박태무가 돌아간 뒤에 문현은 동생을 침대머리에 불러 앉히었다.

《재현아 너도 들었겠지?》

재현은 형이 무엇을 묻는것인지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르는체했다.

《무얼 말입니까?》

《박창길이가 우리 회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다.》

《네-에, 그 참 태무란 사람이 큰일을 했두만요.》

재현이로서는 태무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쩐지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을 다루는 말없는 싸움에서 참패를 본것 같은 잠재의식이 머리를 쳐들었기때문이다.

《아무렴, 큰 성과지, 하지만 더 큰 성과는 바로 그 일을 다른 누가 아닌 박태무가 해냈다는 사실이다. 애 재현아, 나는 그 사람 태무를 우리 〈백두회〉의 다음기 회장으로 추천하련다. 네 생각은 어떠냐?》

재현은 눈이 둥그래졌다. 요새 회원들속에서 다음기 회장을 박태무로 주목하고있다는 말이 돌아가는걸 들으면서 설마 그렇게 되랴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실이 아닌가?

《아니 형님은 뭘하구 그 사람을 회장시킨단 말입니까?》

《나?...》

문현은 애써 대범해지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서글퍼지는 눈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 애는 아직도 내 병에 대해서 모르고있구나, 이제라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동안 마음의 동요를 겪은 뒤에 그는 아서라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속으로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래 차라리 모르는것이 낫지.) 안대야 식구들에게서 눈물밖에 더 짜낼것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마음을 그러잡았다.

《나는 이제 늙었다. 병도 이렇게 악을 쓰고... 우리 〈백두회〉에는 보다 젊고 능력있는 새 회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 꼭 박태무 하나만은 아니지요. 제 생각엔 새 회장으로 뭉니뭉니해도 기업능력과 재력이 겸비된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문현은 알릴듯말듯 골살을 찌프렸다. 동생의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박태무에게는 돈이 없고 앞으로 돈을 크게 벌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현은 동생의 그러한 생각, 다시말하여 인간의 기준을 경제력이나 돈으로 견주어보는 편협하고 금리 추구적인 견해에 정녕 불쾌했다.

《물론 우리 회도 상공인들의 조직이니만치 기업 능력이나 돈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건 돈이나 재력보다 조국을 아는 성실한 마음이고 조국앞에 바치는 사심없는 노력이다. 이 건 우리 〈백두회〉의 존립기반이고 대의명분이라고도 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이나 재력보다 사람을, 애국의 마음들을 먼저 보고 모여 묶어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불부는 변명에 문현은 저도 모르게 벌컥 성을 냈다.

《알건 무얼 알아? 그래 안다는것이 내가 왜 태무, 태무하는지 상기 모른단말이나? 너는.》

갑자기 기침이 터지는바람에 문현은 배우의 이불깃을 거머쥐고 속이 궁근 줄기침을 했다. 그바람에 창백하던 얼굴에 피기가 돌고 이마며 코등에 좁쌀알같은 땀방울이 뽀직뽀직 내뿜었다.

문현은 동생이 떠다준 차잔을 비우고도 한참 있다가야 간신히 기침을 멈추었다. 그제야 못다한 말을 이었다.

《너는 태무를 다 모른다. 이 형에 대해서도...》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누워버렸다.

3

문현이 병원침대에 누운지도 어느덧 닷새가 되었다.

그날은 새벽녘부터 내리기 시작한 보슬비가 차차 큰비로 변하여 이제는 처마끝에서 듣는 락수물소

리가 제법 장마때를 련상케 한다. 간간히 서쪽에서 불어오는 돌개바람이 비발을 병실창문에까지 날라왔다. 문현은 후후후후 창문에 부닥치고는 모여서 팔팔 흘러내리는 비물을 누운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문득 이렇게 억수로 비오는 날에 열이 40 도까지 올라서 까무라친 큰아들을 데리고 미친듯이 구급병원으로 달려가던 추억이 선명히 살아났다.

(그때 난 바지를 입는것도 잊었지. 그래 샤쓰에다 속옷바람이었지.)

쓰거운 웃음과 더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드름이 피고 장난기가 잔뜩 어린 동글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애들을 두고... 내가 죽으면...)

문현은 입원한이래 가족들을 생각하면 《죽음》이 몰려오고 《죽음》을 생각하면 꼭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가족들의 표상이 곁따라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눈앞의 환영을 쫓아내듯 고개를 가로 저었다. 차꾸 나약해지는 정신과의 싸움이 자기에게 당면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라고 제가 저를 통제하였다.

오후부터 문병객들이 오기 시작하였다. 금융회사와 유기업을 경영하는 그의 인간관계며 거래관계는 여간 다양하지 않아서 그만큼 문병객들도 다양했다. 그러나 문현은 차츰 고마움보다 몸이 지쳐 오히려 거북해졌다. 그래 어제부터는 병회복에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가족외의 면회는 일체 거절하였다. 단지 태무를 비롯하여 총회준비를 맡은 몇몇 집행위원들만은 례외로 하였는데 문현은 오히려 그들이 가족들보다 더 기다려지는 때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그가 특히 기다리는것은 박태무였다. 이번 총회의 성과여부가 그가 맡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인간생활이란 참 우스운 구석도 있다. 박태무는 아니더라도 집행위원들이라도 누가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중인데 문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동생 재현의 장인되는 사돈령감이 지평이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동생 재현이 없혀사는 사돈령감은 올해 여든돌이지만 아직 허리도 꼳꼳하고 충기가 좋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오히려 제가 다 안다고 하는 늙은이였다. 로인은 침대앞에 와 지평이를 세우더니 토배기 경상도사투리로 물었다.

《어이구 사돈, 이제 왜안 일잉기요?》

문현은 일어나 앉으려고 했지만 몸에 기운이 없는데다 사돈령감이 어깨를 눌러 말려서 그냥 베개에 머리를 놓아버렸다.

《뭐 큰탈은 아닌걸 이러지요. 사돈님 신상엔 별고 없으십니까?》

《내한텐 감기고뿔도 명함은 못들인당이. 이 사람

한테 물어보오만... 내사 백살을 살라고.》

백살이라... 문현은 사돈령감의 말을 속으로 되뇌어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이 늙은이는 인생을 다 산 나이로도 백살을 넘겨다보는데 나는 금방 천고개를 넘기고 이 세상과 영리별을 해야 하는가? 어쩔수 없는 허무가 텅빈 가슴속에 밀물처럼 차오른다.

사돈령감은 재현이 가져다놓은 걸상에 지팡이를 세워짚고 앉더니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이야기했다. 별로 씨알박힌 새 소리는 없었지만 문현은 혹은 말로, 혹은 눈빛으로 마주 응수를 했다. 한 30 분가량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있는중에 박태무가 병실로 들어왔다. 기다리던 참이라 문현은 반가운 눈빛으로 맞이했다. 태무가 막 문현의 침대머리에 와 서는데 사돈령감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물었다.

《여보게 젊은이, 날 모르겠나?》

박태무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로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 잘...》

《모르겠다?... 그럼 혹시 작년에 비오는 날 길가에서 왜 늙은이를 병원에 업어다준 일은 없나?》

《아니 그럼 그...?》

《그렇지, 내가 바로 그령감일세.》

《야아, 이거...》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두사람은 팔을 벌려잡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사연인즉 이렇게 된 것이었다. 지난해 여름인데 그날 태무는 일이 있어 거리에 나왔다가 웬 로인이 배를 그러안고 남의 집 처마밑에서 신음하고있는것을 목격하였다. 길거리에는 오고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건만 아무도 불행에 처한 늙은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태무는 그 로인이 우리 동포인것을 알고 무작정 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진찰결과는 급성충수염인데 시간이 좀더 지체되었으면 후과가 아주 나쁠것이라는 말을 듣고 태무는 병원을 나섰다. 그랬던 로인을 오늘 여기 전혀 뜻하지 않은곳에서 만난 것이었다.

《...그래 지금은 몸이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지, 자네 덕분에 수술이 잘돼서 내 이제 백살을 살겠당이.》

그들 두사람의 뜻밖의 해후에 누구보다 아연하고 놀란것은 재현이었다. 장인이 신세진 일로 인사값음이라도 하려고 은근히 찾던 사람이 박태무이리라고는 정녕 상상조차 못해본터였다. 놀렘은 그뿐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신세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태무의 소행이다. 일전에 들은, 너는 태무를 잘 모른다고 하던 형 문현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그앞에서 어쩐지 자기가 몹시 치졸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문현은 문현이대로 태무의 인간됨됨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옳았음을 느끼고 기뻐했다.

《아무튼 자네 소행이 고마우이, 이 세상은 저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선 돌볼줄 모르고 외면하기가 십상인데...》

칭찬이 과분한것이 오히려 부끄러워 태무는 얼굴이 불그죽죽해져가지고 눈길을 바로 건사하지 못하였다.

사돈령감이 돌아간 뒤 그자리에 태무가 앉기바쁘게 문현은 물었다.

《지표 달성이 어찌되고있나?》

《제 말은 일들은 그럭저럭 이달 보름께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박창길씨가 많이 도와줘서...》

《그럼 됐네, 아무튼 자네 수고가 많으이.》

문현은 큰 시름을 던 기분이였다. 이제야말로 입원한 이래 줄곧 생각해오던 <백두회> 조직의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재일상공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을 똑똑히 알려줄 때라고 생각했다.

문현은 태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크게 끄덕이였다. 그리고 이미전부터 쭉 생각해온 <백두회> 조직의 결정적인 결함, 상공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문제를 말해주리라 작정했다.

《이제부터 내 하는 말을 잘 새겨들게.》

재현아, 너도 같이 들어야 한다. 이건 꼭 자네들 둘이에게 하는 이야기이니.》

문현은 반듯이 누워 형광등이 매달린 흰 천정을 바라보며 자기가 재일조선인 2세로 이 땅에 태어나 미미하나마 조국과 동포들을 위한 일에 바친 노력을 후세에다 남기듯 조용히 그러나 무게있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상공회일에다 정력을 쏟아붓게 된것은 재현, 너도 아는바와 같이 아버지가 금융업을 하다가 세무소의 차별정책으로 재산을 몽땅 몰수당할번한 그때부터다. 일본교육밖에 받지 못한 나는 총련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상공회의 덕분에 가산도 집도 살았으니 난 그 은혜를 갚는 일념으로 조직에 들어갔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좀 배운탓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면서부터는 돈을 버는데 두각을 나타내었지. 그러면서 상공회회원을 늘이는 사업에도 열성적으로 나섰다. 조선민족의 정신을 잃고 그럭저럭 사는 청년이나 불량배노릇을 하는 청년들을 교양하여 우리 회사에서 일시키면서 조직에 가맹도 시키고... 그런속에서 벼라별 사람들과 다 안면을 익혔지. 허허...

이렇게 인간관계가 넓어지니 일은 더욱 번성하고 재산도 늘어났다.

10년째부터는 점점 불어나는 우리 젊은 상공인들, 말하자면 2세, 3세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

가 마련해준 자리에 걸터앉지만 말고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무엇인가 의의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백두회〉를 조직했지. 그리고 우리 조선학교를 도와나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을 많이 하였지. 노력한 보람이 있어 비조직상공인들과 우리 총련을 멀리하던 〈민단〉 동포도 적잖게 회에 입회하고 학생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해판데로 흘러간다니까. 우리 조직이 일정하게 틀을 갖추기 시작하자 난 일이 다 된것처럼 생각했다. 학교를 돕는 데서 우리의 위치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2년 2번 가지는 들놀이도 온 가족이 참가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지.

그런데 이상한것은 웬 일인지 그이상 조직이 더 커지지 않는거야. 다시말해서 량적변화가 없단말이다. 게다가 회원들의 사이가 차차 버성겨지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돈을 꾸어내는데 보증을 서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채무인이 변재의무를 포기한바람에 보증을 선 사람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리되니 일부에서이지만 반목이 생기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었겠나? 난 이것도 역시 기본을 잊어버린데서 나오는것 아닌가 생각했네. 말하자면 상공인들의 조직이 기업이나 생활을 위한데만 치중하고 보다 의의있고 중대한 문제인 조국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있어야 할 조직이라는걸 망각하고있거든. 조국, 사람이란 그 어데서 삶을 영위하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야 참인간의 존엄과 긍지를 느끼는 법이네. 조국이 없어야 무슨 인간이겠나. 상가집 개신세에 조국이 없는자의 슬픔을 비기는건 아마 그래서겠지.

이 선에서 우리의 사업이 되고있었다면 광범한 우리 상공인들이 조직에 안들어올리 없었네. 우리 지부관하에는 비조직, 〈민단〉 상공인들이 많이 있네. 가내에서 수공업식으로 하는 명세기업의 상공인들 수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묶어세울 일을 못하고있지.

상공인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단결하기 위하여 우린 꾸준히 사업을 해야지. 조직을 위하여 사실 경제력은 없어선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우리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잊어먹으면 안된다는걸 나는 절감하게 되었네.》...

재현은 형의 가슴속이 이렇게 깊을줄은 몰랐다. 곁에서 같이 일하고 상공회사사업도 같이 하면

서 이제껏 형의 웅심을 모르고 살아온 자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형님...)

그는 고개를 떨군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무엇이라 형언 못할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른다.

아버지와의 사별후 형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온하게 살아온속에서 남의 마음속을 볼줄 모르는 속력으로 때버렸다고 생각하니 재현은 더이상 자리에 앉아있기 피로와 머리를 수그린채 일어나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재현동무.》

《내버려두라구.》

문현은 동생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자기 반성과 회오의 내심을 읽었으며 혼자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4

오랜만에 맑게 개인 청청한 하늘이다.

쨍, 쨍... 우짖는 참새소리에 문현은 눈을 떴다. 병원 앞뜰의 단풍나무 잎사귀들이 가락끝에서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고 가지사이를 누비며 헤엄쳐 날으는 새들의 까불거리는 모양은 이루 형언못할 화폭을 펼쳐보인다. 자연은 저리도 아름답고 생의 활력에 넘쳐있는데... 부러웠다. 창밖에서 우짖는 저 새들이 부럽고 가을을 맞아 색깔을 바꾸는 단풍의 《로동》이 부러웠다.

간호원이 들어와 체온을 재고 밤사이에 이상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간 뒤에 동생 재현이 병실로 들어왔다. 큼직한 수지주머니에 무겁게 넣어가지고 온 굴이며 사과 등숙을 랭장고에 넣고나서 침대앞에 놓여있는 결상에 와 앉으며 물었다.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뭘 다른 징조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사실 지난밤에 문현은 자기 몸에 뿌리박고 무섭게 자라고있는 암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느껴보았다. 밤중에 몹시 답답함을 느끼며 잠을 깬데 간부위가 무겁고 손으로 만져보니 돌덩이처럼 굳어진 응어리가 감촉되었다. 《선병의》라는 말이 있지만 상식으로도 암이 이체는 더 손쓸 여지없게 되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문현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바라 새삼스러울것도 없거니와 원하느니 살아있는 한 다문한가지라도 유익한 일을 더하고 죽으며 부디 후회 없기를 바랄뿐이었다.

이윽고 문현은 먼저 침묵을 깨쳤다.

《엇저녁에 돌아가서 좀 생각해보았느냐?》

《예.》

《내 말을 알아들었나?》

《...》

《너는 태무를 잘못보고있다. 아니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투명하지 못하단 말이야.》

재현은 자리를 고쳐앉았다. 그리고 밤새 생각하던 자기의 심중을 먼저 털어놓자고 하였다.

《형님.》

《가만,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라.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다.》

문현은 재현의 마음속을 모를리 없었다. 그러나 동생의 생각이 아직껏 꺾다는것은 능히 꿰뚫어볼수 있었다. 그는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넣어 이야기하였다.

《태무가 교원을 그만둔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련일군인 남동생을 전임으로 사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되리라고, 말하자면 동생을 내세워 자기는 물러선것이다. 이걸 너도 알고있겠지?》

《...》

《조국은 가난한 자기더러 장학금을 주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었다고, 그토록 꿈꾸던 〈선생님〉이란 칭호까지 주었다고... 교원을 그만둘 때 이 고마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였다고...》

문현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형님, 좀 쉬어주세요.》

재현은 자기때문에 형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아니, 마저 해야겠다.》

태무가 생각끝에 얻어낸 결론은 동포대중과의 사업이었다. 우리 〈백두회〉를 더욱더 크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선 광범한 동포들의 단결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하여 분회사업이나 상공회사업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자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그들의 힘이 돼주고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조직에 묶어세웠다.》

《...》

재현은 까딱도 않고 문현의 말을 기다렸다.

《...그에게 없는건 돈만이다. 사실 난 그가 집을 살 때 나한테 와서 보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는가 싶었다. 어느 은행에서도 내가 보증을 서면 문제없이 돈을 꾸어내주니깐.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내가 묶어세운 상공인들속에서 돈으로 내 신세를 지지 않은건 태무뿐이다. 어째선지 아느냐?》

문현은 격한 감정에 갈증이 나서 말할수가 없었다.

《그건 만사를 결정하는건 돈이 아니라는것을 신념으로 여기고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힘이 결정한다는것을 아는 사람이고 위대한 조국이 뒤를 받쳐주고있다는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절감한 사람이다.》

《...》

재현은 형의 손을 꼭 잡은채 머리를 깊이 숙였다.

《우리 〈백두회〉를 훌륭히 이어키우는데는 태무가 제일이다. 그래서 난 3기회장으로 그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재현아, 잘 들어라. 그가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경제문제에 부딪칠 때 난 백방으로 그를 도와나서야 한다. 그가 돈걱정없이 동포들을 묶어세워 우리 〈백두회〉를 지킬수 있도록 너 그를 엄호해주어야 한다. 너는 이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유언이라 명심해라.》

《아니 형님, 지금 뭐라했습니까?》

재현은 제 귀를 의심하였다.

《내 병은... 간장암이다.》

문현은 궁근 목소리로 태연히 이 말을 하였다.

《벌써 세번째이니... 이젠 안되는것 같다.》

담담히 말하는 문현의 눈에 비장한 빛이 한가득 어리었다.

《아니 그럼 지난 입원도 그때문이었던말입니까? 예?》

창백하게 질린 재현의 얼굴은 산사람같지 않았다.

《의사와 나만이 알고있었지. 부질없는 걱정을 시켜 뱉하냐? 내 마음속이나 두면 되는 문제지.》

《형님, 으음...》

재현은 끝내 오열을 터치고말았다. 아,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그쳐라, 당자인 내가 이렇게 뻥뻥한데... 앞으로 네가 날 대신해서 가문의 기둥이 돼야 하는데 마음을 든든히 먹어야지. 그리고 〈백두회〉도 지켜나가야지. 태무를 도와서 말이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재현이었으나 이 순간 자기가 놓여진 위치가 무엇인가 똑똑히 깨달으며 서러움이 짙은 마음속으로 힘주어 약속하였다.

문현은 흥분한탓인지 몹시 숨이 찼다. 그러나 웬일인지 자꾸만 무슨 말인가 하고싶어지는것이 이상했다.

《아, 조국에 가보고싶구나.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한번 뵈왔으면 한이 없으련만...》

어슴푸레한 병실의 창문으로 선뜻한 등색의 저녁해빛이 흘러들었다. 문현은 눈을 들어 하늘가 저 멀리 이글이글 타는 붉은 해를 보았다.

《재현아-》

《왜 그러니까, 형님.》

《저녁해다. 지금쯤 조국의 하늘가에도 노을이 비졌을게다.》

힘차게 다가오는 래일을 약속하며 이글이글 타면서 지는 석양을 그는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총련이여! 외2편

남시우

세계에는
단체들이 수많이 있어도
총련!

그 이름은 오직 하나뿐

출근길에도 걱정이 뒤따르고
아이들 미래를 두고도
마음 놓이지 않는 이 땅에서
마음의 큰 기둥 심어준 그대

외로워도 외로움 가시게 하고
추울 때도 추위를 잊게 하는 그대
사람들은 말하더라
그대는 따사로운 그 품과도 같다고

이국의 풍파속에
향방없이 헤매던 거리
붉은 땀기 머리에 감고
헛되게 피도 쏟았던 거리

오랜 세월
얼룩진 력사의 갈피에서는
자랑이 있어도 떨칠수 없었다
민족의 존엄도 빛보지 못했다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엄혹한 시련이 겹쌓일 때

사대와 교조 거뜰히 쓸어버리고
소생의 새 기원 열어준 손길!

아, 총련
그대의 탄생, 그대의 로선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생각조차 못하리

간악한 반동의 포위속에서
환경은 변하고 조건은 달라져도
애국애족의 대로우에
대를 이어 영예는 빛나고있어라

뜨거운 조국의 부흥을 안고
모두다 애국자, 혁신자가 되자고
한결같은 충성의 메아리
일군들의 가슴속에 파도치고있어라

우리의 행군로 큰걸음 낼 때
혁명의 재보는 더욱 주렁지며
이역땅에 울리는 승리의 개가는
주체의 위업을 풍만케 하거든

총련, 정녕 그대는
위대한 주체의 산아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

일심단결

거짓말도 백번하면 진담이 된다는
파쑸의 론리가 판을 쳤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것인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가지 지표 달성에도
꼬리무는 책동을 부셔야 하고
군중집회 한번 가질 때에도
가로막는 방해를 물리쳐야 하던 때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오르던
자본주의 무서운 불황속에서
탐이 솟은듯
우리 회관이 솟아올랐습니다

저고리를 입으면
통학길이 걱정이란 부모 말에도
일본학교 가라는 말이냐고
아이들은 웃고름을 조여맙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람이 잘 때보다
몇배나 더 큰일 해제했습니다

5개월혁신운동의
고지마다에 펄펄 나뭇기는
저 승리의 기발이 말해줍니다
크나큰 신심을 안겨줍니다

전진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
파란 많은 지난날의 역사의 교훈이자
우리 생활의 원리를 밝히며

수령님만을 믿고 따릅니다
조국만을 믿고 따릅니다
총련조직에 굳게 뭉치며
한치의 흔들림도 있을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위대한 전통을 고이 키우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높이 드신 불멸의 방침

일심단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오직 우리는
일심단결입니다!

우리 말

말을 잃으면
민족을 잃은것입니다
말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는것입니다

우리 말 배우기운동
발음고지 점령운동
일본말투 없애기운동...

우리 말 학습의 교배를 틀어쥐고
아침 저녁 그 교배
억척같이 놓지 않는것은
그것이 생명과 같기때문입니다

얼마나
수모를 받은 말입니까
말이 짓밟힐 때
말의 주인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자식들은 길을 걸어도
부모와는 떨어져
숨어서 가던 길입니다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를 한탄하여
일가 식솔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조국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이제 커서
말은 곧 민족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말을 배우며 눈을 떴습니다

학교면 교실마다에서
분회면 회관마다에서
우리 말 한자한자 익히며
자기 근본을 되새깁니다

밝은 우리 말
가정에 웃음을 꽃피게 하고
말은 애국애족이라는
생활의 신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내 이역에서
우리 말을 귀중한 재보로 삼아
교단에서 학생들앞에 나섬이
그래서 보람은 더 큰것입니다

내 이역에서
더없이 류창하고 아름다운
말의 기수로 글을 쓸 때면
그래서 열정은 더 솟아오릅니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주체의 향도아래 더욱 빛나는
아, 우리 문화어!

조국은 멀고멀어도
우리 말소리, 우리 글소리
우리 노래소리
조국의 숨결처럼 설레입니다

재일조선 시인들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

- 《재일조선시선집》에 대하여 -

오영재

최근년에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에서는 결성 30년을 기념하여 《재일조선시선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근 30명의 시인들이 망라되어 85편으로 묶여낸 이 시선집은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재일 70만동포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도 생동한 시형상으로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것이며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시인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려는 혁명적원칙성과 문학인으로서의 성실성이 매 시편마다 깃들어있어 우리를 공감시켜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재일동포들을 하나와 같이 굳게 단결시키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한편의 시선집을 놓고 재일조선시인들이 30년동안 걸어온 창작활동의 전모를 다 볼수는 없을것이며 그것의 총화라고 서둘러 규정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 한편의 시선집을 읽어보아도 재일조선시인들이 기울여온 창작적열정과 그기간에 거둔 성과들을 그 일면에서나마 들여다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1950년대까지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로 구분하여 편집한 이 시선집에서 매개 년대마다 고유한 창작적특성과 차이점은 있어도 이 시선집전체를 관통하고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시대적사명감과 자각은 일관하게 줄기차고 열렬하며 년대가 흐를수록 보다 심오한 사색의 세계에로 굽어쳐흐르고있다.

참으로 재일시인들의 시문학은 날로 개화만발하고있는 우리 주체문학의 주요구성부분의 하나로 자랑스럽게 성장하고있으며 그 어떤 사멸적인 인간사나 지엽적인 왜소한 감정이 아니라 시대와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깊이있게 반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이 훌륭하게 관철되고있음을 우리는 이 시선집을 통하여서도 능히 찾아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선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만큼 큰 감흥을 안겨주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

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감정인것이다.

시인 남시우는 1950년대에 쓴 시 《나는 조선공민이다》에서 새해 아침에 한 가정이 모여앉아 조국을 그리면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투쟁으로 지켜갈 결의를 감명깊게 다지고있다.

...

시달린 주름과 백발이
이국의 찬바람을 맞고있어도

해가 갈수록
이제는 한탄 아닌
나의 행복할 장래가 거기
움트고있는것이란다

이렇게 모여앉으면
여기가 바로 고향인듯도싶게
수령님의 신년축하문
소리맞춰 읽어도 보고...

시인은 이 시에서 4월이면 평양의 대학에 간다고 뽐내는 큰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기도 하며 조국의 모습이 담겨진 신문을 들여다보며 자랑삼아 소리를 높이는 딸 복순이의 머리로 쓰다듬어주며 조국이 부르는 그길에 자기의 걸음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나는
조선공민이다!

필자는 이 시를 거듭 읽어보며 이 시를 창작한 년대에 다시한번 눈길을 멈추지 않을수 없다.

1950년대로 말하면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모든것을 우리 손으로 새로 일떠세워야 할 가장 간고한 지점이였다. 안팎의 원썩들의 온갖 책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얼마나 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가. 반당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서면서 수령님의 권위마저 헐뜯으려 미쳐날뛰고있던 그때 시인은 찬바람 부는 먼 이국땅에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을 불태우면서 수령님과 조국을 뗄수 없는 하나의 품으로 노래하고있다.

《나는 수령님께 편지를 쓸래요》
 이윽고 손척치며 바라보는 복순이
 이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인가

시인은 설명도 강조도 하지 않았지만 설날에 가족이 모인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주고받는 생활적인 이야기속에서 시인의 깊은 사상과 의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있는것이다.

1950 년대에 창작한 작품으로 또하나 주목할수 있는것은 허남기의 시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 학교다》이다.

이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본 땅에서 민족교육의 첫 문을 연 감격을 뜨거운 흥분을 안고 노래하고있다. 교사는 초라하고 교실은 단 한칸이며 창문엔 유리를 넣지 못해 찬바람이 아이들의 두볼을 얼कु는 모든것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보는것마다 눈물을 자아내지 않는것이 없는 학교이지만 시인에게는 이 학교가 그리도 귀중하고 자랑스러운것이다.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비록 교사는 빈약하고, 작고
 큼직한 미끄럼타기 하나, 그네 하나
 달지 못해서
 너희들 놀곳도 없는
 구차한 학교이지만
 아이들아 이것이 단 하나
 조국떠나 수만리 이역에서
 나고자란 너희들에게
 다시 조국을 배우게 하는
 단 하나의 우리 학교다
 아아
 우리 어린 동지들아

시인은 젖어오르는 가슴속 격정을 시의 첫줄부터 열기뻔 목소리로 터뜨리면서 일본학교보다 오히려 좋다고 눈물많은 선생을 오히려 달래며 씩씩하게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있다. 그때 시인이 그토록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 그날의 학생들이 지금은 어언간 4~50 대의 나이에 이르러 총련의 믿음직한 기둥이 되어 일하고있을것이다. 그들은 오늘에 와서 이 시를 읽으며 그날엔 철이 없어 미처 느끼지 못한 그 감격을 다시금 되살리게 될것이며 비록 시인은 세상을 떠나갔지만 길이 살아있는 그의 숨결을 느끼며 다감한 시인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서만이 민족의 장래도 번영도 있다는 굳은 확신-이것은 우리 민족모두가 다 그러한것처럼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있어서

도 오랜 세월을 통해 뿌리깊이 심어진 하나의 신념이었음을 정화흠은 시 《감격의 이날》에서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어린 시절 모기불가에서 아버지와 길쌈하는 어머니가 밤새도록 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서 커서 장군님뵈러 가자》고 하시던 그 뜻을 되새겨본다. 그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그때처럼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령님뵈을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그런데 드디어 시인이 평양을 방문하였던 그 나날 그리도 쌓여온 소원이 풀려 수령님을 뵈게 되었을 때 막혔던 걱정이 터져나온다.

꿈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수령님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십니다
 어린 시절은 땅만 허비고
 철이 들어서는 남의 땅에 끌려가
 눈물만을 훔치던 이 손을

...

아버지의 땀도 잡아주십니다
 어머니의 땀도 잡아주십니다
 자식의 땀도 잡아주십니다
 대대의 소원이 다 풀리도록

이렇듯 시인의 감동은 깊은 사색을 거쳐 나온것으로 하여 그의 환상은 세월을 소급하여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들까지 감격의 그 마당에 새우고있는것이다.

김정임의 시 《나의 손》도 내용은 이 시와 비교적 유사하지만 시인이 체험하는 세계는 다르다. 시인은 이 손에 자기의 운명을 쥐여주신분이 바로 수령님이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타향의 바람 비록 세차고 운명의 갈림길에 선대도 수령님 잡아주신 이 손만은 더럽히지 않으리라라는 남다른 자기 심정의 고백을 하고있다.

오홍심의 시 《나만이 간직하는 사랑입니다》에서도 마흔이 켜 넘은 녀교원으로서 자기에게 직업적인 혁명가란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며 따듯이 잡아주신 그 손길을 영원히 놓지 않고 잠시도 마음 흔들림없이 민족교육을 위한 길에 한몸을 바쳐갈 그의 심정을 소박하고 꾸밈없이 노래하고있다.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생각은 집 떠나 멀리 가있는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심정에 비유할수 있을것이다.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 낯설은 이역땅에 삶의 보침을 푼 그 세대에 있어서는 짓밟히고 가난한 조국은 그대로 눈물이었으며 그런 민족에게 차례지는것이란 망국노의 설움과 모욕뿐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조국은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자기

의 힘으로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강대하고 존엄있는 조국이며 이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재일동포들은 이역땅에서도 땀땀이 가슴펴고 보람찬 투쟁속에 참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조국에 대하여 부르는 노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의 노래이며 뜨거운 사랑의 노래인것이다.

정화수는 시 《어머니조국이여》에서 조국방문의 나날 자기를 그토록 뜨겁게 눈물로 안아주며 자기들이 한 작은 사업성과에 대하여 그토록 기뻐해주고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고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땅에서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 깨끗한 민족의 지조와 량심을 다바쳐 반들어가고싶은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인것이다. 조국의 남녘땅엔 시인 정화수가 나서자란 고향이 있고 고향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다. 달려가면 한나절도 못되는 그곳, 남들은 문턱넘듯 드나드는 그 길이건만 그곳엔 어머니가 있어도 진정한 조국이 없기에 분계선을 사이둔 북과 남의 리산자와 다름없이 제 3국에 있는 그로서도 혈육들과 수십년을 생리별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에서 어느덧 백발을 이고계실 어머니를 서른해 세월이 흘러가도록 만나보지 못하고 눈망울속에서만 그려보는 애절한 심정을 서두에서 토로하고있다. 그러나 능히 울수 있는 길인데도 오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추호도 나무랄게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의 높은 정신세계와 시인인 아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시는 극적인 정서로 승화되고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천백번을 찾아간들
어머니가 바라시는 아들이 아니라면
그 무슨 참다운 반가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보다 정이 깊은 우리이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불행을 참아도
나 하나만 위한 길은 찾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고맙고 귀중한 조국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애잔한 혈육적인 감정을 초월한 고상한 민족적사명감의 높은 자작속에서 값높이 천명함으로써 강한 시적여운을 던져주고있다.

《아, 조국은》이라는 제목으로 된 김학렬의 시는 최근에 평양 문예출판사에서 발행되어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는 시집의 표제인데 시인이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무르익혔던 감정의 일정한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언제나 그림던 마음속에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며 《삼지연》호와 함께 달리는

푸른 바다의 물결우에 높이 솟는 가슴속에 눈물어린 배고동소리이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물의 속삭임,

《줄지어 걸어가는 소년단원들의 씩씩한 노래소리이며 언제나 마음속에 고이 간수하고있는 금강산의 맑은 물이며 깨끗한 돌들인것이다. 그러나 시를 읽어 내려갈수록 시인은 조국에 대한 정다움만으로 그의 감정이 머물러있지 않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을 위해 제한물을 바쳐 싸우는 헌신적인 복무속에 있다는 시인의 높은 정신적 자세가 여기서 높이 울리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오리바람이 부나
너의 가슴속에
해와 별 빛나는
넓고 푸른 조국의 하늘
늘쌍 간직하고있는가?

이렇게 시인은 자신에게 반문해보면서 조국을 위한 길은 구체적으로 총련조직에 충실하며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의 비좁은 비위만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게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길에 있음을 다시금 가슴깊이 자각한다.

무척 사랑하기에
그 어떤 희생도 할수 있고
하나의 아침노을 비긴 래일 위해
불속에도 총칼앞에도 선뜻 가슴 내밀수 있는
아, 조국은 우리 충신의 이름
하늘같이 크고 넓은 우리의 리념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인간의 참다운 감정을 감수하게 되는바 그것은 이 시인자체가 그 누구의 체험을 빌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된 감정을 무뎌없이 규탄한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공감의 깊이 자아내게 하고있는것이다.

조국방문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밤렬차, 흔들리는 창가에서 행복했던 방문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조국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는 김두권의 시 《조국을 떠나면서》는 그들의 가슴속에 조국이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며 조국이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 우리의 가슴도 시인과 함께 젖어든다.

아, 백두의 천지와
만경봉의 술바람도
내 가슴에 있고
묘향산과 금강산도
내 사진에 찍어가고

정다운 수도의 거리
너인들의 눈인사도

가까이 지내면 벗들과의 우정도
조국의 그 모든것을
내 가지고 가건만

조국이어
내 그대만은
가지고 갈수 없구나

이국땅으로 떠나야 할 시각 두고가는 조국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머니 그 사랑이 뜨거워 눈물을 흘리는 시인의 모습이 뜨겁게 가슴에 안겨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김태경은 《니이가다항구에서》라는 시에서 조국을 떠나며 안해와 아이들과 잠시 헤어지는 순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노래하면서 어제날 조국없이 수모받던 가족들을 따듯이 안아줄 품이 있음을 뜨겁게 느끼는 시인의 심정이 우리를 깊은 감동의 세계에 이끌어주고있다.

마음 다잡고 진정하려던 내가
아이를 목마에 태워 노래부르던 당신이
배고동소리 우렁차게 울려퍼지자
자꾸만 눈물이 북받쳐옴은
진정 조국이 너무나 곱아워서여라
진정 어머니품이 너무나 따사로와서여라

오상홍은 시 《오늘은 하늘우에 앉혀주네》에서 고려호텔의 회전식전망대에서 펼쳐진 수도의 위용을 바라보며 어린애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다. 이 세상에 가장 따사로운 손길이 되어 자기를 안아주고 희망찬 앞날에로 이끌어주는 조국, 한생을 의지할 마음의 기둥이 되어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서는 60이 넘은 이 년로한 시인도 어린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지나온 한평생 고달픔도 많았던 그 세월을 돌이켜보며 조국이 오늘은 자기를 하늘우에 앉혀준다고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있다. 바로 시인이 말하고있는 그 하늘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상상봉인것이다.

최영진은 시 《원발로 디딜거냐, 오른발로 디딜거냐》에서 《만경봉》호를 타고 조국을 처음 방문하게된 시인의 격동에 찬 심정을 간결하나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련과 고난을 용감하게 이겨내어 인민이 가꾸어낸 보물같은 땅, 곱마운 조국에 첫인사를 드릴 두고두고 잊지 못할 감격의 첫기슭에 시인은 원발을 먼저 디더야 할지, 오른발을 디더야 할지 망설인다. 이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신성한것을 앞에 둔 심장의 두근거림이며 차마 믿어지지 않는 꿈같은 세계에 들어서는것 같은 환희로운 망설임인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설쳐놓은 정서적긴장감이 이 시에서 어떻게 울리고있는가.

아, 펼쳐지는 조국산천
눈앞은 아롱아롱
원발도 아니였어요
오른발도 아니였어요

눈물이 먼저
조국땅에 닿았어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형언할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 시의 결구는 흔히 말하는 시인의 재치도 아니며 감정의 진실인것이다.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재일공민들치고 《만경봉》호 갑판우에서 가까와오는 조국땅을 보며 누군들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마디로 짝어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 여기서는 한편의 짧은시로 표현했으니 그것은 그가 바로 시인이기때문인것이다.

조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나라잃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의 장수별로 우러르며 희망과 신념을 안고 살아온 재일 70만동포의 가슴속에 새겨진 조국이란 곧 수령님의 품이며 바로 수령님의 그품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당에 대한 감정은 그래서 더욱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로진용은 시 《나는 들었네》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재일조선공민들의 뜨거운 흠모와 존경의 정을 함축되고 발랄한 시형상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조국방문의 길을 떠나올 때 이번에 가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친근한 음성들 들을수 있는 영광을 지니게 될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안고온 시인은 날에 날마다 새로이 변모되어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드디어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것 같은 환희에 넘친다.

뵈고싶은 마음 간절해 그런가
듣고싶은 마음 사무쳐 그런가
나는 들었네, 주체사상탑에서 그이 음성
나는 들었네, 서해갑문에서 그이 음성

3대혁명 부르시는 담찬 그이의 음성
인민들을 찾으시는 다정한 그이의 음성
그이 손길 뻗어있고 그이 사랑 스며있는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아, 나는 들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소박한 소원으로부터 단순하게 시작된것 같은 이 시가 마지막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대한 감탄속에서 자기가 지녀온 소원과의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시적일반화의 높은 경지로 시를 승화시키고있다.

김윤호는 《매화꽃향기 스며드는 이른 봄날에》에서 일본땅에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천리만리 바다를 뛰어넘어 당중앙의 밝은 창문을 향하여 줄달음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역의 하늘을 이고 살아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복과 보람찬 삶이 있다는 마음의 진정을 트랙에 핀 매화꽃 향기에 담아 노래하고 있으며 고갑순은 시 《달력에 적은 붉은 별》에서 새해 아침 달력에 2월의 명절을 붉은별로 그려넣는 서정적주인공을 통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어 행복한 조선의 미래가 휘황하게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감동을 안고 노래하고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시선집》에서 보여주고있는 주제의 다른 하나는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총련의 지도밑에 진행하고있는 온갖 애국적투쟁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생활들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미국땅에서 그들이 걷고있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많은 애로와 난관속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일, 때로는 가슴아픈 일인들 얼마나 많을것인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령님과 조국이라는 마음의 기둥이 억세게 뿌리박고있기에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자기의 생활을 락천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것이다.

리금옥은 시 《버선》에서 조선녀성들의 수난의 력사, 강의한 의지와 절개를 지켜온 슬기로운 투쟁의 력사를 더듬어보면서 미국땅에 살아도 선조들이 전해준 버선에서 민족의 향취를 느끼며 자기를 지켜가는 보람과 긍지를 노래하고있으며 손지원의 시 《수박에 깃든 이야기》에서 운동장을 넘어와 탐스럽게 열린 수박을 다시 주인의 발에 옮겨놓고 비물에 젖어 썩을가봐 밑에 파리까지 받쳐준 조선대학교학생들의 미거를 담시적인 형식을 빌어 재미있게 노래함으로써 래일의 조국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이 얼마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고 미더웁게 자라나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허옥너는 시 《산진달래》에서 가꾼 사람 따로 없고 지킨 사람 따로 없어도 이름없는 산밭에 남면저 피어나 방긋이 웃으며 맞아주는 산진달래에서 화려하지는 못해도 꾸밈없이 곱게 살고, 순탄하지는 못해도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함을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세계를 뜻있게 노래함으로써 이국의 하늘밑에서 소문없이 조국을 받들어가는 그속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숨은 영웅들의 속깊은 마음을 잘 반영하고있다.

강명숙은 총련에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기어이 이어나갈 심중의 결의를 시 《어머니》에서 절절하게 다지고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떠나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곁에 계십니다
제 가슴속에, 우리 심장속에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목련꽃 피는 졸업식날에
철부지 저를 업고
애국으로 걸으신 어머니의 길-
수령님 가리키신 그 길을
못다하신 어머니의 뜻 이 가슴에 고이 안고
이 딸은 땀땀이 나아가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이제는 계시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 추억이거나 그리움만이 아니다. 이 시를 통하여 시인은 애국은 애국으로 대를 이어 2세 3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어머니처럼 조국의 통성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시인의 공민적인 주장이 있으며 민족의 대업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길에 이를 사려물고 나서는 계승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있는것이다.

총련을 통하여 벌리고있는 애국운동의 불길속에서 체험된 다양한 생활감정들은 류인성의 시 《열풍이 인다, 대렬이 간다》, 홍순련의 시 《노을은 붉게 탔어라》, 윤갑환의 시 《삼돌이》, 황진성의 시 《우리 선생님》, 오향숙의 시 《대학은 꽃밭이려나》, 류창하의 시 《옛 제자부부》, 리방세의 시 《하얀저고리》, 김정수의 시 《꼬마손풍금수야》, 전철남의 시 《범》들에서도 정서적이며 락천적으로 잘 그려져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이 해외에서 벌리고있는 애국운동을 놓고 이야기할 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결코 떼어놓을수 없다. 그것은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남녘땅과 혈육적으로 련결되어있다는 사정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그 현명성과 진리성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공화국정부가 벌리고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감당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반미자주화를 위하여 싸우는 남녘의 애국적인 인민들의 투쟁대오에 함께 서있는 심정으로 성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재일동포들,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땅에서 온갖 고통속에 시달리고있는 남녘의 형제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는 그들의 심정을 시인들은 자기의 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남시우는 시 《남녘땅 시인이여》에서 어느 단골집 골방 《뮤-즈의 향기》속에 파묻혀있지 말고 피뜨겁게 일어나 항쟁의 대오에 서라고 남녘땅 시인들에게 열렬히 호소하고있으며 김학렬은 시 《아, 한강》에서 한강을 력사의 거세찬 흐름에 비기면서 산악같은 노도를 일쿠어 통일의 원쑤, 시대의 오물들을 쓸어버리라고 피타게 절규하고있다.

김광숙은 시 《철이야!》에서 스산한 서울 한복판, 미제양키와 군사파쑈무리들의 악독한 구두발에 짓밟혀 목숨을 잃은 남녘의 한 소년을 두고 인간 야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소년이 품었던 희망이 꽃으로 필 그날을 기어이 투쟁으로

쟁취할것을 다짐한다.

철이야!

우리는 반드시 원쑤를 갇고야 말테다
다시는 불쌍한 철이가 안나오게
하루속히 통일을 이룩하리라
수령님의 크낙한 사랑이
많고많은 철이들에게 가닿도록
철이의 갈망이
붉고붉은 꽃으로 피어나도록

한통무는 시 《검은 테프》에서 남편을 심문하는 《공판장》 한구석에 검은 테프로 입을 막고 말없이 앉아있는 안해의 가슴에 타는 항거와 울분의 불길을 보며 참사람의 참다운 투쟁이 봄빛을 맞을 그날을 부르고있다.

문예동이 결성되어 30 년이라는 기간 재일조선 시인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굽힘없이 조선시문학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 성과의 일면을 보여주는 《재일조선시선집》에는 철두철미 조선혁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시문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는 재일조선시인들의 올바른 자세와 립장이 있고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할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한생을 살아갈 불타는 충성심과 드팀없는 신념이 맥맥히 굽이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주체의 시문학의 만발한 화원속에서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물론 제한된 지면을 통하여 이 시선집을 다 소개할수는 없다. 그러나 공화국기치아래 뭉쳐 애국사업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재일 70 만동포들의 사상감정의 대변자로서, 그들을 보다 높은 투쟁성고로 고무하는 고수로, 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온 그 보람을 여기서 느낄수 있으며 일본에 사는 재일공민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걸어온 그 자욱들을 긍지와 자랑에 넘쳐 돌이켜보게됨을 우리모두가 기쁘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이 시집에 포함되어있는 매개 시편들을 놓고볼때 아쉽게 생각되는것, 부족점으로 찾아보게 되는 문제들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우선 먼저 이야기하고싶은것은 일부 시들중에는 그 사상적의도는 의심할바없이 좋지만 그것이 시적으로 충분히 형성화되지 못한 약점을 발로시키고있다. 그것은 시의 내용전체를 놓고 말할수 있는 시들도 있고 내용자체는 비교적 정서적흐름을 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르익지 못한 생경한 표현들을 그대로 씌므로 하여 정서의 흐름을 깨뜨리고있는 시

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서부터 오는 필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애국사업에 이바지하고있는 동포들의 모습, 민족의 얼을 잃지 않고 민족의 권리를 지켜가는 동포들의 다양하고도 섬세한 생활감정을 더 들여다보고싶은 욕망들이 시선집을 보면서 품게 되는것은 재일시인들이 70 만동포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생활을 더 다채롭게 취급하지 못하고있는데서 오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문에 시 양상들이 다양하지 못한감을 주고있다. 아기자기하고도 재미있는 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게도 하는 시, 때로는 짧으나 생활의 격언과도 같은 시, 경쾌하고도 명랑하여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시 등 창작에서 보다 다양한 양상을 추구한다면 개성이 뚜렷하고 특징들이 예리한 시들이 이 시선집에 보다 많이 편집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필자의 이런 의견은 우리 시문학전반이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의 시문학은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 높이에까지 오르지 못하고있으며 풍부한 서정성과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문제, 산문화와 류사성을 극복하고 개성화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등 우리 시문학앞에 제기하고있는 당의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필자는 주체의 시문학의 주요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재일조선시문학앞에 우리 시문학전반이 요구하고있는 이 문제들을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는것을 호소하고싶은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60년대보다는 70년대에 70년대보다는 80년대에 오면서 재일조선시문학은 정치적으로 생경한 표현들이 많이 극복되고 보다 생활적이며 정서적으로 시형상이 심화되어가고있으며 시적사색도 깊어지고있다. 그리고 전도 유망한 신진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재일시문학의 대렬을 보다 힘있고 풍부히 하여주고있다.

참으로 《재일조선시선집》은 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속에 언제나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할뿐만아니라 자신들이 또한 총련애국사업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체험된 감정의 산물이어서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한것이다.

시평이라기보다는 이 시선집에 대한 소개에 불과한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시각을 맞이하게 될 1990년대에는 재일조선시인들이 보다 찬란한 시문학의 화랑을 펼쳐놓음으로써 우리모두를 기쁘게 해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탄전의 새날은

서동린

산촌의 싱그러운 정기를 안고
탄전의 새날은 예서 시작되는가
희디흰 대리석우에 정중히 받들린
쟁구옆 현지교시판이여

귀중한 가르치심 정히 새겨져
오늘에 할일과 래일에 할일
드팀없이 키잡아주며
위훈과 기적에로 불러주는곳

그날처럼 어버이수령님
탄부들과 동발나무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탄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날처럼 안전모도 친히 써보시며
믿음중에 크나큰 믿음 없어주신곳

예서 탄전의 마음들이 억센 날개를 펴고
예서부터 탄전의 벅찬 일과가 펼쳐지나니
입갱전 대렬앞에 올리는
갱장의 확신에 넘친 지령수자도

예서 안은 궁지 있어 것처럼 신념에 넘치고
교대 끝난 막장의 짙막한 총화도
예서 품고간 량심 있어 엄숙하여라

탄부로 한생을 살아오는
귀밑머리 희숙한 로탄부도
그날에 어버이수령님
허물없이 잡아주신 그 손으로
꿈결에도 착암기를 더듬어 찾으며
막장을 떠나지 못하거니

아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와 궁지
시대의 높이에서 빛내여주고
탄부의 량심과 의리들
샘처럼 순결하게 해주며
탄전의 결심과 총화를 마련해주는곳

정녕 여기서부터
눈부신 해살 한껏 뿌리며
탄전의 새날은 깃을 편다

숫돌을 바라보며

신국봉

언제봐도 뒤에 숨어 말없이 수직수직
몸이 가루되도록 닳갈아 날세워준 숫돌

등은 닳아 뿔어질듯 움푹 패워
젊었던 모습은 조금도 남지 않았구나

여름이면 풀베어 거름더미 높이라고
가을이면 익은 오폭 하루빨리 거두라고

뒤에 숨어 수직수직 닳가느라 밤도 모르던 숫돌

사람들 닳잘들면 닳칭찬은 하면서도
나날을 세워준 숫돌만은 생각도 못했구나

생각깊이 다시보면 뿔어질듯 움푹 패인 등엔
한평생 닳갈아준 쇠물빛 물들어있는듯
몸을 갈아 빛을 남긴 숫돌 빛나게만 보이누나

시대정신의 진실한 구현과 90년대성격 창조문제를 두고

최언경

오늘 우리 작가들은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역사적 순간에 살고있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여기에는 우리 작가들과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의 당당한 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있으며 혁명투쟁의 선도자,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커다란 기대가 표시되어있다.

돌이켜보면 인류문예사가 시작되어 수천년, 로동계급문학의 역사가 막을 올려 백여년의 역사를 기록해왔지만 고금동서의 그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도 문학예술지식인들이 이처럼 크나큰 믿음속에 이토록 중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보람찬 삶을 누린적은 없었다.

우리는 오고가는 길에서 만났다 헤어지는 길동무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이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넘어야 할 수만고비 시련의 언덕, 곡절많은 오늘의 세상형편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얼마나 깊은 뜻을 안고있는 고귀한 칭호인가!

지금 우리 작가들은 당이 안겨준 이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 가득차있다.

대중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기본은 시대정신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형상이다. 격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이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인류는 바야흐로 21 세기가 눈앞에 바라보이는 20 세기의 마지막 년대인 1990 년대에 살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팽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연이어 벌어졌으며 인민들

의 자주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다.

격변하는 오늘의 이 심각한 정세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가 아니면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혁명의 근본문제를 엄숙하게 제기하고있다.

우여곡절은 있을수 있어도 역사는 멈춰세울수도, 되돌려세울수도 없으며 역사의 흐름을 따라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된 정세 속에서 21 세기로 넘어가고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며 또한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 신념과 의지속에 1990 년대의 시대정신이 있으며 바로 이 시대정신의 체현자가 우리 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1990 년대의 성격이다.

90 년대성격,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격변하는 역사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체현자이다.

그러한 신념과 의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린 조선중앙통신사 5 국 2 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의 편지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그들은 편지에서 우리 당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역사적시기에 철의 신념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였던 락원의 10 명당원들처럼 그 어떤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을 따르는 이 길에서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같이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 국 2 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에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받아안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90 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바로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조선의 참모습이다. 이 《일심단결》의 모습속에 우리 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90 년대의 인간성격이 있다.

90 년대의 주인공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체현자라는 의미에서 80 년대 주인공들의 주도적성격을 변함없이 이어받고있지만 보다 새로운 시대적특징들로 그것을 더욱 풍부히 하고있으며 빛나게 혁신하고있다.

그러면 우리 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90 년대성격의 혁신적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90 년대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이다.

신념은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지만 혁명가의 진가를 규정하는데서 신념에 대한 문제가 오늘처럼 심각한 뜻을 가진 적은 일찌기 없었다. 신념이야말로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신념이 강하고 지조가 높은 인민이며 오늘에 와서 그것은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있다. 지구는 멈춰세울수 있어도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꺾을수 없다. 이것은 항일의 혈전만리, 미제와 맞서 불비속을 헤치며 우리 수령님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신 철의 신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욱 굳게 해주신 의지이다.

장시 《우리의 궁지》(백의선 작)와 《인민은 말한다》(계훈 작)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을 그처럼 세차게 격동시키는것도 바로 여기에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는 우리 당의 위대성,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함께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시대의 신념과 의지가 강하게 맥박치고있기때문이다. 시들은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정론적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생경한 직선적구호가 아니라 시인자신의 뜨거운 체험으로 정화되고 승화된 우리 인민의 자연스러운 생활적정서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처럼 우리 시대의 뜨거운 시대정신, 당과 혁명, 기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필승불패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을 힘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신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활그대로의 진실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 주체사상의 위대성이며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성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 우리 수령님을 믿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를 믿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믿는다.

오늘의 돌변하는 세상형편은 수령과 령도자가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생동한 생활로 보여주고있다. 참된 수령이 없으면 혁명이 승리할수 없다는것이 어제날의 피의 교훈이라면 똑똑한 당, 똑똑한 지도자를 못가지면 승리한 혁명도 한순간에 망쳐먹을수 있다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역사적현실이며 세계인민이 통감하는 혁명의 진리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필승불패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름 그 어느때보다도 가슴터지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사회주의 전조선에 굳건히 서있을수 있었으며 래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세계사적사명을 다할것이다.

우리 문학은 가장 위대한 이 혁명의 진리를 생활그대로의 진실로 힘있게 확인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 속하는 15 편의 장편소설과 《빛나는 아침》, 《50 년여름》 등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작품들과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예지》는 이 분야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재보로 된다.

장편소설 《예지》는 1960 년대말-70 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지만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위대성과 그이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으로 간직해나가는 인간들의 형상을 인간학적으로 품위있게 그리고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험적이다.

장편소설 《예지》는 영화혁명을 돌파구로 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여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기

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처음으로 장편소설과 같은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빛나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적 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우리 문학예술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문학예술혁명의 중심고리를 보시고 우리 식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사실그대로의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꼭절했던 작가, 예술인들의 운명을 사랑과 믿음의 한품에 안아 하나의 혁명대오, 충성의 작가, 예술인 대오로 묶어세워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잊을수 없는 화폭속에 담고있다.

이리하여 장편소설 《예지》는 당의 위대성형상에서 주로 덕성일면에 많이 치우치던 부족점을 극복하고 작품의 제명이 제시해주는바와 같이 빛나는 예지로 문학예술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해명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귀중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소설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덕성을 그리는데서도 인간성격들을 그이의 사랑과 믿음, 한없는 인간애와 운명적으로 밀착시킴으로써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펼쳐보이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신념의 원천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매우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 우리 당의 위대성은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영원한 원천이며 우리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우리 문학은 당의 위대성, 수령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한 대작, 단편적인 작품들과 함께 모든 주제의 모든 작품들에 이러한 정신, 이러한 형상이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와 《너당원》(김보행 작) 그리고 《철의 신념》(김리돈 작)이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는것도 여기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드팀없는 신뢰와 철의 신념이 뜨겁게 깔려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기초에는 또한 주체사상의 위대성이 놓여있다.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회이며 사회주의의 발전은 그가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의 과학성, 혁명성, 현실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키는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사

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었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독창성,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확신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그 신념의 기초를 철학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장시 《우리의 궁지》가 우리 인민의 참된 궁지의 노래로 되는것도 여기에 사람중심의 혁명학설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심오한 형상적해명이 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 위대성은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다운 사회주의생활속에 있다. 우리 문학은 생활속에 꽃피나고 생활로 검증된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신념의 기초를 밝히는데서 또한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혁명의 자주적주체의 강대성에 대하여 옳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승패는 그 주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령, 당,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일심단결된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기초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 당, 대중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있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권리를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잘 형상하는것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따라 약육강식,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문학으로 될수도 있고 자유와 평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에 기초한 고상한 인간관계를 펼쳐보이는 참다운 문학으로 될수도 있다.

주체사상은 가장 숭고한 인간애의 원리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었으며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옳게 밝힐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전사들과 인민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믿음, 숭고한 의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과 효성 그리고 혁명동지들 서로가 친형제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눈물겨운 동지애의 세계를 기쁨진 생활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임으로써 이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수령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충성의 철리의 호상관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이다. 원천이 있어야 샘이 솟고 샘이 있어 대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품이 있어 조선의 혁명가들은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열이 백천, 천만으로 되어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게 된것이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진리를 인간학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의리》(정창운 작)는 좋은 경험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90년대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 확고한 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라는데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에서 뚜렷이 발현되고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생활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뜨거운 사랑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공정의 열렬한 사상정서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단편소설 《빼곡새가 노래하는곳》(리태운 작)과 《새로운 기술에서》(한웅빈 작) 그리고 텔레비전극 《종달새》(손광수 작), 예술영화 《우리는 청춘》, 텔레비전극 《북방의 겨울》, 《후대들의 길》(윤광연작)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 작품들에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함께 나의 행복, 나의 희망, 나의 이상, 나의 삶을 한껏 꽃피워주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가슴터질 듯한 사랑과 애착, 긍지와 자부가 차고넘치고있다. 북방의 겨울과 싸워가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내 나라의 철길을 놓아가는데서 청춘의 참된 삶과 보람을 간직한 사람들, 나날이 문명해지는 사회주의 농촌생활에서 청춘의 희망과 이상을 꽃피워가는 청년들, 참으로 이 주인공들의 가슴에 차고넘치는것은 내 조국,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긍지이다.

여기서 특히 자기의 휘황한 전망과 화려한 도시

생활을 담보하는 단란한 가정의 품을 떠나 빼곡새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고향땅을 보람찬 로동으로 가꾸어나가는데서 앞길이 구만리인 자기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새 세대의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는 단편소설 《빼곡새가 노래하는곳》은 매혹적이라고 할만큼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작품은 도시를 떠나 농촌에 뿌리를 내린다는 류형화된 주제에 머무는 작품이 아니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생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작품이다. 이러한 현실공정의 열정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우리 시대의 새형의 계모의 시점을 통하여 매우 특색있게 생활적으로 형상함으로써 더욱 큰 감명을 주고있다.

경험은 작가가 현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인민의 생활을 자신의것으로 만들 때 현실긍정적인 좋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새로 개척되면서부터 인민의 사랑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있는 텔레비전 소설과 극, 영화 등의 참신하고도 풍부한 형상들에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일부 작품들은 현실공정의 열정이 매우 부족하고 지어 뺄담하기까지 한것이 시급히 극복해야 할 우리 문학의 현실태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부정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극히 부분적으로 그리고 매우次要적으로 내재하는 결함과 부족점을 전면적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과장해보임으로써 형상전반을 어둡게 만들고있다. 물론 결함과 부정은 긍정에 의하여 개조 극복되고있으나 그것은 많은 경우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불과하며 형상전반을 두고 볼 때에는 부정이 주는 인상이 더 강하게 안겨오는것이다.

더구나 부정의 성격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펼쳐지는데 반하여 긍정에 의한 부정의 극복과정이 설득력없이 선언적으로 그려질 때 그러한 인상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생활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현실공정의 열정이 부족한 표현은 또한 생활에 극을 주고 운명에 곡절을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예리화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지어 어떤 작품에서는 현실공정의 락관적기백보다 비극적정서가 더 강하게 풍기고있다.

난관과 시련은 혁명의 길에서 반드시 부닥치게 되며 극복해나가야 할 불가피의것이지만 그것을 일면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면 그역시 우리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의 은혜로운 영상을 흐리게

할수 있다.

난관과 시련에 대한 묘사는 우리 인민을 혁명에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것으로 되어야지 극을 위한 것, 그자체를 위한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이러저러한 레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겪게 되는 운명의 곡절을 흥미본위주의적으로 추구해들어가면 우리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는데로 나갈수 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의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제도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이 고마운 제도 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잘 형상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적량판에 차넘치는 우리 시대의 생활감정과 정서를 진실하게 잘 반영하는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의 생활, 락천적인 정서와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할줄 모르는 혁명적락관주의를 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가요 《휘파람》, 《도시처녀 시집와요》, 《축복하노라》, 《축배를 들자》 그리고 아담한 텔레비존극 《종달새》가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것은 거기에 그들의 생활이 있을뿐아니라 밝고 건전한 시대정서가 약동하고있기때문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멀리 해방직후에도 거슬러올라가지만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김진성 작)와 그것을 각색한 텔레비존소설이 청년들의 인기를 끄는것도 그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참답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썩고 병든 자본주의생활과 대비하여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여기서 선차적인것은 천만금의 돈과도 바꿀수 없는 값높은 정치생활, 물질문화생활속에서 인생의 더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인생관을 철학적으로 깊이 보여주는것이다.

인간성격을 인생관화하여야 한다.

생활의 참뜻은 결코 눈에 보이는 생활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간의 정신, 사상과 정서, 인생관에 있다.

우리 문학은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그리는데 매력을 느낄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더욱 깊이 육박해들어가야 한다. 매개 사람에게 인생관화된 우월성만이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으로 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의 본질을 옳게 해명하는것이다.

비록 맨밥에 된장을 찍어먹어도 내 고향, 내 조국이 제일 좋다는식으로만 생활을 그릴수는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생활에 대한 아무 근심걱정도 모르고있으며 모두가 다 고르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러한 생활을 한쪽에서는 한몫을 용납할 한칸의 집과 한끼의 끼니가 없어 엄동설한에 한지에서 떨며 죽어갈 때 다른 한쪽에서는 휘황찬란한 산데리야미에서 지글지글 타는 스테이크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며 먹고도 남아 개에게 주는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생활에 비기겠는가.

우리 문학예술은 물질생활령역에서도 생활을 왜소화하지도 리상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의 물질생활의 기형화와 대립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생활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자본주의와 대비하여 보여주는데서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에서와 같이 제3자의 시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형식의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도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분야에 관심을 돌리고 주제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형상적공간을 넓혀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특히 그들이 직접 체험한 자본주의생활과의 대비의 시점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데서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받들고 새로운 《9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우리 문학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우리 인민의 앞장에서 투쟁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투쟁모습을 잘 그려야 한다. 특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그날과 같이 오늘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는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의 고상한 생활은 우리 문학이 관심하여야 할 중요한 생활령역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결합시켜 옹고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이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전략적구호이다. 여기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이 구호는 오늘의 시점에서 훨씬 더 심원한 뜻을 가지고있다. 우리 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선혁명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쓰라린 시련을 겪었을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당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였으며 우리 식대로 살아가고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것은 우리 식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또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를 민족제일주의정신과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의 기초에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제일주의정신이 강하게 깔려있다. 성격과 생활도 우리 식으로 민족적특성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그려야 한다. 민족적이 아닌 그 어떤것도 우리 식의것으로 될수 없다.

90년대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비극사를 영원히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90년대에 기어이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과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오늘 조국통일의 열망은 북과 남은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적인것으로 확대발전되고있다.

이리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열망은 조국통일주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 문학이 창조하는 모든 인간형상에서 뜨겁게 맥박쳐야 할 시대정신으로 되고있다. 가요 《통일이 어서 오라》가 《조선은 하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생활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분단반세기의 비극사가 빚어낸 가지가지의 비애와 슬픔을 통탄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러한 비극과 고통의 장본인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떠나 힘차게 싸우는 적극적인 인

간의 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조 《통일열원》(동기춘 작)과 텔레비죤소설 《그날은 오리라》(윤광연 작)는 좋은 시사를 준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는데서 특히 그 앞장에서 싸우고있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남조선혁명에서 청년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 보급선전하는데서 앞장서고있으며 반미투쟁의 앞장에 나서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투쟁은 혁명투쟁에서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로동자, 농민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단순한 연결자가 아니라 혁명의 기본동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통일과 반미 투쟁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차지하는 이러한 직위와 역할을 형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망을 반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려는 뜨거운 열망을 잘 반영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이러한 감정을 주선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형상하여야 한다.

가요 《남해가의 붉은 꽃》과 《별보려 가자》(박미성 작)가 그토록 북남의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도 이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총련을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1990년대에 성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크나큰 시대적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리 인민을 투쟁으로 고무하는 시대정신의 체현과 90년대 성격을 빛나게 형상한 훌륭한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첫물오이

신경애

처녀시절과는 달리 가정주부가 된 이즈음 나의 눈길은 자연히 식료품 남새상점들에 많이 쏠리고 째나는데로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해진다.

어느날 퇴근길에 있는 일이다.

어스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거리에는 어느새 갓가지 네온등불이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 드넓은거리 랑전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출입문으로는 하루일을 마친 녀성들이 바삐 드나들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은 남새상점으로 돌려졌다. 아마도 풍성한 식탁을 놓고 웃음꽃 필 가족들을 위한 주부의 의무감에서 이리라...

이때 상점에서 무엇인가 한꾸레미 들고나오던 한 녀인이 나를 보더니 먼저 반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구... 옆집 새색시로구만. 빨리 들어가보라구. 오이, 첫물오이를 파네.》

(아니, 벌써 오이가?...!) 하는 의혹과 함께 파란오이가 없혀진 국수그릇을 받아들고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한껏 들레었다.

칭높은 소리로 수다를 떠는 그 녀인의 소리에 못시선이 나에게로 쏠려지자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상점안에 들어섰다. 순간 싱그러운 향기가 폐부속을 파고들었다. 생긋한 그 향기는 오이, 도마도, 썩갓, 빨간 쥐무우 등 갓가지 남새들로 풍성해진 매대에서 풍겨오는 것이었다.

이른봄에 여름을 련상시키는 매대앞에서 아이들 마냥 즐거워진 녀인들은 우리 애아버진 오이속박김치를 제일 좋아한다느니, 누구는 빨간 쥐무우김치가 좋다느니 하면서 남편들의 식성을 두고 서로들 속살거렸다. 한 녀인은 유치원생인듯한 아들에게 빨간 도마도를 쥐여주는데 그녀석은 한쪽손을 내밀며 오이까지 달랜다. 《육십두 참...》 애엄마도 지청구비슷이 한마디 했으나 아들의 그 투정을 받아 큼직한 오이를 한손에 들려준다. 그제야 애녀석은 정충정충 뛰며 상점문을 나선다. 그를 바라보는 애어머니의 얼굴에도 빙그레 미소가 어린다. 행복찬 모습이였다.

《뭘 사시겠어요?》

상냥한 판매원의 물음에 나는 성급히 오이를 달라고 보자기를 퍼들었다. 하나같이 매출한 오이였다.

흔히 첫물오이는 6월중순경에 맛보곤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때이르게 오이가 상점에 들어온걸까?

혹시 올해가 다른 해보다 류달리 계절이 앞당겨진것일까. 그런것 같지 않다. 작년보다 눈이 더 많

이 내렸고 봄날씨도 더 쌀쌀하다. 그리고 아지랑이 피어나는 농장벌의 저 남새포전들에 이제야 오이순이 파릇이 뻗고있을것이다.

그런데 오이라니?

의아해하는 나의 표정에 대답이라도 하듯.

《새로 건설된 온실에서 키운 오이랍니다...》

(아, 온실오이?!...)

판매원의 짝막한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명절도 아닌 례사로운 날에 이 자그마한 남새상점에서 이해 첫물오이를 받아안게 될줄이야. 이것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평양시안의 모든 세대들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니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주고싶어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하해같은 사랑과 은정에는 끝이 없다.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려는것-바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념원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최근 어느 한 도의 온실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온실을 잘 꾸렸다고, 온실건설은 이렇게 해야 한다시며 친히 벽온돌온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온실을 평양시뿐아니라 전국각지에 일반화하도록 은정넘치는 가르침을 주시였다. 눈내리는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생산공급하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는 우리 수령님, 언젠가는 지난날 남새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지지도도 가난히 살아온 우리 인민들에게 아낄것이 없다시며 평양시온실농장을 건설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들보다 먼저 주민용남새공급문제를 의논하시고 중요 국가정치회의에서 남새의 인구당 공급량과 그에 따르는 총생산량 그리고 온실농장 면적과 터전까지 잡아주신 우리 수령님!

세계 그 어느 나라 력사에 이처럼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풍만하게 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며 친어머니심정으로 온 나라 가정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이런 나라, 이런 수령이 또 있어본적있었던가...

언제나 인민들속에 함께 계시며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수령님의 그 은정에 떠받들리어 가는곳마다 남새온실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오늘의 이 행복한 저녁도 마

련된것이리라.

사람이 공기속에 살면서 공기의 혜택을 모르고
복속에서 복을 모르듯이 어찌 저 너인들이 첫물오
이에 깃든 수령님의 그 사랑을 다 알수 있으랴...

인민을 위한 수령님의 그 지극한 사랑어린 첫물
오이를 받아안고보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당의 구호가 뜨겁게 안겨와 오이향기에 취
한 내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크고 생신한 첫물오이를 한보자기씩 사들고 어린
애마냥 기쁨에 젖어있는 저 너인들 그리고 불밝은
방안의 풍성한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집집의 저 웃

음소리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우리 인민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매 가정마다에
웃음과 행복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시는 인민의 자애
로운 어버이이시다.

레사로운 이 저녁, 온실에서 키운 이해의 첫물오
이를 사안으며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 풍성한 식탁
을 마련해드릴 기쁨에 앞서 나는 이러한 행복을 마
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
할 결의를 새삼스럽게 다진다.

참으로 어머니를 문득 만난다면

리종덕

참으로

그날이 와서 통일이 와서

문득

어머니를 만날수 있다면

아아, 너무도 억이 막혀

수수십년 새겨온 그 말들을 다 잊고

가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소리

다만 엄마-하고 울릴게다

장에 갔던 어머니 늦어만 와도

엎어질듯 달려가 안기던 목소리

하루만 떨어졌다 만나도

마냥 응석을 부리던 목소리

세밤 자고 오마고

외가에 간 어머니전만

까맣게 기다리던 그 세밤이

천번 만번 지나도록 못오신 어머니

칠순도 더 넘은 백발이런만

상기도 내 머리속엔

아주까리기름이 반드럽던

가리마 반듯한 그 까만 머리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기전엔 더 먹을수 없는 이 나

이웁고

이 아들을 보기전엔

차마 눈을 감을수 없는 어머니려니

사랑은 죄를 녹인다 하였거늘

이 아들과 어머니 사랑만이 아닌

온 겨레의 사랑이 합치면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을 어찌 못허물랴

또 한층 높이 오르는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새날을 맞으며

뜨겁게 새겨보는 마음

어머니와 이제 만난다면

나이도 세월도 다 잊고

헤여질 때의 그 나이로 되돌아가

어머니 치마폭에 안기리다

참으로 통일의 그날이 오면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내 겨레 내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소리

삼천리를 그대로 흔들어놓을게다

오오, 지열보다 뜨거운 통일의 환호성

땅도 하늘도 아닌 바로 내 가슴속에서

엄마-하고 터져

지구를 통채로 흔들어놓을게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우리가 금성청년출판사 창작실 소설가들과 함께 대동강 기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것은 어둡이 퍼 그나 갓든 저녁이었다.

시원한 강바람에 휘날어진 버드나무가지가 서서히 설레인다.

여름이 다가온 완전한 봄밤이다.

강으로부터는 시큼한 물냄새가 풍겨온다.

저 멀리 바라보이는 통일거리는 온통 불야성이다. 창작실 실장 김진성동무의 마음은 한없는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그의 머리속에는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동지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의 구절구절이 떠올랐다.

그는 창작실의 모든 작가들이 여느때없는 열정을 가지고 밤을 지새워가며 일한다는것이였다. 그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력사에 사는 작가들의 가장 큰 궁지는 위대한 시대에 사는 궁지이다. 오늘의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대한 끝없는 궁지를 안고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작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의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작가들의 뉘뛰는 심장의 박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력사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처럼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한다는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실장은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이 값높은 칭호를 빛내여가는 그 길에서 그는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에 묻다》(가제) 제1부 사회주의본을 내놓을수 있었다.

이 장편소설은 국토분단, 민족분렬의 력사와 나

라의 통일을 위한 남반부인민들의 반미항쟁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있다.

지난기간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1, 2부)를 창작하였고 그것이 예술영화로 텔레비죤소설로 되어 독자들과 친숙해진 그의 현재의 창작성과는 참으로 기대되는것이다.

소설가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기를 띠었다.

설사 옥에는 티가 있을수 있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드는 마음에는 그 어떤 티가 있어도 안된다는 당의 작가로서의 충성의 심정이었던것이다.

밝은 불빛이 비낀 기슭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검푸른 물은 그 깊이를 가늠할수 없이 장엄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소설가 김창수가 현지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전기철도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중편소설 《후회없는 길》(가제)의 추고를 끝냈던것이다.

소설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창작의 첫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는 현지체험에서 현지에 나간 작가의 가슴이 현실공정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지 않을 때는 작품의 줄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실무적으로 찾아다닐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취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가 주의 깊게 들었다.

...작가는 장인바치가 아니라 창작가이다. 창작이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것을 새롭게 열어보이는

것이다.

장인바치는 기존방법만으로도 숙련이라는 전진을 가져올수 있지만 항상 새것을 창조해야 하는 작가에게는 기존것의 답습은 담보로도 될수 없다.

때문에 작가는 충성의 열정을 가지고 보고 듣고 사색하면서 현실체험을 깊이 하여야 한다.

대동강을 넘어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바람은 더워오른 우리들의 온몸을 식혀주었다.

창공 저 멀리 나타난 못별들, 대동교우를 기운차게 달리는 자동차와 뺄스들, 가지를 흐느적이는 나무우에서는 무슨 새인가 푸드득거리며 강 저쪽으로 날아간다.

좋은 밤, 좋은 계절이다.

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소설을 쓰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창작자세를 갖추고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는 김창수동무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미전에 그가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한 영화문학 《산정의 수리개들》도 현실체험에 대한 이런 창작자세로부터 흘러나온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더없이 기뻐다.

《중요한것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옹계 반영하는문제라고 봅니다.》

소설가 정충호의 말이다.

《시대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지향을 깊이 보여주기 위해서도, 새형의 인간성격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도 현실체험은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진성실장은 소설가 신용선동무가 현실체험을 깊이 하면서 중편소설 《들쭉령의 세집》(가제)을 훌륭히 창작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산간마을 세집에서까지 텔레비존을 볼수 있도록 텔레비존중계탑을 세워주시는 뜨거운 은정과 사랑을 통하여 당의 품속에서 세상 부림없이 살아가고있는 우

리 인민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그 말에 더욱 공감되었다.

옳은 말이다. 현실체험을 하는 작가는 저렇게하여야 한다. 각이한 인간성격과 복잡한 인간생활을 보여주는 소설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범상히 흘러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예술적진실을 찾아볼줄 아는 그런 창작적개성, 탐구정신을가져야 할것이다. 이것은 현실속에 들어간 작가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리라.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위대한 믿음과 기대를 담고있는 뜻깊은 회답서한이 그들의 창작활동을 더없이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이 류례없는 믿음의 뉴대속에 수령과 작가, 령도자와 작가의 관계가 가장 참되게 맺어진 오늘의 벽찬 현실인것이다.

로동당시대의 작가로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작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이 값높은 칭호를 빛내가는 그 길에서 작가 한정아는 중편실화소설 《별》의 초고를 썼고 그외 많은 소설가들이 장, 중편소설의 초고집필에 달라붙었다고 한다.

밤은 깊어가지만 저 멀리 바라보이는 통일거리건설장의 불야성은 더욱 휘황하다. 한통의 주춧이래도 더 빨리, 더 질 좋게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충성의 열정을 그대로 보는듯싶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동강 기슭을 걸어가며 창작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투쟁의 도시 광주에

장혜명

아아, 피의 도시 광주여

나는 아직

그대의 아들딸들에게 바치는

진혼시를 쓰지 못했다

꽃나이 가슴들을 덮은 봉분으로 하여

더 높아졌다는 무등산

그 봉분들이 비바람에 깎이우며

다시 10여년 세월이 흘렀어도

내 마음은 아직

그대들과 영결하지 않았기에

자주, 민주를 불러

통일조국을 불러

피뿜는 가슴 노도로 내밀고

항쟁의 거리에 펼쳐나섰던 용사들

무한궤도에 깔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화염방사기에 맞아 재가 되면서도

통일이여, 어서 오라

아아, 세월을 넘어 오늘도 들려오는

그날의 웨침소리여

금남로의 네거리에

거꾸로 매달렸던 너대생의 머리채처럼

푸른 아지를 실실이 드리우고

5월의 봄바람에 흐느끼며

복수를! 복수를 부르는

아아, 초목이여 산천이여

렬사들이 마지막 눈길에 고이 그려보며 간

통일의 새아침 안아오기전에

천백배 복수를 갚기전에

우리 무엇으로서 그네들의 넋을

진혼할수 있단말인가

통일의 제단에

피어나는 청춘을 엮고 간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의 넋은

그 무슨 《위령탑》이나

몇 푼의 보상금으로는 우롱할수 없는것

내 조국의 허리에 가로질린

분단의 장벽을 활활 걷어내고

북남겨레 얼싸안을 그날에야

그대의 아들딸들은 고이 눈감으려니

그날에 나는 쓰리라

무등산을 찾아

렬사들의 영령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의 진혼시를 읊으리라

그네들이 것처럼 바라고 바라던

통일의 기쁜 소식 목메여 아뢰리라

아아!

자주와 민주의 어머니도시

아직은 눈물의 진혼시가 아니라

북남삼천리에 통일을

통일을 불러 몸부림치는 도시 광주여!

분노한 광주

박창민

보람찬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언제나와 같이 나는 레사로이 또 한장 탁상일력을 번졌다.

5월 18일이다.

부지중 쨍-하니 분노의 물결이 가슴치며 세차게 안겨들었다.

(5월 18일! 아-광주인민봉기의 날!)

반파쇼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항쟁에 펼쳐나 생명의 서슴없이 바쳐싸운 광주항쟁자들의 영웅적투쟁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죽이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민주정부 수립하라!》...

파쇼의 전횡과 억압에 항거하는 분노한 인민들의 웨침소리는 세월을 넘어 울려온다.

5월의 창공높이 민주주의 기발, 피에 젖은 기발을 추켜들고 원썩놈들의 땅크를 맞받아나간 항쟁투사들,

온 도시가 하나의 거세찬 불기둥이 되고 80만 전체 시민이 총천하는 분노의 활화산되어 세차게 타도는 항쟁의 도시 광주!

애국적민주세력을 말살하고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파쇼와 민주교살의 동토대로 만든 미제와 그 주구놈들을 반대하여 민주와 통일을 절규하며 일떠선 수십만 봉기자들의 분노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들의 영웅한 모습과 함께 눈앞에는 매국배족의 무리, 극악한 살인마들의 몸서리치는 인간도살장면이 가슴아프게 안겨온다.

...희세의 인간백정 전두환, 로태우군사파쇼도당의 살륙명령을 받은 악명높은 공수특전대, 기갑부대, 항공부대의 7만명이나 되는 살인귀들이 미국제

총과 칼, 미국제 땅크와 비행기, 미싸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다.

미제의 살인지령을 받은 전두환놈이 지껄었다.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음놈들은 모조리 죽이라!》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라!》

땅크로 깔아죽이고 총으로 싸죽이고 총탄으로 두개골을 까서 죽이고 대검으로 찢러죽이고 눈알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살아움직이는 태아를 총창으로 찢러 불속에 처넣는다.

너대학생들을 집단검탈하고 옷을 벗긴 다음 유방을 도려내고 가슴을 란도질하여 뜯어낸 심장을 쇠줄에 꿰서 걸어놓고 히히닥거린다...

놈들은 이렇게 수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1만수천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세기의 야만 미국놈들에게서 살인법을 배운 전두환, 로태우놈들의 야수적만행은 어쩌면 그렇게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이 저지른 살륙만행과 똑같은가.

모범농민이라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달구지로 각을 떠서 죽이고 애국미를 바쳤다고 눈알을 뽑아내고 심장을 도려내고 불태워죽인 미국식인종들의 그 《기질》을 전두환, 로태우파쇼도당들은 광주대살륙전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동서고금의 력사에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한 살인만행을 놈들은 광주에서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하여 무등산골짜기는 시체로 쌓이고 광주천은 피가 흘렀다.

광주시는 《피의 목욕탕》, 인간도살장으로 변하였다.

오죽하면 외국기자들이 그 모습을 텔레비존으로 방영하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텔레비존을 보지

말라고 하였겠는가.

참으로 광주인민봉기의 10일간은 민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타는 지향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온 세계에 뚜렷이 파시한 력사의 10일간이었고 온 나라, 온 겨레가 광주와 함께 웨치고 광주와 함께 싸운 대중적폭동의 10일간이었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애국역적을 증오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항쟁의 10일간이었다.

그것은 또한 미제와 그 주구 전두환, 로태우파쏘도당이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대살륙만행의 10일간이었다.

그때로부터 11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광주항쟁자들이 것처럼 갈망하여 목숨바쳐 싸운 그 의로운 요구는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 오히려 더 무참히 짓밟히고 남조선은 더더욱 파쇼의 란무장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광주의 녀은 살아있다.

정녕 광주인민봉기는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용감히 싸운다면 그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으며 정의와 진리는 대포와 비행기, 총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공로》로 미국놈들의 비호하에 《대통령》갑투를 쓴 로태우놈이 민중의 시체우에 군사파쇼독재의 아성을 쌓고 폭군으로 군림

해도 광주의 항거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법이다.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굽이쳐흐른다.

력사는 독재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자국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광주의 그 웨침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간의 삶의 권리도 생각할수 없고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광주는 부른다.

세월을 두고 가슴에 채워든 분노를 터치며 또다시 항쟁의 거리에 펼쳐나서라고.

그날에 흘린 항쟁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 한몸바쳐나서라고!

광주는 분노한다.

광주학생사건의 파문을 일으켜 온 세상에 애국의 기상을 떨친 항쟁의 도시, 항거의 도시 광주!

미구에 온 남녘땅은 제2, 제3의 광주로 타오르리라.

나는 창가에 다가가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항쟁자들의 선혈로 물들어 나무잎사귀조차 붉어졌다는 광주!

그래서인지 내 바라보는 저 멀리 남쪽하늘이 피빛으로 타고있었다.

(아-5월! 피의 5월! 영웅적광주인민봉기의 5월!)

그날의 웨침소리를 싣고 분노한 광주가 다가왔다!